‘생태적 감수성,
살면서 느끼고 기른다’

– 산촌유학 탐방 결과 보고서 –

일러두기 : 일본에서는 ‘산촌유학’이라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골유학’이란 이름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료집에서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연구공간 〈대안과실천〉 및 격월간 민들레 편집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대안과실천〉은 2007년도부터 〈대안공간 민들레〉로 통합되어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민들레(mindle.org)로 문의해주십시오.

차례

산촌유학 이해하기 | 민들레 편집실 엮음

– 산촌유학이란 • 4

일본 산촌유학 현장연수 기록 | 정수진 정리

– 연수일정 • 11

– 오사카 산촌유학센터 야마모토 씨 인터뷰 • 13

– 나가노시 오오카 초등학교 • 21

– 나가노시 오오카센터 • 26

– 야사카마을 스바 씨 댁 방문 • 35

– 야사카센터 • 40

– 연수 참가자 중간 평가회 • 45

– 감나무자연학교 • 48

– 이슈 마을 • 50

– 미야마센터 • 53

일본연수 현장취재 1 – 격월간 『민들레』 | 박경화

– 왜 산골로 유학 갔을까? • 55

일본연수 현장취재 2 – 한겨레신문 | 현병호

– 도시와 시골의 행복한 만남 '산촌유학' • 65

우리나라 사례 1 | 김일복

– 지리산 교류학습, 그리고 산골유학 • 69

– 참고글_ '산촌유학을 제안합니다' • 75

우리나라 사례 2 | 이명학

– 상주 웃늘티에서 시작하는 산골유학 • 81

– 참고글_ '귀농과 산골유학' • 86

생태교육 활용하기 | 박경화

– 산골유학과 생태교육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 91

우리나라 산골유학의 쟁점 | 현병호

– 산골유학, 또 하나의 대안 만들기 • 99

산촌유학 현장보고 워크숍

– 행사순서 • 105

– 워크숍 기록 • 106

교보 프로젝트 지원서 | 김경옥 • 117

산촌유학 이해하기

산촌유학이란

▌『민들레』 편집실 엮음

격월간『민들레』44호에 '시골로 유학가기' 제목으로 실었던 글을 손본 것입니다. http://www.mindle.org

시골 동네 골목길 한켠, 어디서 뒹굴었는지 바짓가랑이에 잔뜩 흙을 묻히고 얼굴엔 땟국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들 가운데 유난히 얼굴 뽀얀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쑥한 옷차림에 서울말씨를 쓰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계집아이들은 그 뽀얀 피부를 보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고, 사내아이들은 시기 어린 눈빛으로 온갖 잣궂은 장난을 쳐댔습니다. 옛날부터 방학 때면 이처럼 시골 친척집에서 한 달 가까이 머무는 도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은 옷과 학용품을 보면서 시골아이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네를 넘어 더 너른 세상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곤 했습니다. 한편 장난감과 놀이동산에 익숙한 서울 아이는 콩서리와 멱 감기, 팽이치기, 모닥불 피우기 같은 시골아이들 놀이에 빠져 해 지는 줄 모르고 놀았더랬습니다.

요즘은 방학 때면 도시 아이들에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캠프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외갓집 캠프' 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곳에는 동네 또래 아이들도 없고 외할머니도 없습니다. 외할머니 없는 외갓집 캠프. 상업화한 체험 교육의 한계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만큼은 자연 속에서 자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방학 때 잠시나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다양한 캠프를 만들고 보내지만, 이러한 단기 체험 방식이 갖는 한계는 뚜렷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적어도 일 년 정도를 산골에서 생활하면서 온 몸으로 자연과 산골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산촌유학' 입니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일정 기간 부모 곁을 떠나 산골에 머물며 그 지역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산촌에 살고 있는 어른들이 도시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 선생님이 되어 또 하나의 가족과 시골의 공동체 문화, 자연체험을 하게 해주는 교류학습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기존의 하숙이나 홈스테이와 다

른 점은 아이들이 머물 곳에 있는 어른이 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철학을 가진 이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생태적인 감수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도시에서 온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사귀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게 되고, 자신의 고향을 새롭게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본 산촌유학의 시작

산촌유학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먼저 정착시킨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 산촌유학은 1976년 나가노 현 기타야스미 군 야시카 마을에서 처음 싹을 틔웠습니다. 이 지역에는 1968년에 설립한 '아이들을 키우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소다테루카이(育會)라는 생태·환경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 산촌, 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밑거름으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생태적인 사람을 키우자'는 목표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 때 도시 아이들이 야시카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야외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놀이도 하는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체험'을 중요시하는 이 환경교육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큰 화제가 되면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참가했습니다. 그러다 활동에 참가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좀더 오랫동안 시골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하고 부탁 겸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년이라는 긴 기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무리가 아닐까, 만약 된다 해도 신청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우려 때문에 처음엔 선뜻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청이 계속 이어지자 실제 가능한지 조사와 연구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초·중학생 9명이 야시카 마을로 전학하면서 산촌유학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산촌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생태교육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손에는 절대 아무것도 들지 말 것!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갈 것!'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가방은 항상 등에 메고, 비 오는 날 우산도 들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비옷과 장화가 필수품이 되겠지요. 그렇게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1시간을 걸어 학교까지 가는 길이 바로 생태교육의 장입니다. 길가에 새로 핀 들꽃도 들여다보고, 개울물에 손도 담가보고, 친구랑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갑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오가는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등굣길만 마련해주면 되는 거죠.

일본에서 산촌유학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에서 더 나아가 '지역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도시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오면서 시골마을에 활기가 넘쳐나고, 통폐합 위기에 있던 작은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계속 존립할 명분을 주었던 것입니다. 도시에서 온 이들이 지역에서 소비활동을 벌이면서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산촌유학은 벌써 3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살며 배운다'라는 주제에 가장 잘 맞는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싹트는 산촌유학

산촌유학의 장점은 겉핥기식 체험이 아니라 오래 머물며 생활 속에서 느끼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 곁을 처음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립심을 키우고 자연을 경험하고 생활을 돌아보는 놀라운 체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도농교류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어 학기 중이라도 전학 절차 없이 다른 지역에서 두 달은 머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절차 없이 공문 한 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학교 간에 서류가 오고 가면 아이들은 시골학교든 도시학교든 옮겨갈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기운을 경험하려는 도시 아이들과 부모, 그리고 그들을 믿고 맡아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교류학습, 산촌유학과 닮은 사례를 직접 들어 볼까요?

사례1. 지리산 함양 김일복 댁

본래 제 꿈은 환경운동가였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했죠. 제가 맡은 일은 생태 선재기행 준비였는데, 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다니는 기행이었어요. 그 기행에 온 아이들과 바깥에서 어울리다보니 어린이 환경교육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우리 부부는 경남 함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고, 지리산 너른 품에서 아이들과 자연체험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했어요. 곧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서 또 다른 생태교육이 가슴에서 싹텄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자연 속으로 그대로 내놓아 보자' 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일본에 갔다가 우연히 교류학습을 알게 된 우리는 우리나라 방법에 맞고 우리 집 형편에도 맞는 교류학습을 고민하게 되었고, 2003년부터 2주씩 도시아이들이 내려와 지금까지 5차례 머물렀습니다.

우리 집 둘레는 모든 게 놀이거리입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우리 동네부터 슬슬 걸어 다닙니다. 비가 올 땐 잠시 날이 개는 틈을 타서 걸어요. 맛, 냄새, 소리, 촉감,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걷다보면 맑은 날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길은 논두렁일 수도 있고, 아는 길일 수도 있고, 낯선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걷는 안내자는 자연을 느낄 것, 최소한의 안전과 아이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대답해 줄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가는 것은 자연을 만나는 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새로 알게 된 자연의 비밀은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일기장에 담으면 됩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 것!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바옷과 장화는 필수품이죠. 집에 돌아와서는 살림의 주체로 참여합니다. 씨를 뿌리고 심고 돌보고,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도 걷어오고 아불도 갭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들도 도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자연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의식주를 중심으로 짭니다.

의(衣): 놀 때는 옷 걱정하지 않고 신나게 놀고, 잠들기 전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겨울에는 뜨개질을 하고 실뜨기 놀이도 해 봅니다. 어릴 적 바느질 하며 뜨개질 하며 꿈꿨던 것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죠. 가까운 곳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천연염색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올 가을에는 아이들이 만난 작은 보물을 챙겨갈 수 있게 작은 주머니 만들기를 해보려고 해요.

식(食) : 들살이 때가 되면 농사를 함께 합니다. 경험 없는 아이들에게 덥석 일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쉬운 일을 거들면서 먹을거리가 어떻게 밥상에 오르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면서 "우리가 먹는 쌀이 논에서 나오니까 논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니?" 하면 논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봄부터 나는 들나물 산나물 뜯기도 좋은 놀이입니다. 아이들은 눈썰미가 좋아서 한두 번 알려주면 잘 뜯어요. 같이 걸으며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한 땅의 노력과 바람의 노력, 태양의 노력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애써 뜯은 나물이니 밥상에 올라오면 안 먹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억센 것이라도 먹어보는데, 혀끝으로 경험한 기억은 본 것, 들은 것, 기록한 것보다 오래 남기 때문이죠.

주(住): 구들방에 불을 지피면서 나무하는 수고로움과 구들의 원리를 배워봅니다. 무쇠솥에 데운 물로 세수를 하면서 따뜻한 물, 따뜻한 방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머무느냐 뿐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머무느냐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대여섯 명이 모였을 때 나이가 다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밥 먹기 전에 놀던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 역할을 일러주어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집은 이렇게 머무는 이들의 관계형성에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산촌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의 뜻입니다. 2주 동안 부모를 떠나 시골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서류가 필요하죠. 학교 담임선생님께 체험학습이 아닌 2주 동안 시골에 머무는 교류학습이라고 설명하고 '교류학습 참가신청서'를 받습니다. 머무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같은 인적사항을 적고, 교장선생님 도장을 받아 아이들이 잠시 다닐 마천초등학교로 보내면 됩니다. 서류가 오면 마천 초등학교에서는 수락서를 본래 아이의 학교로 보냅니다. 참가비는 2주에 20만 원(급식비와 모든 비용 포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토피로 고생하던 아이가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가려운 것이 없어져 짜증도 나지 않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돌아가서는 다시 약을 쓰고 있지만 전보다 조금 덜하다는 말에 위안이 됩니다. 오래 머물면 도시에서 얻은 자잘한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가져 봅니다. 아이들은 4박5일쯤은 그냥 참고 넘어가지만 2주나 되니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을 찾아가는 자립심을 키웁니다. 왜 들나물을 뜯어먹어야 하는지, 밥은 많이 먹고 간식은 필요할 때만 먹어야 하는지, 똥은 왜 거름으로 써야 하는지 하는 답을 찾습니다. 교류학습을 마치고 아이들

이 돌아갈 때마다 더 많은 가족이 생겼고, 저 역시도 한 걸음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가슴에도 이런 마음이 차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례2. 설악산 양양 우성숙 댁

설악산 오색마을에 온 지 어느덧 7년째입니다. 이사 오던 해에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이던 두 아이를 산촌으로 역유학 시켰다고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있는 그대로 인터뷰를 했더니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떠나는라 난리인데 도리어 시골로 내려오는 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가족이 거꾸로 유학 내려온 것은 자연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성품과 감성, 정서가 형성되고,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커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파트 문을 여러 겹 잠그고도 안심이 되질 않아 낯선 사람 오면 절대 문 열어 주지 말라고 훈련시키는 것도 싫었고, 서로 도와주려 하기보다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답답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 남편을 서울에 두고 간단한 살림살이만 챙겨 아이 둘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들로, 산으로, 바다를 누비고 다니며 몸과 마음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설악산이라는 명산에 깃들어 살다보니 자연의 품이 어떤 것인지 사계절마다 몸으로 느낄 수 있고 가까이 동해바다도 있고 연어와 숭어, 황어가 올라오는 남대천까지, 아이들 교육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냇가에서 빨래하고 멱 감고 나물 뜯으며 저 역시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내려온 첫 해 여름에는 아이들이 온종일 집 앞 계곡에서 장난치고 고기 잡고 놀았는데, 서울에서 2년 동안 수영을 배운 친구들보다 훨씬 실력이 좋았어요. 둥글고 큰 바위가 많은 백암계곡에서 메기와 가재도 잡고 숨바꼭질 하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면 골짜기가 정말 살아 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던 어느 날, 동생을 데리고 이것저것 해보던 큰 아이가 말했어요.

"야, 우리 심심한데 공부할까?"

아이들은 이렇게 놀다 지치면 슬그머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만 봐주었죠. 이런 시골 적응기를 친구와 친척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아이를 우리 집에 맡기고 싶어 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아이들끼리 잘 어울려 놀기 때문에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도시에서 온 아이들은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일주일 정도 함께 있다가 아이만 남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우리 가족이랑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심심하던 차에 잘 됐다는 표정으로 대환영이었죠. 방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쓰기도 하고,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따로 마련하기도 했어요. 먹을거리는 직접 텃밭에 심어서 가꾸거나 산과 들에서 구하기도 하고, 간식은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밤 같은 제철에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6개월이나 우리 집에서 머문 아이도 있었습니다. 오래 머무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오색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담임선생님과 의논했습니다. 체험학습과 교환학습 제도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떼어놓고 걱정할 부모들을 위해, 아이가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며칠이라도 함께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류비는 처음 내려온 아이는 공짜였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1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계곡, 웬만한 거리는 걷고 뛰어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이라 비만이나 변비가 사라지고 편식도 줄어들고, 아토피 같은 증상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생각지 못한 좋은 효과가 나타나 지켜보는 우리들도 흐뭇했습니다. 그때는 산촌유학이라는 말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것이 바로 산촌유학이었습니다.

사례3. 상주 웃늘티 이명학 댁

저는 상주에서 아내와 아이들 셋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6년 전 고향인 상주로 귀농(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귀농강좌도 열심히 들으며 귀농준비를 몇 년 동안 꾸준히 한 뒤에 내려왔지만 제일 큰 고민은 아이들 교육이었습니다. 대안학교에 보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곁을 떠나보내는 게 안쓰러웠고, 농사일이 아직 익숙지 않은 적응기라 수입도 변변치 않아 대안학교에 보낼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작은 학교 학생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시키고 학교를 변화시켜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일도 적극 돕고 학부모의 의견도 모으면서 분주하게 지내다 지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학교 일을 같이 하다 보니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촌유학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시골학교에서 꼭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은 선생님들의 업무만 늘어나지 학교교육의 변화는 크게 없을 거라고 하지만 도시에서 오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 같은 귀농자에게는 이런 교류학습이 아주 적합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친구가 될 수 있고, 귀농하려고 생각하는 도시 부모들이 미리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는 다 떠나고 적막한 시골에 아이들이 많이 내려와 왁자지껄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상주와 가까운 괴산지역으로 귀농한 사람들만 110가구나 됩니다. 모두 흙을 살리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내려왔지만 산촌유학이 알려지고 활성화되면 귀농해서 농사만 짓지 않고 산촌유학 프로젝트 일을 맡을 사람이 따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지역에서 교류학습을 한 사례는 없지만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고 모여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으니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귀농하려고 해도 아이들 교육 걱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농했다가도 교육 때문에 도시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산촌유학이 조금은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빈 집이 생기면 앞으로는 산촌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우리 마을 단위로 활성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귀농한 사람들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환경이나 유기농 이야기를 하면 달가워하지 않지만 교육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해 주십니다. 마을에 적응하는 것도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동네 어르신들과 학부모들, 학교 선생님들과 산촌유학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누려고 합니다.

산촌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산촌유학은 도시 아이뿐만 아니라 시골 아이들에게도 좋은 생태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에서 산다고 해서 생태적 감수성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지요. 맑고 향기로운 공기, 아름다운 하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도시 아이들을 만나면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아이들 수가 적어 또래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아이들은 부모와 강제로 떨어진 채 나이 든 조부모 곁에서 어렵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기 십상입니다.

산촌유학은 이런 시골 아이들과 도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가능하다면 시골 아이들이 도시 아이의 집에서 교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결연을 맺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시골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대신, 시골 아이들은 도시의 문화혜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생태교육은 바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보금자리를 튼 귀농가족이나 대안학교 교사, 학부모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산촌유학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누군가 앞장을 선다면 그이를 적극적으로 도와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공부도 같이 하고, 필요한 교재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일본어를 그대로 빌려온 '산촌유학' 대신 우리식에 맞는 '생태유학'이나 '자연유학'은 어떨까, 우리식 이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 산촌유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민들레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놓은 자료나 『민들레』 편집실로 직접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햇살네 집 http://blog.naver.com/hieri이나 일본 소다테루카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일본 소다테루카이 www.sodateru.or.jp 일본 자연체험교육센터 www.greenwood.or.jp)

연수

■ 기 간: 2006년 5월 31일~6월 6일

■ 참가자: 김경옥(기획, 통역), 박경화(취재, 촬영), 우성숙,
이명학(동영상 촬영), 정수진(기록), 정현경(통역), 현병호(취재)

■ 차 례

연수일정 • 12
오사카 산촌유학센터 야마모토 씨 인터뷰 • 13
나가노시 오오카 초등학교 • 22
나가노시 오오카센터 • 27
야사카마을 스바 씨 댁 방문 • 38
야사카센터 • 44
연수 참가자 중간 평가회 • 49
감나무자연학교 • 53
이슈 마을 • 55
미야마센터 • 58

연수 일정

5월 31일 인천공항 출발, 간사이 공항 도착, 오사카에서 숙박
6월 1일 13:00 간사이(오사카) 사무국 방문. 야마모토 씨 인터뷰
6월 2일 8:40 오사카 출발
12:40 시나노이 마을 도착
13:30 나가노시 오오카 초등학교 방문
16:00 나가노시 오오카센터 도착
20:00 아이들의 큰북 공연
22:00 센터 활동가와 간담회, 오오카센터에서 1박
6월 3일 6:00 기상
7:00 아침식사
8:00 센터출발(오오카~오오쵸시 야시카 마을)
10:00 산촌유학 농가(스바 씨 댁) 방문
13:30 야시카센터 방문
15:00 캠프장 방문
17:00 아스카 호텔 도착
6월 4일 8:00 아스카 호텔 출발
8:37 오오쵸 출발
9:36 마쯔모토 도착
9:51 마쯔모토 출발
11:56 나고야 도착
13:23 교토 도착
15:30 일본 전통 취락지역 방문, 감나무 자연학교 방문
17:30 마을 전통가옥 숙소 도착, 저녁
19:30 마을 사람들과 간담회, 마을 전통가옥에서 숙박
6월 5일 7:00 기상
8:30 산나물가공센터 방문, 산나물 가공센터와 목공소 방문, 원시림 체험
10:00 오래된 숲 산책
11:30 미야마센터 방문
13:30 교토 도착
6월 6일 간사이공항에서 서울로 출발

30년 동안 일본 산촌유학을 이끌어 온

오시카 산촌유학센터 야마모토 씨 인터뷰

■ 야마모토 씨는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18살까지 고향에서 살다가 도쿄에서 대학을 다녔다. 졸업 뒤 신문에서 소다테루카이 활동을 처음 읽고는 산촌유학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지금까지 30년째 산촌유학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엔 나가노현에서 센터를 만들고 활동하다가 결혼 뒤 간사이 지역에도 산촌유학 바람이 일면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인 오사카에 간사이 사무국을 새로 열고 활동하고 있다. 일 년에 100일 정도는 사무실에서 머물고, 나머지 시간은 전국을 돌면서 산촌유학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산촌유학 정보와 지자체 동향, 아이들과 부모 반응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산 증인과 같은 분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머물렀던 내내 우리 일정을 기획하고 방문할 곳을 섭외하고, 차를 빌려서 안내해 주었다. 방문지나 이동하는 차 안에서 계속 산촌유학과 일본의 농촌현실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이 인터뷰는 오사카 간사이 사무국에서 3시간 정도 이야기 나눈 내용과 오오카 센터에서 저녁 늦게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소다테루카이의 역사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

34년 전 학교 교사였던 아오키 선생이 처음 소다테루카이를 만들었다. 아오키 씨는 35살 무렵 입시전쟁과 경쟁교육에 회의를 느껴 교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연과 만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향인 나가노 지역에서 아이들 자연체험교육을 구상하고 기획했다. 초기에는 돈이 없어 다 자원활동이었는데 도쿄에서 중고차를 수리해서 되판 돈으로 자료집과 홍보물을 만들고 행사수익금을 마련할 정도였다. 인건비는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아오키 씨 부인이 교사라서 부인의 급여로 생활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단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소다테루카이에서 여는 여름캠프가 신문에 크게 소개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신청하고 인기를 얻었다. 처음에는 농가 몇 곳에 아이들 묵게 하고 기업 스폰서를 요청해서 시설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다 1972년 불경기와 오일쇼크가 왔을 때 여전히 캠프는 인기 있었지만 기업이 후원을 해 주질 않아 은행 대출을 해서 운영할 정도로 다시 어려워졌다. 센터 건물을 대출금으로 신축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7~8년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러다 지자체인 도쿄도에서 산촌유학을 이해하면서 시설 지원과 보조금 지원 같은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때 역시 활동가들은 거의 자원운동가로 일했는데 산촌유학 소문을 듣고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지자체에서 산촌유학센터도 만들어 주고, 보조금도 나오고 참가비도 받으면서 다시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15년 전부터는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개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지금 전국 소다테루카이 직원은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재정 절반은 학부모들이 내는 참가비이고, 절반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도쿄와 간사이 두 곳에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은 주로 생태환경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다른 곳에서 주문하는 컨설팅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자치체 지원을 얻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나?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맞아서 시기적절하게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나가노현은 교육열로 유명한데 아이들 수가 줄어 아이 한 명만 있어도 학년 통합학습을 하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 아이들 수에 따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만으로는 학교 재정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아이들 수가 늘면 국고보조도 늘기 때문에 산촌유학에 기대는 지역과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또, 산촌유학생은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학을 오는데, 주민이 늘면 국고보조가 늘고 아이들 수에 따라 공적지원금도 달라진다. 지자체에서는 돈이 모자라는 차에 산촌유학으로 아이들이 전학 오니 당연히 반가워했고, 시설도 지어주고 지원비를 주더라도 손해가 나지는 않았다.

산촌유학이 처음 시작된 야시카 마을에서 몇 해째 산촌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산촌유학생들이 그 지역을 고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산촌유학이 끝난 뒤에도 꾸준히 찾아오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다시 마을로 찾아오고 아이들을 보내고…,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역으로 봐서는 긴 기간 동안 부가가치가 큰일이었다.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나러 와서는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한 몫 하기도 했다. 이런 좋은 효과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단체에서 행정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초기에는 지원을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주체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야시카 마을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활동가들의 경험도 없고 공무원들도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그 때 활동가들은 지자체를 찾아가 부탁하고 계속 도와달라는 아쉬운 소리만 했는데 처음 관계를 잘 못 맺어서 그런지 아직도 그 문화가 남아 있다. 야시카 마을에서 이런 교훈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다른 지역에서는 소다테루카이 차원에서 기획서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바로 요구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접근방식을 바꾸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점도 작용해서 한 해 예산이 나오면 소다테루카이가 지역으로 들어가 산촌유학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이것도 좋은 시절 이야기이다. 일본 경기가 장기불황에 접어들면서 나라 돈 씀씀이가 엄격해지고 국민여론과 지역여론도 악화되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애아나 저소득층 아이도 아닌데 산촌유학 온 외부의 아이들을 위해 지자체가 왜 돈을 써야하나 하는 문제제기가 불거졌다. 지역 주민들도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밖의 아이들 때문에 시설까지 지어줘야 하나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최근에는 나오고 있다. 지자체 예산이 늘어나면 시골이 살아나고 학교도 살아날 수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니 작은 학교는 굳이 살릴 필요없다는 여론이 퍼졌다.

그래서 소다테루카이는 방향을 전환했다. 단순히 산촌을 체험하고 산촌에서 생활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산촌유학이 아니라 지역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산촌유학으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 오히려 혼자 텔레비전만 본다든지, 게임을 즐기는 생활이 주를 이룬다. 생태적인 공간에 있지만 생태적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놀며, 바깥에서 온 아이들을 통해 자신의 고향과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산촌유학을 통해 도시와 시골의 모든 아이들, 더불어 어른들도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산촌유학은 거듭났다. 이런 논리에 설득되는 지역도 있지만 나가노현은 아직 어렵다.

오오타시(大田市) 산촌유학센터는 3년 전부터 4억 엔 예산으로 센터를 짓고 있다. 절반은 도농교류사업의 하나로 국가보조금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지원금이다. 오오타시는 인구가 4만 명이고, 초등학교는 25개가 있다. 이 센터를 산축하면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시설 차원이 아니라 지역 아이와 도시 아이들이 어우러져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12년 전부터 절을 빌리고 농가를 빌려서 산촌유학을 하던 곳인데 시설을 마련해서 활동한 건 이제 3년째이다. 오타시 센터는 오타시의 소유건물이고, 소다테루카이는 내용과 인력을 지원한다. 센터

건물을 짓는 예산은 잘 나오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은 안 해 줘서 활동은 역시 쉽지 않다.
센터 일 년 예산 5,000만 엔 중 부모참가비 2,000만 엔을 뺀 3,000만 엔이 적자지만 산촌유학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득해서 오타시 특별재정으로 경상비와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 지원을 받는다. 오오타시 일 년 예산 3백억 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고 도리어 큰소리를 친다. 그 돈으로 도로를 건설해도 적자가 나는 건 마찬가지니 아이들과 미래를 위해 그 돈을 지원하라고 설득하는데 오타 시와는 이야기가 잘 되는 편이다.

지자체 지원 없이 재정자립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공적 보조금 없이 산촌유학을 하는 곳도 있다. 자원활동가나 주부, 연금생활자들로 구성된 곳은 운영가능하다. 생태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국가에서도 동의하고 있어 연구활동이나 지원활동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라보조금을 조금 받으며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시골 사람이 자기 집에서 산촌유학생을 받고 지역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참가비로 생활하는 개인차원으로 하면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산촌유학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농가 산촌유학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일 년 동안 산촌유학생을 받으면 여행이나 외출도 어렵고 아이들에게만 매여 5~6년 뒤에는 지치고 만다. 그러나 해 보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속이 안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다테루에서는 장기로만 아이들을 받아서도 안 되고 단기로만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해준다. 장기와 단기유학생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 5일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15일 프로그램, 방학 때 오는 아이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센터는 항상 활발하게 돌아가는 곳으로 운영해야 지속가능하고 지원도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경로와 방향이 있어야 북적북적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한다.
일 년 산촌유학 온 아이들에게 센터에 머물면서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니 지역 사람들을 보고 겪어라, 농가에서도 생활해 봐야 한다고 미리 조건을 건다. 6개월 중 10일 동안은 농가에서 머문다. 그 때 센터가 비면 단기프로그램을 열어 다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지역 아이와 도시 아이가 섞일 수 있게 한다.
개인 농가만 있는 곳은 몇 년 활동하면 지치지만 센터가 있는 지역의 농가는 한 달 중 10~15일만 산촌유학 온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나머지 기간은 아이들이 센터로 돌아가 생활하게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농가의 부모가 센터 실무자와 자주 의논한다. 농가에서 머물 때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센터에서 머물게 하기도 한다. 이럴 때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센터와 농가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다. 그래서 센터를 지을 때 홈스테이 할 농가가 없으면 그 지역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부성에서도 산촌유학에 공감하고 지원하고 지원을 위해 아이들의 변화를 꼭 수치로 보여 달

라고 한다. 이것은 사회적 요구이기도 해서 일상에서 산촌유학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문부성 지원을 받아 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산촌유학을 하기 전과 후에 같은 문항의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이 국을 쏟았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 밥은 많이 먹는지, 편식을 하지 않는지, 자립심, 사회성 같은 아이의 변화를 조사한다. 처음 산촌유학 들어온 아이에게 설문지로 생활습관을 조사하고 도시의 집으로 돌아갈 때 조사해서 그 변화를 알아보고 있다.

대학 진학이 문제가 되지 않나?

산촌유학 신청자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다. 중학생까지는 학기 중 학교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는 시험 쳐서 가기 때문에 전학 같은 방법으로 이동하기 힘들다. 고등학교 과정은 산촌유학이 불가능하므로 대학 진학이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신 산촌유학 와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아이가 기숙사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기는 한다.

일 년 시골 단기체험을 했다고 해서 동경대 갈 아이가 와세다대학 갈 것도 아니고 소다테루카이는 그런 곳에 신경 쓰는 사람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부모의 마음 속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드러나진 않는다.

생태체험 단체는 많이 있는데, '산촌유학' 이 갖는 차별점은 무엇인가?

산촌유학이란 말은 어떤 기자가 처음 써서 알려진 것 뿐 아이들은 농촌과 어촌, 산촌지역으로 다양하게 떠난다. 체험학습 하는 곳은 일본도 많고 수련시설도 많다. 그러나 소다테루카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자연보호나 환경보전은 생활과 어떻게 만나고 자기의 일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 그냥 가서 보고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는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아이들이 환경과 지역을 생활로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산촌유학이다 아니다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밭을 빌려 일하고 모내기도 하고 마을 할머니에게 된장국 끓이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 자연과 문화, 생활을 만나게 하는 게 소다테루카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곳 도시 사무국의 역할과 운영되는 형태는?

예전에는 상담전화도 많았는데 지금은 사무업무를 도쿄 본부에서 맡고 있고 오사카 센터는 회의실처럼 쓰고 있다. 부모교육은 다른 큰 공간을 빌려서 따로 한다. 운영비가 많이 들지는 않고 지역 활동가들이 오사카에 올 때 머물기도 한다. 도쿄에서 소다테루까이가 시작되었는데, 간사이(관서)사무국을 만들면서 비로소 전국조직이 되었다. 이전에는 지역센터로서 전화도 받고 필요한 자료를 나누고 가져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센터 기능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관동지역(도쿄)과 관서지역(오사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협상할 때 전국 조직이라는 위상을 갖기 위해서 센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자원활동가 교육을 이곳에서 하기도 한다. 도쿄센터는 활동가 2~3명이 있는데 소다테루에 오는 스텝들은 되도록 현장에 나가고 싶어해 도시센터에는 가능하면 적은 인원만 둔다. 사무국에서 경리 업무나 문건 만드는 일을 하는 데 이런 일보다는 현장을 좋아한다. 요즘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지역에 있는 산촌유학센터 옆에 작은 사무실 하나 있으면 되지 굳이 도시에 센터를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하고 있다.

한국에서 산촌유학은 어떻게 출발했으면 좋겠는가?

처음 시작한 아오키 선생도, 나도 이렇게 산촌유학이 커질 줄 상상하지 못했다. 일본은 농촌의 이농화가 가속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하다가 산촌유학도 함께 발전했다. 처음부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10년을 내다보면서 변하는 시대를 읽으면서 시대의 요구에 잘 따라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공부하면서 상생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후손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깥 사람들이 들어와 지역의 요구와 무관하게 '다리 건설하지 마라, 나무를 베지 마라' 반대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단체도 있다. 건물을 짓지 말자는 교수들이 자기는 다 누리고 편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온

천에 날마다 들어가서 목욕하지 말고 이틀에 한번만 들어가라, 비누가 물을 오염시키다' 라고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역과 관계를 잘 맺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

센터의 공부방에는 지역 아이들의 서류박스도 있다. 마을 아이들도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배려다. 또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옷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 분들의 옛 모습도 알려주고 전해주는 일도 한다. 지역사람들은 산도 많고 차도 자주 안 다녀 산촌이 그저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공기도 맑고 밥도 맛있다고 하니 자기 지역에 대해 자부심이 생겼다.

산촌유학 왔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찾아오고 이 지역 쌀을 도시에 살면서도 계속 사 준다. 지역 어른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생각해서 은혜를 갚고 싶다고 생각한다. 유학기간은 1~2년이지만 10~20년 뒤까지 연결되어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 산촌유학의 큰 장점이다. 야사카 마을에는 경제 위기가 와서 다른 이가 하고 있긴 하지만 유학생들이 돌아와 플라스틱 공장을 세운 적도 있었다.

홍보 방법은 무엇인가?

처음에는 신문기사와 텔레비전 홍보 효과가 컸는데 이름이 알려지니 지금은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다. 산촌유학을 경험한 아이가 여배우가 되었는데, 이곳을 다시 찾아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배우나 사람들이 산촌유학에 대해 발언하면 좋은 홍보가 된다.

도시 학부모 교육을 따로 하는가?

소다테루카이에 오는 아이들 80%는 어릴 때부터 여름설명회나 캠프를 경험한 아이들이 온다. 도시 부모들이 설명서를 읽고 취지를 이해하고, 아이가 결심한 뒤 센터와 부모가 신뢰가 쌓여야 한다. 모두들 내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그냥 보내려 하지는 않는다. 캠프참가 뒤 준비연습을 한 뒤 오게 된다. 그래서 소다테루카이 산촌유학은 잘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의사나 교사 같은 인텔리가 많다. 집에서 데리고 있기 곤란하거나 문제 있는 아이가 갑자기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20%를 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생협이나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

우리는 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연대를 하자는 제안은 많았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활동해가고 있다. 환경교육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멋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주장이 너무 강해서 이런 곳에서 와서는 잘못한다. 자기주장이 30%이고, 70%는 다른 이들과 교감을

잘하는 이가 필요하다. 여러 의견을 모아 코디네이터 하는 이가 잘한다. 그런데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리지 못한다. 이념 활동가는 많지만 연대는 잘 안 된다.

지금 일본에서 자연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자연활동추진협의회는 '나는 이것 하고 싶다, 이것을 해 달라' 는 요구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요구를 모아 실천할 사람은 없다. 여러 활동가들 중에는 산촌유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 준다.

야마모토 씨는 30년간 지내온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지속해 오나?

도쿄에 출장 가서 만나면 술도 마시고, 마작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같이 놀기도 한다. 그래서 이 일이 좋다. 이곳은 아이들의 고향이다. 가족처럼 사귀고, 홈스테이 사람들과 유대관계도 깊다.

산촌유학 온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나가노시 오오카 초등학교(大岡小學校)

도시에서 산촌유학 온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학교를 방문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학교인데, 그 중 우리는 초등학교 건물을 둘러 볼 수 있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의 안내로 1학년부터 6학년 교실까지 둘러볼 수 있었는데, 더하기 공부를 하고 있는 1학년 교실 9명 중 4명이 산촌유학 온 아이였다. 한 학년이 5명 밖에 안 되면 통합학습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산촌유학 온 아이들 덕분에 지금은 독립수업을 하고 있었다. 4학년은 미술시간이라 옆 짝꿍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고, 5학년은 음악시간이었는데 세계음악이라는 주제로 노래를 배우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아리랑을 연습하고 불러 주었다. 복도에는 한국에서 온 손님들을 위해 함박꽃을 꽃병에 꽂아 두는 세심함도 볼 수 있었다. 교실을 둘러본 뒤에 교무실 옆 회의실에 모여 교장 교감 선생님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다.

학교 도서실의 도서구입비는 연간 20~30만 엔이며, 현재 6,000권 정도 구비하고 있다. 도서관에는 이불이 덮여 있는 책상인 고다쯔를 만들어 따뜻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리실에서는 5, 6학년은 가정과 수업을 하며 1, 2학년 생활과는 밭에서 키운 것을 조리하기도 한다. 중학교도 같이 쓰고 있어 규모가 크다. 지역에 소바(메밀국수) 명인이 있어 아이들에게 소바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 학생들이 메밀을 기르고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은 통합교과의 경향이 있다. 나가노현은 소바로 유명하고 물이 좋아 국수가 맛있다.

교실마다 컴퓨터를 2대씩 구비하고 있다. 전교생 57명에 컴퓨터는 18대가 있다. 나가노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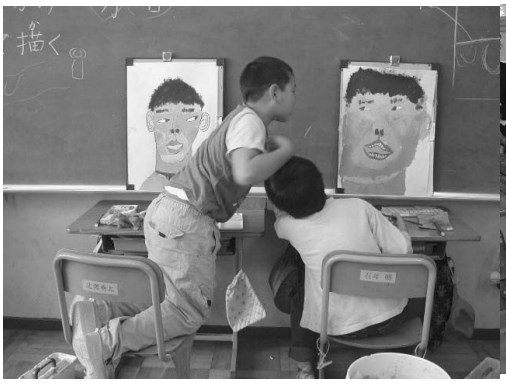
에서 이 학교가 컴퓨터 보급과 활용도가 가장 높다. 교육청에서 컴퓨터 교사(코디네이터)가 파견되어 교사나 학생을 연수하기도 한다. 저학년은 그림그리기나 게임을 배우고, 고학년은 파워포인트나 인터넷을 배운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준비를 학교에서 하지는 않는다.

주2회 농업수업을 하며, 중요한 교육과정인 특색교육이 3가지 있다.

1. 만들어 먹읍시다: 2학년(콩), 3학년(옥수수) 같이 학년별로 키운 작물들로 음식을 만들어 도움 준 사람들을 초대해 파티를 연다.

2. 지역과 교류: 산촌이라는 지역특성상 교류가 한정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지역인 치바 시 아이들과도 교류한다. 사회 과목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생활듣기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만남도 하고 있다.

3. 환경교육: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벌목하고 남은 나무로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하고, 주변의 농작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르고 있다.



■ **오오카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과 간담회**

산촌유학을 시작할 때 교사들의 반응과 현재 교사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우리 학교는 산촌유학을 10년째 하고 있다. 가구 수가 늘어나고 점점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좋은 점도 늘어났다. 초기 교사들도 교류를 중요시 하는 것에 반대는 없었고, 목적에 대한 반응도 좋았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부등교 아이들도 있었지만 함께 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는 없었다. 학교 아이들도 친구가 늘어 좋아했다.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유학생을 특별히 배려하는 게 있나?

유학센터는 있지만 학교에는 특별히 없다. 학교는 학교 일정대로 움직일 뿐이다.

도시의 부모가 미리 지역학교를 찾아와 볼 수 있나?

산촌유학을 결정할 때 와서 보고 간다. 산촌휴학을 갈까말까 고민할 때 11, 12월 무렵 아이들과 함께 와서 견학한다. 개교기념일, 음악회, 기념회 행사 때 부모가 오기도 한다.

산촌유학을 하고 나서 지역주민이 된 경우가 있나?

아직까지는 없었다.

아이들이 드나들게 되면 학교 예산수립이 어렵지 않은가?

1년 과정이기 때문에 급하게 줄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없어 예상 가능하다. 부모와 지자체가 나누어 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지 않는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나?

있다. 영양사 선생님도 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반응은 어땠나?

아이들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이들이 늘어서 좋아한다. 농가에 아이들이 늘면 마을이 즐거워지기 때문에 지역 전체가 아이들을 같이 키운다는 생각이다. 산촌유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자연이 아이들을 키운다. 센터에서 농업프로그램이 있어서 된장도 만들고, 농작물도 재배하고 벌초도 하면서 자연과 함께 커간다. 둘째, 한 달에 3분의 1 이상을 농가에 머물면서 농촌생활에 담겨 있는 지혜와 풍속을 배우게 된다. 셋째, 산간지역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섬세한 교육이 가능하다. 4~10명이 한 학급이라 교사가 아이들을 개별지도 할 수 있다. 자연과 학교, 농가가 같이 아이를 키우는 게 산촌유학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학교에 배정받은 교사는 만족하나? 출퇴근은 도시에서 하나?

이 지역은 산간벽지다. 특히 나가노현은 그런 지역이 많다. 교사로서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마다 아이들이 다르고, 교육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저마다 지역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고자 생각한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함께 노력하지만 불편한 일도 있다. 교감은 관사에서 지내며, 다른 교사들은 나가노에서 30~40분 거리에서 통학한다.

유학생 중에 장애아는 있나?

지체장애는 아직 없고, 이해력이 부족한 아이는 있다. 정서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지원교사가 오전에만 따로 지도한다.

학부모의 부담은?

급식은 전액 학부모 부담이다. 1식 2,500엔, 월 5,500엔이고, 부교재비는 월 1,300엔, 5~6학년 여행예금 월 1,000엔 정도이다.

교사들의 열의에 감동을 받았는데, 벽지근무 가산점이 있나?

3년을 근무하게 되면 평생 1회 1호봉이 올라간다. 승진과는 상관없다. 나가노는 교장에 게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었다. 교사들도 특수학교나 벽지에서 생활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아이들과 산촌유학 온 아이들의 갈등도 있나?

문제 있을 때가 있다. 서로 다른 현에서 다른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큰 학교 다니던 아이도 있어 문제와 갈등은 늘 있다. 아이들이니까 날마다 싸우고 다툰다. 아이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게 하는 게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나?

학교위원회가 있다. 4명이 구성되어 있고 대표는 따로 없다.

산촌유학 온 아이들이 머무는 산촌유학센터

나가노시 오오카센터

■ **오오카센터는**

10년 전, 그동안 산촌유학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 움직임을 중심으로 설계해서 지었다. 사무실, 보건실, 도서관, 공부방(학교 관련 교재와 준비물 두는 곳), 아이들 숙소(다다미방), 욕실, 담화실(부모와 교류하는 방), 주방, 다목적실(식당과 강당으로 공동사용, 다다미방), 세탁실(세탁기 3대), 화장실, 숙소가 있다. 벽난로와 피아노가 있는 자유공간도 있다. 이 지역은 해발 1,100미터나 되는 곳이라 춥다. 난방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미리 장작을 준비해 두었다가 사용한다. 최대 24명까지 지낼 수 있으며, 식당은 최대 80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목적실(식당)은 비가 와서 야외수업이 어려울 때, 발표시간 같은 공동공간으로도 쓰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칸막이를 만들어서 숙소로 쓰기도 한다. 유학생들이 만든 그릇이 전시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유명한 도예가가 있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만든 것이다. 숙소는 2층에 방 6개(1인 4인실)가 있고, 세탁실에서 아이들이 직접 빨래를 하며 날씨가 추워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도록 건조실이 딸려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식사는 영양교사와 지역에서 온 자원활동가 2명이 같이 준비한다. 음식을 만들면 아이들이 직접 상을 차리고 먹기 전에 음식에 감사하는 묵상을 한 뒤 남김없이 다 먹는다. 주방세제를 쓰지 않기 위해 미리 초벌 설거지를 한 뒤 자신이 먹은 그릇은 직접 설거지한다. 음식물 찌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센터에서는 일 년 단위로 아이들을 받는다. 지금은 15명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데, 같이 지내는 다른 아이들과 합의되면 다시 일 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아이들이 농사도 하고 있다. 벼는 모두 손작업을 하고 기계를 안 쓴다. 아이들이 농업의 어

려움도 배우고 수확의 기쁨도 알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다. 표고버섯도 재배하고 밭을 하나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가지와 오이, 토마토, 콩, 피망 같이 한 명이 한 골씩을 맡아 좋아하는 작물을 심는다. 풀이 자라지 말라고 볏짚을 깔아 두었다. 농약을 치지 않아서 반딧불이도 있다.

6시 30분 무렵에 아이들이 차려준 저녁을 같이 먹었다. 8시에는 식당 겸 강당에서 아이들이 연습한 큰북 연주가 있었다. 도쿄 어느 지역 어부의 북춤이라고 설명했다. 해마다 11월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산촌유학센터들이 모여 공연을 한다. 일 년 동안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이다. 새로 온 아이들이 있는 6월이라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해 미숙한 아이도 있지만 다들 재밌어하면서 취미삼아 연습을 한다.

처음부터 공연을 해 보겠다고 시작한 것은 아니고 센터에서 머무는 아이들이 마음을 집중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큰북을 연습하게 되었다. 선생님들도 배우고 강사를 초대해서 전문으로 배우기도 했다. 다른 센터들도 하나씩 전통공연이나 악기 연주를 배우고 연습한다. 지역의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아이들과 교사가 지역에서 문화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음악이나 기술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서 밭에서 일하면서도 뭔가를 두드리며 연습에 빠져 들기도 한다. 연습시간은 특별히 따로 없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놀고 자기들끼리 경쟁심이 생겨서 연습한다. 체험학습 때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산촌유학을 꼭 와야겠다고 결심한 아이도 있다.

여자 아이들은 모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긴 머리는 일할 때도 걸리고 머리를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짧게 자르고 있다. 짧은 머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괜찮아요. 또 기르면 되니까요." 라고 웃었다. 우리가 저녁으로 먹었던 미소된장과 버섯 역시 아이들이 만들고 재배한 것이었다.

■ 오오카센터 활동가들과 저녁 간담회

센터 활동가 소개

–바바 게이코: 후쿠시마라는 산촌지역에서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한 뒤 5년째 오오카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곤노 키이코: 야마가타 현에서 올해 졸업하고 새로 왔다. 22살이고 환경교육을 공부했고, 자연 속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오끼: 활동한 지 20년 되었고, 소타테루카이 창립자의 아들이다.

–사토: 동북지방에서 왔고 4년 되었다.

이렇게 상근직은 4명이고, 일하는 분은 식사를 해주는 분 포함해서 모두 6명이다. 영양사도 있고 지역 행정공무원도 센터 일을 함께 해 주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보험을 들고 오는가?

산촌유학협회에서 보험회사와 연결되어 산촌유학 보험에 든다. 1년 머무는 아이가 1만5천~2만엔 정도를 낸다. 병원입원, 사망 같은 것을 보장해주고 활동가들도 산재보험에 들어 있다. 부모들도 2박3일 아이들을 찾아올 때 보험에 드는데, 4박5일에 480엔 정도를 한다. 부상당했을 때 병원비가 나오는 정도이고, 사망하면 천만 원 정도 보장되는 보험이다.

사고가 생겨 센터와 부모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가 있나?

산촌유학을 의무교육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따라 온 것이라 사고가 생겨도 크

게 항의하는 일은 없었고, 보험사 직원이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해서 사회책임이 크게 부각된 것은 없었다.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다.

이 정도 규모라면 학교를 세울 수도 있을 텐데, 대안학교를 직접 열어 운영해볼 생각은 안 했나?

대안학교를 지역에서 만들면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입시문제가 있다. 초등 대안학교를 만들면 중고등, 대학까지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 대안학교의 학생모집이 어려워서 극단적으로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학교가 생기거나 작은 형태의 프리스쿨이 생기기도 한다.
돈이 들긴 하지만 역시 아이들은 대학을 보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안대학까지 만들고 이후 대안기업까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단체로서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대안학교는 밖에서 아이들이 들어와 섬처럼 되기 때문에 지역문화를 교류를 생각하면 공립학교가 좋다.

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지역과 유대관계가 있었나?

전에는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고 나서 학교와 관계를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지역의 아이들은 보육원부터 같은 아이들이 계속 진학하는데 다른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좋고,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모습이 보였다. 이 마을 아이들은 처음 도시에 나가면 머리 염색 같은 도시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곤 했는데 유학 온 아이들을 마을에서 미리 만나서 덜 놀라게 됐다. 도시 아이들 생활이 학교교재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도시 아이들의 나쁜 말을 배우기도 한다. 또, 지역의 사투리가 없어지고 도쿄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점이 아쉽다.

영양사 선생님은 이곳에 어떻게 오셨는지?

대학 4년 때 어떻게 취직을 할까 고민하다가 대학에서 환경교육을 공부했고 언젠가 자연 속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 자연과 문화와 생활이 어우러진 직장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늘 생각한다.

농가에서 홈스테이 할 때 여학생 숙소를 따로 마련하기도 하나?

반드시 따로 한다. 농가에 딸이 있으면 여자아이를 보내고, 아들이 있는 집은 사내아이를 보낸다. 일본도 한 자녀만 낳는 집이 많아 형제, 자매를 경험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어린 아이거나 여자아이 나이가 더 많으면 상관없이 그냥 보내기도 한다. 농가 구조가 사생활이 보호되는 분리구조라면 가능하다.

아이들이 싸울 때는 어떻게 하나?

아이들과 늘 같이 사니까 아이가 지금 왜 그런 기분인지 잘 읽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센터 교사들은 상담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담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아이의 처지에서 해결해 주려고 설명하고 노력한다.

참가비는 얼마인가?

달마다 초등학생은 69,000엔, 중학생은 72,000엔을 받는다. 또, 급식비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치 않아 행정보조금을 받는다. 세금을 쓰는 것이니 도시 아이뿐 아니라 지역 아이들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시골 아이들은 학교까지 거리가 멀어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고 농촌지원에 관한 혜택도 많아 자연감수성이 더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노는 아이들을 센터로 불러서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한다.

지역의 아이들은 무료인가? 많이 참가하는가?

지역 아이들이 단기 캠프를 참여할 때는 하루 1,000엔을 받는다. 8박9일 프로그램일 경우 10,000엔을 받는다. 지역 아이들도 센터에서 같이 숙식을 하는데, 아이들이 무척 좋아한다.

아오키 씨는 이사장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의 일이 좋아 보여서 시작하게 되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다. 입시에 대한 문제와 물질은 풍요로워지지만 마음은 점점 허전해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시키고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는 힘은 길러주지 않는 것 같아 산촌유학에 관심을 더 갖게 되었다.

센터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지자체와 협의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오카 지역은 인구가 2,500명 밖에 안 되서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어렵지 않았다. 예

전에는 오오카 마을 촌장하고만 취지를 얘기하고 설득하면 되었다. 이웃마을인 야사카마을의 활동가들이 오오카마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정보를 많이 주기도 했다. 센터 건물 짓는데 든 돈은 전부 5억 엔이 들었다. 농업을 계속 지켜온 곳인데 10년 전에 농업자유화가 되면서 지역에 많은 것들이 들어왔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피해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각 지역마다 예산 5억 엔을 주었는데, 이곳에서는 산촌유학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졌다. 이론이나 설득작업의 결과라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이다.
오오카센터의 설립 조건은 '중산간 지구 지원'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면서 지원한다는 조건이 있어 그 시절에는 조건이 맞은 것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 조건이 맞아 이곳에 세웠다. 자연도 좋고 지역여건도 좋은 이상지역만 찾으면 산촌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의 생각에 조금 맞지 않아도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합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타테루카이가 소유하고 있는 센터는 몇 개인가?

산촌유학 발상지인 야사카 센터와 실무자 연수와 교육장소로 쓰는 센터도 있고, 위탁운영 하는 곳도 있다. 위탁운영하는 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소다테루는 방법과 기술, 사람을 파견하는 일, 내용과 실무를 맡는 형식이다. 시에서 건물을 그냥 준다고 해도 우리는 받지 않을 것이다. 건물유지비와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 우리는 유지할 수도 없다.
아이들 참가비만으로는 센터를 운영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공익사업, 사회운동으로 생각하고 운영해가려고 한다. 실무자들도 그냥 직업이라기보다 사회운동이라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다.

기업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산촌유학을 시작한 경우도 있나?

최근에 있었다. 일본에 5위 안에 드는 큰 학원이 이치가와현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적 엘리트 대상으로 5, 6년 전에 시작해서 3년 전에 망했다. 학원은 오사카 근처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마모토 씨는 잘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구마모토라고 등산용품을 파는 사람도 시의 지원 없이 시작했는데 돈만 많이 쓰고 적자가 많이 나 결국 문을 닫았다. 또, 타케돈보라는 학원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던 젊은 부부가 시작했는데, 자기들의 아이가 태어나자 월급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더 필요하니 참가비를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마을에서 건물을 빌려주었지만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 장기 산촌유학과 문제아를 가진 돈 많은 부모들이 늘었는데, 돈을 많이 내면 부모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한다.

야마모토 씨와 아오키 씨를 한국에 초대하고 싶다. 지역에서 강좌도 열고 싶은데 강의를 해 줄 수 있나?

한국말을 못하니 누군가 내 말을 통역해준다면 꼭 가고 싶다. 오오카 마을에도 이명학 씨 같은 젊은 귀농인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이 들어 젊은 사람이 없는데 귀농한 사람들이 와서 유기농 농사도 짓고, 생산뿐만 아니라 마을의 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린투어 개념을 이용해 도시 사람들을 불러 들여 농사를 체험하게 하고 교류하게 한다. 호텔이 아니라 농가의 빈방에 머물게 하고 하루 2,000~3,000엔을 받고 머물면서 같이 농사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귀농도 소중한 교육이라고 활동하고 있다. 산촌유학도 아이들의 귀농이라 생각한다.

상주 지역사람들은 처음엔 귀농자들은 좋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태적인 마인드를 인정하고 따라오고 있다. 일본도 그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어렵다. 시간을 들여 지역의 문화나 주민들의 심경을 존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명학 씨도 힘들었을 것 같다.

한국의 귀농운동본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단체가 있나? 단체끼리 관계는 없나?

여러 단체가 있지만 별다른 관계는 없다. 애농회라는 단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센터 활동가의 급여는?

야마모토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공무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보다 적을 것이다.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숙식을 위한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다. 소타테루카이가 35년 되었는데 요즘에서야 지금의 월급수준이 되었다. 일본 문부성의 중앙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산촌유학을 정책으로 가져가자는 말이 이제야 나왔다. 산촌유학 가는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는 인식도 있었다. 이제 겨우 나라에서 인식하는 정도가 되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한 지역에서 시작하면 10년은 있어야 자리가 잡힌다.

외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수를 오거나 아이들이 유학을 온 적이 있나?

브라질, 타이완, 한국 아이들이 왔었다. 일본과 자연과 사회 문화적 변화와 조건이 닮아 있으면 산촌유학이 가능하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는 세컨드 스쿨에서 학교단위로 자연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굳이 산촌유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산촌유학이 한 지역에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필요하다.

급식에 유기농이 들어가고 있거나 그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나?

센터에서는 유기농 급식을 생각하는데 학교에서는 아직 먹지 않는다. 급식은 학교 안에서 이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한다. 일본 대부분 학교에서는 급식센터라는 공장에서 1만 인분, 2~3만 인분을 만들어 공급한다. 그래서 신토불이 식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오카 마을에서는 생산자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은 지역에서 소비한다)가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다른 곳에서는 도시락을 몇 만 명분 주문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신토불이만 생각한다면 날마다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른 지역 농산물도 골고루 먹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올해 양배추 농사가 잘 안되면 그것을 못 먹게 된다. 그럴 경우 상황을 인정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교류학습과 단기 산촌유학은 어떻게 다른가?

교류학습이 아니라 전학이다. 일본에서는 교류학습, 교환학습 제도가 없다. 단기는 방학을 이용해서 머무는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방학, 봄방학이나 주말에 학교가 문을 닫는 날 오는 것이다. 전학을 올 때는 아이의 주소지만 옮겨서 온다.

도시와 지역 아이들의 학습력 차이와 도시로 돌아간 이후 학습부진은 없나?

물론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 교육격차가 커져 점점 양극화 되고 있다. 산촌유학을 하다 도시로 돌아간 아이들은 도회지의 살벌한 인간관계를 보고 놀란다. 하지만 산촌유학 아이들은 배움이 뭔지 알게 되서 당장은 뒤떨어지지만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뭘 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공부를 한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내 할 일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곳 교사들은 아이마다 개인보살핌이 가능하고, 교사가 더 애정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래서 학력격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산촌유학은 인생을 돌아가는 곳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게 된다.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게 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있나?

별다른 프로그램은 없지만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산촌유학 오기 전과 후의 차이와 아이들이 성장한 것을 부모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준다. 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도시로 돌아간 아이가 부모의 노력 속에서 산촌유학에서 느낀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늘 신경 쓰고 있다.

보통 때 센터에서 아이들의 일상은?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체조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한다. 체조 뒤 3분 동안 자연이나 지역문화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 날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서서 자연의 변화를 살피고 감상한다. 좋아하는 길을 걷기도 한다. 6시 30분 아침상을 함께 차려서 먹고, 7시 넘으면 학교에 간다. 3km를 걸어서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4시 반, 중학교는 동아리 활동 뒤 6시에 센터로 돌아온다. 그리고 저녁준비를 함께 하고 밥을 먹고 청소와 빨래 같은 뒷정리를 한다. 그리고 8시에서 8시 30분까지 큰북 연주나 전통춤 같은 취미활동을 아이들 스스로 연습한다.

학습지도는 특별히 하지 않나?

초등학생이 숙제를 몰라서 물으러 오면 가르쳐 주는 정도이다. 센터는 학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학년 학습이 떨어지는 아이를 지도하는 것만 한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머물고 있나?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만 받는다. 의무교육 기간 아이들만 산촌유학 올 수 있다.

일 년을 못 채우고 돌아가는 아이도 있나?

작년 일본에서 산촌유학 온 아이들 전체 평균 6% 정도만 일 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갔다. 중학생의 비율은 12%였다. 산촌유학 오는 아이 전체 800명 중에 100명 정도가 소다테루카이를 통해서 산촌유학 온 아이들이라 전체 중도포기자를 정확히 통계내기는 힘들다. 아직 정확한 분석은 없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산촌유학 백서에는 담겨 있을 것이다.

농사 교육은 누가 담당하나? 친환경 농사를 짓나?

지역주민이 농사를 가르친다. 교사도 하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농약은 제초제만 딱 한번 친다. 센터 실무자와 아이들의 힘만으로는 무농약 농사법이 안 된다. 우리 논밭에 있는 벌레들이 근처 논밭에도 옮겨 다니기 때문이다.

농가에서 산촌유학생을 받고 있는

야사카마을 스바 씨 댁 방문

■ 스바 씨 댁 주소, 長野縣 大町市 八坂 曾山

■ 남편 스바 씨 80세, 부인 스바 씨 78세

스바 씨는 260년 전부터 조상대대로 야사카마을에 정착해서 대대로 살았고, 1960년에 지금의 나무 집을 지었다. 산촌유학이 시작되던 초기부터 아오키 선생과 뜻을 같이 해서 농가에 아이들이 머물게 해 주었다. 그게 벌써 35년이 되었고, 일 년 장기유학생을 받은 것은 31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스바 씨 댁을 거쳐 간 산촌유학생은 180명이나 된다. 지금은 아이들 5명이 머물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던 오전 10시 무렵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다. 부인 스바 씨는 이웃마을에서 시집 오셨다.

스바 씨 댁 집 구조는 현관을 들어서면 거실 구실을 하는 다다미방이 있고, 옆 복도를 따라 돌면 아이들이 머무는 방이 2개로 나눠져 있고, 2층에도 아이들이 머무는 방이 있다. 출입문이 따로 나 있어서 개인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였다. 방을 좀 보자고 하자 스바 씨 부인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아 지저분하다고 미리 설명하더니 아이들의 방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스스로 청소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스바 씨 부부가 대신 청소해 주거나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농가치고는 규모가 큰 집이었다.

소타테루카이를 통해 산촌유학을 하게 되었나?

아오키 선생이 단체를 처음 만들어서 여름과 겨울방학 때 일주일 정도 단기캠프를 할 때부터

아이들을 받았다. 7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산촌유학을 시작했는데 그 뒤 일 년 장기유학생을 받기 시작한 것은 31년이 되었다. 단기 캠프 때마다 농가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게 빌려달라고 해서 흔쾌히 빌려 주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일 년 장기 산촌유학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을 때도 그렇게 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아오키 씨가 도시 아이들이 자연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다녔는데 우리 부부를 포함한 몇 명 주민들이 같이 돕자고 동의를 했다. 그렇게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더 머물기를 원해서 장기 유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다.

유학 온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

내 손주나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산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부자리도 개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가족과 똑같이 지낸다. 아이들에게 개인 방을 따로 주지 않고 큰 방에서 함께 지내게 한다. 우리 부부 나이가 올해로 80세, 78세인데도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쑥스러운 듯 웃으셨다.)

힘들거나 어려운 점은?

아이들이 장기간 머물기 때문에 문제아가 생기기도 한다. 돈을 훔치거나 근처 농가에 가서 말썽 피우는 일도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자식처럼 야단도 치고 혼내기도 하면서 가르친다. 그렇게 하면 많이들 좋아졌다.

도시 부모들도 이곳에 오나?

봄에 한번 온다. 4월에 유학생이 처음 오면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일본 황금연휴 기간에 부모들이 찾아오고, 센터에서 부모님을 초대할 때 농가에도 와 보신다. 만나면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한다. 농가에 도시 부모들이 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센터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일 년 동안 여러 번 있다. 부모들과 함께 어울려 술도 마시고 얘기도 나눈다.

농가 부모가 모두 외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

친척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어서 아이들만 두고 외출해야 할 때는 마을에 있는 산촌유학센터인 야사카센터에 아이들을 맡긴다. 그러나 농사 일이 바빠 센터에 아이들을 보내는 일은 없다. 농사철에 바쁘면 아이들에게도 농사를 시키고 오늘은 밥을 늦게 먹자든지, 일을 좀더 하자든지 하면서 평소처럼 같이 산다.

농번기에도 일을 같이 하나?

아이들에게도 농사를 시킨다. 무 재배를 해서 출하하기 위해 상자에 포장을 할 때 포장 작업을 같이 한다. 물론 농사일을 싫어하는 아이도 있다. 이럴 때는 강요하지 않고 조금씩 천천히 가르친다. 도시에 살던 아이들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시간이 필요하다. 같이 살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적응하다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바빠서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조금씩 받아들인다.

거쳐 간 아이들 중에 계속 연락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나?

꽤 있다. 아이들이 자라 애인이 생기거나 결혼한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아이도 있다. 센터 행사에도 다시 찾아와 자원봉사도 한다. 일본에는 여름카드와 겨울 연하장을 서로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데, 연하장을 받은 사람은 꼭 답장을 써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산촌유학 왔던 아이들 전부가 연하장을 보내오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그 많은 답장을 다 써야 하는 게 힘들 정도다.

남의 아이들이라 같이 지내기 어려울 때도 있을텐데, 어떻게 해소하나?

다른 집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 따라 대응하기 어려운 아이도 있고, 불만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도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상황에 따라 잘 타일러 말한다. 아이의 좋은 점은 칭찬하고 고칠 점은 지적해 주면서 가르친다. 그래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센터 지도원의 도움을 받는다. 산촌유학 온 아이들을 농가에서 모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산촌유학센터에서 같이 상담도 하고 의논해 준다. 지도원이 자주 찾아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집에서 머무는 산촌유학생은 5명인데, 편하게 지내고 있다.

(이때 같이 이야기를 듣던 야마모토 씨가 덧붙여 설명했다. 스바 씨 부부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어려움도 잘 해결하신다고 했다. 센터 지도원도 힘들겠다고 한 아이를 스바 씨 댁에서는 잘 적응하게 해 주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했다.)

옛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 차이는?

역시 아이들이 다르다. 많이 변했다. 요즘 아이들은 머리를 쥐어박고 싶을 때도 있다. 말을 잘 안 듣는 사내아이들은 꿀밤을 쥐어박기도 한다. 그러면 도시로 돌아갔던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찾아와 꿀밤 맞았던 추억을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머무는 기간은?

산촌유학 오는 아이들은 학기가 시작되는 4월에 와서 다음해 3월까지 일 년 동안 농가나 센터

에서 머문다. 일 년 동안 정해진 기간을 그대로 운영한다. 요구에 맞춰 자꾸 변형하면 더 요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한다.

예전에 이 댁의 아이들이 유학 온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부모에게 서운해 하진 않았나?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이 중학교 때 초등학생 4, 5학년이 남자아이들이 유학 왔다. 그때 딸이 누나 노릇을 해서 오히려 좋았다. 다른 집에서는 초등학생 자식이 있었는데, 도시에서 온 아이와 늘 다툼이 있었다. 아이들끼리 싸우면 아무래도 부모의 마음에 차별이 생기니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 집은 초등학생을 받지 않는다. 나이 차이가 좀 나면 형이나 누나, 동생 사이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같은 나이 또래들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라 학교를 졸업 뒤에 유학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농가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나?

농촌에는 수확농산물이 없는 8, 9월까지는 현금을 만질 수 없는데 산촌유학 온 아이들 참가비가 4월부터 달마다 꾸준히 들어오니 좋은 수입이 된다. 농촌에서 구할 수 없는 고기나 생선도 살 수 있고, 농가 살림살이에도 무척 도움이 된다.

아이들에게 얼마나 용돈을 주나?

용돈은 전혀 없다. 학용품이나 병원비는 부모들이 내는 참가비에서 쓰고 더 초과한 것은 나중에 결산한다. 이 마을은 가게도 없어서 돈 쓸 일이 없다. 행사 때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센터에서 500엔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모두 센터에서 지급해 준다. 우리 집에서도 간식을 주고 센터에서 간식을 주기 때문에 역시 돈을 필요하지 않다. 고구마 같은 농산물을 간식으로 주는데 자주 먹으니 나중에는 아이들이 싫어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끔 사탕도 사 준다.

같이 학교를 다니는 지역 아이들이 군것질을 하니 유학생 아이들도 먹고 싶어 하고 도시 부모들도 건의를 해서 센터와 농가부모가 협의해서 용돈 1,000엔씩을 주기로 방침을 정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떼거리로 가게로 몰려가서 물건을 훔쳐서 경찰서까지 가는 일이 생겼다. 그 뒤로는 절대 돈을 주지 않는다.

동네 가게에서도 이제는 산촌유학 온 아이가 오면 무엇을 사러 왔을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역이 좁아서 소문도 금방 난다. 가게에 아이들이 오면 농가부모에게 전화를 해 주기도 한다. 마을 사람들과 학교 모두가 이런 시스템도 있구나 이해해 준다. 아이들도 시골에서는 돈을 안 쓰는 곳이라 미리 생각하고 다짐하고 오는 것 같다. 아이들을 참고 지내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돈 없이 잘 지내고 있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식단은 어떻게 마련하나?

반찬이나 먹을거리 문제는 없다. 요즘엔 시골이라도 다양한 것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영양도 충분하다. 센터는 규모가 커서 골고루 영양을 주려고 노력하지만 가정집은 여기 방식대로 골고루 만들어 먹고 있다. 메밀식품이나 간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요리를 응용해서 만들어 먹이기도 한다. 옛 먹을거리 철학에 따라서 먹으면 농가음식으로도 충분하다.

초등학생이 오면 엄마가 힘들지 않은가?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은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이불 속에서 벗어놓은 옷이 나오기도 한다. 4, 5학년 정도 되면 청소, 세탁, 공부를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편이지만 저학년은 스스로 다 해결하기는 아직 어렵다. 천천히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려고 노력한다. 4월에 아이들이 오면 여름방학 전까지는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1학기 동안 천천히 도움을 주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의 엄마처럼 별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통 엄마들이 그렇듯 아이들이 있으면 아빠보다는 엄마들이 챙겨주면서 더 힘들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내 아이가 학교에 더러운 양말을 신고 가거나 비오는 날 우산을 잊고 가면 엄마인 내 책임, 내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나도 그렇다. 큰 아이들은 무엇이든 다 잘 먹는데 어린 아이들은 편식을 하기도 한다. 그럴 때는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게 하기도 한다.

농가에서 하는 산촌유학은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빠는 산촌유학이라면 그저 다 좋은 거라고 말하고 웃지만 농가 홈스테이는 엄마의 결정이 중요하다.

어느 지역 아이들이 많이 오는가?

이곳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인 요코하마 아이들이 많이 온다. 재일교포 아이가 온 적도 있었고, 외국인 아이가 와서 머문 적도 있었다.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내나?

부모가 데리고 있기 곤란한 아이를 보내는 부모도 있지만 아이의 교육을 생각해서 보내는 분이 더 많다. 얼마 전까지는 농촌과 산촌 출신 부모가 아이에게 자연의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 산촌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런 경우는 줄어들고, 부모 역시 시골생활은 잘 모르지만 소다테루카이가 좋아서 믿고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산촌유학을 처음 시작한

야사카센터

■ **센터 활동가 노다카 씨 인터뷰**

이곳 야사카센터에는 지금 아이들 33명이 머물고 있다. 도시에서 와서 일 년간 생활하면서 센터와 농가에서 머문다. 캠프는 산촌유학 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이들도 함께 참가하는 캠프다. 마을 아이들은 좋은 자연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지만 부모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할 일을 스스로 할 줄을 모른다. 센터 아이들은 제 할 일을 스스로 하는 자립심이 강하다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6년 전부터 요구를 해 왔다. 그 요청을 센터에서 받아들여 마을 아이들도 일주일동안 센터에서 머물면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 보는, 자립심을 키우는 일을 해 본다.

오늘은 이 일주일 생활을 마무리하는 캠프가 있는 날이다. 산촌유학 온 아이들에게도 첫 캠프인데, 숲에서 불도 직접 피워보고, 밥도 해보고, 텐트도 자신들이 직접 설치하고 캠프의 기본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다. 일주일 생활을 같이 하지 않았던 아이 중 캠프에만 오고 싶다는 아이도 포함되어 있다. 캠프에는 이렇게 산촌유학 아이들, 지역 아이들, 캠프만 참가하는 아이들이 섞여 있다. 이런 캠프가 일 년에 4, 5회 정도 열린다. 스키나 캠프에 필요한 도구 같이 지역의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센터의 역할이기도 하다. 역시 지역과 마을은 소중한 것이어서 도시에서 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에게도 센터가 필요한 곳, 도움이 되는 곳, 필요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학학습은 내일 해산식이 있는데 그때 도시 부모도 참가해서 일주간 아이들이 지낸 이야기와 산촌유학을 왜 하는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런 행사를 차곡차곡 꾸준히 하

면서 우리와 지역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는 경험도 하게 된다. 센터 활동가들도 지역 사람이 되어 지역 소방관 일도 하고 운동회도 참여하고 야구도 같이 어울려 한다. 일상에서 마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터놓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자주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야사카센터는 31년 된 건물이고 산촌유학을 하기 위해 지은 건물인데, 화재의 위험 때문에 나무로 짓지 않고 시멘트로 지었다. 산촌유학 센터 중에는 가장 낡은 건물이다. 개축을 많이 해서 불편한 시설이다. 이 지역은 만년설을 쓰고 있는 북알프스가 건너다보이는 해발이 높은 지역에 자리잡고 있어서 친환경세제를 쓰면서 물 오염을 줄이려고 애쓴다. 센터의 선생님은 모두 8명이다. 아이들은 큰 방에서 6~8명이 함께 지낸다. 오오카센터는 나중에 지었는데, 이곳의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설계해서 쓰기 편하게 되어 있다.

센터 활동가로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일 년간 부모를 떠나서 사는 것은 대단히 큰일이다. 아이가 정말 오고 싶은 곳인가, 진실로 원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의 뜻이 아니라 아이의 뜻이 중요하다. 12년째 일하면서 보니 일 년간 이곳에서 생활한 아이는 몸과 마음이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도 아이의 자발의지가 중요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올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중학생이 돼서야 올 수 있는 아이도 있다.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이다. 아이가 왜 왔는지의 의미나 목적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부터 왜 노작하는지, 캠프는 왜 하는지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세심히 배려한다. 보통의 일과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남이 시켜서 하면 재미없어 한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생각하면 결국 재미없어 한다. 이런 동기부여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배려한다.

이곳에서는 텔레비전도 안 보고,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간식도 많이 먹지도 못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학교에 간다. 많이 걸으니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니 밥을 맛있게 먹게 된다. 이것을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차 타지 마라, 텔레비전 보지 마라' 는 교칙이 있는데, 법률처럼 강제는 아니지만 처음에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 라고 다시 물어본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아이들은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그리고 역시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구나 깨닫게 된다.

활동가를 위한 교육이나 이직률은 얼마나 되나?

이직률은 일본 회사와 별반 다름없다. 50% 정도 이직을 한다. 1~2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10년 동안 일하거나 야마모토 씨처럼 30년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곳에서 일하려면

사람들 간의 교류를 잘 하고 사람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오래 일한다. 농가와 교류, 교사와 교류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다.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남게 된다. 직원을 면접할 때 짧은 시간에 사람을 알아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일 년 동안은 정식이 아니라 실습기간을 두고 본인이 계속하겠다고 하면 직원으로 채용한다.
산촌유학을 왜 하는가에 대해 공유하는 것,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이에게 교사들마다 의견이 다르면 혼동하게 된다. 활동가 전원의 통일된 생각이나 의견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사람이 농사와 스키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농가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 프로그램이 있나?

산촌유학 아이들을 받는 농가는 조금씩 천천히 늘리고 있다. 아이들을 받는 집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고, 나이든 분들은 아이를 받지 않으면 갑자기 늙기 때문에 의욕 있는 분들에게는 계속 부탁한다. 농가에서 힘들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하도록 한다. 농가 부모교육은 필요한 기본교육만 한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것을 시켜야 합니다' 라든가, 가사 일을 같이 하는 것, 손님이 아닌 가족처럼 대해 달라 이런 교육을 한다. 많은 것을 요구하면 농가 쪽에서도 부담스럽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처음 농가를 선택할 때에는 주변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모아서 판단한다. 누구나 아이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이도 좋아하고 왜 아이를 받는지 알고 있는 사람, 산촌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은 따로 없다. 그래서 농가마다 차이도 있다. 간식의 종류도 다르고, 텔레비전 보는 것도 자율이고, 일하는 정도도 다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배우는 것도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다.

아이들이 한 달에 10일 정도 농가에 머물면 일 년간 같은 집에 있나?

같은 집에서 머문다. 여기 야사카센터는 한 아이가 오면 센터에서 반, 농가에서 반을 머문다. 오오카센터에서는 3분의 2는 센터에서 머물고 3분의 1은 농가에서 머문다.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다. 참가비도 센터마다 서로 다르다. 한 달 내내 아이들이 머물면 농가나 센터나 힘든 것은 똑같다. 센터 직원은 아이들이 센터에 있는 동안은 교대로 쉰다. 다른 단체에서는 아이들이 센터에서만 일 년을 보내는 곳도 있는데, 활동가들이 여러 명이라 나눠서 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돌보느라 많이 힘들어한다.

학교교사와 어떻게 소통하나?

4월에 학교 선생님이 새로 오시면 산촌유학에 대해 설명해 준다. 아이에 대한 정보도 적어 주고 설명회를 한다. 일 년에 정기적인 교류회도 있다. 선생님과 센터 활동가들이 만나 아이에

대해 상담도 하고 보고도 하고 술도 같이 마신다. 일주일에 한번은 반드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관련된 의논과 상담을 한다.

참가비는?

여기가 조금 비싼 편인데, 한 달 평균 80,000엔을 받는다. 이곳은 개인이 시작한 곳이라 지자체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 처음 지자체와 관계를 맺을 때 계속 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참가비가 비싸다고 할 수 있지만 33명 아이들이 지내려면 연료비, 전기, 물세, 야외활동비, 농가지원금에, 스텝 급여, 차도 여러 대 운행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그 외 보조금도 받는다. 이제 겨우 적자를 면한 정도가 되었다. 자본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작하기 어려우니 산촌유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도시에서 아이 키우는 돈으로 80,000엔은 그리 비싼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학력을 늘리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이 느껴야 하는 일에 돈을 쓰려는 부모, 환경문제와 교육문제,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부모들이 시골로 유학을 보낸다. 그래서 센터 직원들도 배우고 느끼는 게 많다. 도시에서 살지만 언젠가 시골로 내려오려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다.

이곳 야시카센터는 수용인원이 최대 200명까지 가능하다. 단기체험자도 많고, 시설이 좋은 공간보다 사람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편이다.

참가비가 비싸서 보내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없나?

요코하마는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많이들 온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 년 동안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어렵지만 단기캠프는 가능하다. 단기캠프 때 이런 부모들을 위해 참가비를 줄여 준다. 지자체도 이제 여기에 눈을 뜨고 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한 캠프는 지자체가 50% 부담, 부모가 50% 부담한다.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사회는 해마다 날마다 급변하고 있지만 진리는 같다. 많이 움직이면 밥이 맛있고,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줄 알고, 사람들은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이제 사회는 이것을 도리어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생기고 교육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교육의 기본을 만들기 위해 산촌유학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그런 것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센터 활동가들끼리 교환근무를 하는 일도 있나?

일을 배우는 일 년 동안은 안 되고, 일 년 뒤에는 다른 센터로 전근도 가능하다.

*야시카센터가 있는 야시카마을은 산촌유학센터 건물 외에도 좋은 시설들이 많았다. 마을 뒷산 산줄기를 따라 담력체험장도 있고, 전통체험관과 테니스장, 숯가마, 산촌유학 왔던 아이들이 돌아와 지었던 플라스틱 공장, 아이들이 가꾸는 논, 기업의 후원을 받아 캠프장도 운영하고 있었다. 야시카센터에서 나와 우리는 숲에서 텐트 치고 불 피워놓고 저녁밥을 짓는 아이들의 캠프를 구경할 수 있었다. 센터 직원과 대학생들이 도와주고 아이들끼리 조를 지어 야영을 하고 있었다.

연수 참가자 중간 평가회

- 언 제: 2006년 6월 3일 저녁
- 어디서: 아스카 호텔 숙소
- 참석자: 김경옥, 박경화, 우성숙, 이명학, 정수진, 정현경, 현병호

이명학: 야시카 지역은 오래된 곳이고, 산악지대라는 환경, 경제수준 등 현재의 농촌상황과 멀리 떨어져 있다. 농가도 분산되어 있고 경제적인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산촌유학이 30년 가능했던 것이 지역과 연계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연계와는 다르다. 산촌유학생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내 생각과 같지만 생활로 연계된다기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연계가 된 경우다.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을 모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산촌형태에 맞는 새로운 형태가 필요하겠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에게는 참고수준 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한 연계는 20~30 가구를 중심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농가를 이루는 것을 생각했는데, 이곳은 집이 떨어져 있어 마을의 개념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오히려 쉽겠다. 농가와 별 상관없이 센터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연계하면 된다. 학교가 아주 좋아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시 사람들이 산촌유학을 오고 싶어 할 것 같다.

김경옥: 지금 이명학 씨가 말한 부분은 우리 실정에서는 너무 큰 그림이다. 그냥 본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할 테니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명학: 3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뛰어 넘을 수 없는 부분이다. 며칠 돌아보고서 본질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산촌유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느낌 정도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김경옥: 개념(얘기)만 듣고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민들레로 문의전화가 오기도 한다.

박경화: 야시카센터의 활동가가 말했듯이 이분들은 산촌유학의 기본정신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예전에는 당연히 했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라는 산촌유학의 기본정신이 우리나라에

도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

김경옥: 돈을 목적으로 산촌유학을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제대로 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쳐주는 구조가 맞아 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장삿속으로 산촌유학을 시작하는 사람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다행이다.

현병호: 우리 사회의 여건은 일본과 여러 면에서 달라서 그 점을 잘 고려해서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이명학 씨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경제수준 차이뿐만 아니라 가옥구조, 마을의 형태 같은 것이 우리와 일본은 실정이 많이 다르다. 일본의 산촌 가옥 형태는 규모도 크고 도시 가옥과 별 다를 바 없이 정갈해서 그대로도 도시아이들이 장기유학을 하기에 좋다. 우리 시골의 경우는 가옥구조가 장기유학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많다.

이명학: 이렇게 어렵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만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든다. 비용이 들어도 임대공간을 마련하고 이후에 신축하는 농가는 독립공간이 보장되는 것으로 유도하면 어떨까 한다. 정보화마을을 하면 3천만 원짜리 집을 지어주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활용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우성숙: 그런데도 마을 이장들은 어떻게든 공사를 시작하게 하려고 애쓴다. 산촌유학이 지자체와 잘되면 이런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현병호: 산촌유학을 위한 산촌유학이 아니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을 살리고 시골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드웨어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에게 맞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한다. 30년 전의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인터넷이 더 발달했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쉬워졌다.

우성숙: 일본을 보고 나니 오히려 자신감이 생겼다. 농가나 센터가 산촌유학을 운영하는 것이 내가 알음알음으로 해 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집에 왔던 아이들도 신이 나서 놀다 갔다. 교사도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없었다.

정현경: 어렵겠다는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본 것은 좋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뛰어 넘는 것은 욕심이다. 일본 산촌유학처럼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하고 규모를 키워가는 형태를 우리도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의 농촌 주민들이 생태적으로 교육적으로 철학을 갖고 사는가에 대한 것

이 하드웨어 보다 더 걱정이다. 오히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인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현병호: 기존 농촌 사람들은 어렵다고 보고, 귀농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학: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산촌유학의 개요를 듣거나 설명회를 여름쯤 하면 좋겠다. 돌아가면 상주 화북에 적합한 형태를 고민하는 게 과제이다.

박경화: 보고서에 대해 얘기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 보고를 위한, 자료를 위한 보고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김경옥: 구체적인 목차는 민들레 사람들이 잡더라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지에 대한 공유는 필요한 것 같다. 일단 우리가 일본에서 배워가야 할 것 중에서 놓친 것을 더 얘기해 보자.

■ 각자 돌아가서 고민해야 할 일

1. 우성숙: 민들레에 실은 글 외에 그동안 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한다.
2. 이명학: 원래 고민이 많았으므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만간 학교에서 여름캠프 도중에 산촌유학 포럼이나 워크숍을 할 예정이다.
3. 민들레: 잘 정리해서 사회에 제대로 알려내는 일, 단순히 교육사업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사회운동이다라는 것을 알려내는 것과 필요한 사람에게 방법을 전해주는 일을 한다.
4. 우성숙과 이명학의 사례발표와 몇 차례의 설명회나 워크숍을 준비한다.
5. 산촌유학이라는 이름보다 우리식으로 더 좋은 이름을 생각해 보자.
6. 홍보나 지원을 받을 때에도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의논하고 잘 가려서 해야겠다.
7. 정현경: 일본에서 소타테루카이의 평가가 어떤지도 알아보자.

생태 환경교육을 하는

감나무자연학교

■ 다카미도 씨와 이야기

십 년 전 미국에서 환경공부를 하고 돌아 와 숲에서 환경교육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 본격적으로 환경교육을 시작했다. 일본은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생각했는데 생태적 감수성, 환경교육으로 보는 게 놀라웠다. 알고 있는 것과 바뀌는 것은 다르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보고 느끼며 시골에서 지낸다. 환경교육도 일회로 끝나면 변하기 어렵고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에는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 많지만 이곳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물건 귀한 것도 알게 된다. 자구를 지키자는 것도 말의 모순이 있다. 자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생태적인 것을 느끼고 일상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고정적인 프로그램에 연연하지 않는다. 일상(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교육을 위한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 일상과 가까운 생태교육을 한다. 시골마을에 주민의 삶이 있고,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 그럴 때 교육의 역할은 전통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생태적 지식에 감수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물론 기술적인 것, 강의나 교수법이 좋으면 더 좋겠다. 가령 짚으로 물건을 만들기 전에 짚에도 정령이 있다고 그들이 보

낸 메시지라고 읽어주고 만들기를 한 후 다시 그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쓰게 한다.

"어서 오너라. 여기는 예쁜 꽃들과 동물도 많단다. 그 동물들도 만날 거야. 너희들 눈에는 그 신이 보일지도 몰라."

사람들은 체험학습에는 연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연출을 하면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토, 오사카 근처의 아이들이 감나무자연학교에 많이 온다. 초등그룹의 어린이회, 아이들을 위한 시민단체가 있고 수학여행 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에 맞춰 응용해서 수업한다. 세시절기와 전통에 대한 수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숙박도 가능하다. 생태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라.

* 아슈 마을로 가는 저녁 무렵에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우리가 생태와 환경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야마모토 씨가 안내해 준 곳입니다. 옛날에는 절이었던 곳에서 생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숙소로 써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원시림을 지키며 산촌마을을 잘 활용한

아슈 마을

■ 이마이 다가이 씨(52세)와 간담회

아슈 마을은 깊은 원시림이 있고, 산나물 가공센터와 목공소, 숲과 동물, 자원을 잘 정리해서 설명한 방문자센터, 옛 철로를 이용한 숲 체험 같은 산촌마을을 잘 활용해서 방문객을 모으는 곳이다. 근처에는 우리나라의 민속촌 같은 일본 전통취락마을도 있다.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인 이마이 다가이 씨가 운영하고 있는 산나물가공센터 숙소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산촌마을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마이 다가이 씨는 이 지역에서 33년째 살고 있는데, 이곳이 고향이라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쌓인 곳으로 1960년에 에너지혁명이 일어나서 목탄 등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지역의 생업이 위협받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1960년에 지역의 산채를 이용해 마을 만들기 생각을 하게 되었고, 1963년에 버섯(나메코)생산조합을 만들게 되었다. 관서지방은 버섯을 잘 먹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지역의 행정가들과 상품화시키는 것에 주력해 1965년경 통조림을 만들게 되었다.

1969년에 교토청소년 아슈의 집을 세워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야외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그 당시의 행정방침은 소외된 지역에 지원을 많이 했고,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권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웠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농가마다 교육비나 생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초 농가를 살리기 위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주식회사는 1엔의 돈으로 세워도 천만 엔의 출자금이 필요하지만

유한회사는 300만 엔만 있으면 더 이상의 출자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유한회사는 나라에서 인정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생산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올해 5월1일부로 이 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등록했다. 숲과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표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이득은 없지만 설립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5년 전에 세워졌고 1억1천만 엔이 소요되었다. 국가에서 45%, 지자체에서 50% 지원되었고, 생산회사에서 5% 출자했고 관리와 운영을 맡았다. 많은 금액이 지원된 이유는 자연 그대로가 보존되는 것에 동의를 했고, 가야부키도 100% 공공자금(나라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마을과 사람들을 지정하자는 마을의 요구가 있어 의원들과 함께 추진했지만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4,200ha 정도의 나무와 강으로는 어려웠다. 교토 청소년 수련관이 4,200ha 땅을 쓰는 조건으로 6년 전부터 임대료 2,800만 엔을 받고 있으며, 소유주 322명이 소유한 크기만큼 분배받는다. 계약기간을 99년으로 했는데, 12년이 남았다. 그 정도로 나라가 도움을 주는 것은 귀중한 동식물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식물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연간 10일간 조사를 해야 이수할 수 있다. 이곳에서 계속 살아왔지만 앞으로 마을 만들기에 대한 비전이 부족한 것이 고민이고,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과제이다. 생산노동조합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면서 적극적으로 외부의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이 부족한 상태이다. 유한회사로 변경이 된 후에는 목공 등 관리할 사람도 필요하다.

젊은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

아이들과 함께 살려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무료로 주고, 대학까지 진학하려면 연간 수입이 500만 엔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보장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농가에서 필요한 돈은 아이들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을 갖기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자녀들이 이곳에 머물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이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도시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자신들이 결정하면 그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곳에 와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좋다. 현재 교육현실 속에서 진학률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키우는 것도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4, 5명 중 한두 명이 갔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대학등록금이다.

다른 지역에도 원시림이 있나?

일본에는 많이 있다. 북해도, 가고시마, 오키나와에도 천연의 원시림이 있는데 야쿠마을은 대도시와 가까운 장점이 있다.

* 다음날 우리는 산나물가공센터와 폐교를 이용해서 오카리나 같은 공예품을 만드는 목공소, 지역 특산물 가게, 이제는 나무를 실어 나르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철로를 따라 원시림을 체험할 수 있는 숲을 방문했다.

지자체에서 산촌유학을 운영하는

미야마센터

■ **센터 활동가 다니카 씨와 간담회**

미야마 센터는 소타테루카이 소속은 아니다. 매년 8~10명이 학생이 오고, 현재는 9명의 초등학생만 있다. 목요일 저녁 농가에 가서 하루 머물고 금요일 다시 센터로 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 2명이 식사를 도와준다. 농림수산청 보조금으로 8년 전에 지어졌다. 농가에 일주일에 하루만 가기 때문에 가정집 형태로 만들었다. 산촌이 아니라 농가를 구하기 어려워 주로 센터에서 생활한다. 참가비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미야마 마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와 운영을 결정한다.

어떻게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나?

오사카에서 자라 이곳에 왔다. 선임자 일을 도와주러 왔다가 선임자가 결혼을 해서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방과 후의 일상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방과 후에는 숙제하고 간식을 먹으며 6시까지 자유시간이 있고, 6시부터 청소, 6시 30분 저녁식사, 목욕하고 9시 소등이고 아침 6시 반이 기상이다.

학교까지 거리는?

1.8Km 걸어서 다닌다.

소다테루와 운영방침이나 철학 면에서 다른 점이 있나?

아이들이 적어 스텝도 적다. 많은 지도는 못하고 있다. 2명이라 어려움이 많다.

아이들이 집을 그리워할 때는 어떻게 하나?

전화는 안된다. 편지를 쓰거나 한다. 목소리를 들으면 생각이 나서 더 힘들어지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좋다. 그래서 면접 시에는 부모보다는 아이가 오고 싶어 하는 경우를 뽑는다.

부모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부모는 언제 오는가?

소식지가 월 2회 나온다. 아이들 활동을 팩스로 보내거나 급한 경우 교사가 직접 전화를 한다.
입소식, 학기 중에 부모와 같이하는 프로그램 1회, 운동회, 문화행사 등 연간 5회 정도 온다.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알리지는 않나?

전체 사진은 올리거나 하지만 특별한 아이가 알려지게 하지는 않는다. 정보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도 못 올린다. 게시판의 권한이 나눠져 있어 일반인에게는 공개하기 않고 있고, 스텝이 적어 많은 정보를 올리기 어렵다.

복지나 임금은 만족하는가?

촉탁직원 신분인데 생활이 곤란하지는 않을 정도이다.

모집하면 몇 명 정도 오나?

20명 정도 신청자 중에서 2회 면접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전에는 모집 정원에 미달일 때도 있었는데 점점 늘어났다.

운영비는?

교육위원이 관리하는 부분과 내가 관리하는 부분이 달라 자세하는 모른다. 연간 1,500만 엔 정도를 마을에서 지원한다.

면접위원 구성은?

학교교사, 센터 활동가, 교육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용돈은?

학용품 정도는 센터에서 관리하며 준다.

가장 힘든 일은?

아이들이 강에 나가서 놀거나 할 때 손이 부족하다. 9명이 학년차가 있기 때문에 놀이가 다른데 함께 해주지 못한다.

일본연수 현장취재 1

왜 산골로 유학 갔을까?

▌박경화, 『민들레』 편집실

일본 연수를 함께 다녀온 뒤 격월간 『민들레』에 실었던 글입니다.

자립하는 아이

"식사하러 오세요."

아침 일찍부터 차를 타고 달려 늦은 오후에서야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는 오오카센터에 짐을 풀었다. 식당에서 사먹는 밥에 허기가 진 상태여서 저녁 먹으러 내려오라는 말에 두 번 생각할 틈도 없이 식당으로 향했다. 어떤 요리가 나올까? 큰 시설이니 급식소처럼 나올까, 일본 특유의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이 나올까, 배불리 먹을 수는 있을까? 식당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멈칫, '여기가 식당 맞나?' 돌아 나와 간판을 살폈다. 다다미가 깔린 너른 공간에는 아이들만 가득했다. 다시 들어와 보니 저녁식사를 차리기 위해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떤 규율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무거운 냄비를 들고 있으면 키 작은 아이가 국을 떠서 개인 그릇에 담았다. 한 아이가 밥상 위에 그릇을 가지런히 놓으면 다른 아이가 뒤따르면서 양상추를 담았다. 아이들은 대개 초등학생이고 중학생 아이들이 몇몇 섞여 있는 정도였다. 손발이 아주 척척 맞아 고도의 훈련을 받은 게 아닐까, 잠깐 가자미눈을 뜨고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고소한 저녁시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기엔 배가 너무 고프다. 밥과 된장국, 사람 수만큼 가지런히 놓인 접시에 잘라놓은 자몽과 등꽃 튀김, 시금치 어묵조림에, 생선까지, 침이 꼴깍 넘어간다.

이곳은 일본 나가노시(長野市) 오오카(大岡) 마을 산촌유학센터. 도시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시골마을로 유학 와 지역학교를 다니면서 머물도록 만들어진 산촌유학생들의 숙소다.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온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1~2년 동안 머문다.

우리는 지금 산촌유학을 알아보러 일본으로 왔다. 우리나라에서 산촌유학을 시작해보려는 이명학 씨와 우성숙 씨, 대안교육연대 정수진 씨, 통역을 도와주는 정현경 씨, 그리고 민들레 식구 셋이 교보교육문화재단 지원으로 일주일 동안 일본의 산촌유학 단체와 센터, 농가와 학교를

방문할 계획으로 왔다. 나가노현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곳으로, 오오카센터가 있는 오오카 마을은 '기타(北) 알프스' 라 부르는 해발 3천 미터가 넘는 산맥이 6월에도 흰 눈을 이고 있는 깊은 산골마을이다. 이 높은 산이 건너다보이는 푸른 언덕에 자리 잡은 오오카센터에는 지도원이라 불리는 교사 네 사람과 아이들 15명이 머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밥상마다 큰 플라스틱 대접과 고무주걱이 나왔다. 아이들은 자기가 먹은 그릇에 남아있는 음식과 양념까지 이 주걱으로 싹싹 긁어 플라스틱 그릇에 담았다. 그리고 개수대로 가서 큰 아이, 작은 아이 할 것 없이 직접 설거지를 했다. 먹을 만큼만 음식을 담은 데다 주걱으로 양념찌꺼기까지 모았으니 물로 한 번 헹구면 될 정도로 설거지가 간편했다. 저녁을 먹고 혼자 슬슬 돌아다니다 공동 공부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가방과 책, 학용품 같은 수업교재가 들어있는 사물함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서였다. 두리번두리번 살피는데 여자 아이가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들어왔다.

"저녁 맛있었어요?"

나를 보고 활짝 웃더니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는 빗자루로 쓸고 부지런히 걸레질을 했다. 미안해서 얼른 나왔다. 복도로 나오니 사내아이가 소파를 한쪽 옆으로 치워놓고서 비질을 하고 있고 여자 아이는 손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다. 2층으로 올라가니 빨래를 잔뜩 모아 세탁기를 돌리는 아이도 있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방과 주방, 화장실까지 아이들이 모두 부지런히 청소를 하고 있다. 손님이 와서 그러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대청소날인가. 알고 보니 날마다 이렇게 청소를 한단다. 집에 있는 아이들 같으면 저녁밥을 먹고 쉬거나 가족들에게 어리광을 부릴 시간이 아니던가?

일본 산촌유학의 기본정신은 자립하는 아이다. 도시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시골마을에 머물면서 학교를 다니고, 숙제와 공부는 스스로 한다. 여러 아이들과 어울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빨래와 청소 같은 일상생활도 제 손으로 해결한다. 센터의 선생님들은 숙제를 몰라서 물으러 오는 아이나 학년에 맞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에게만 공부를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우리가 저녁식사로 먹었던 된장국은 아이들이 마을 할머니에게 직접 배워서 만든 된장으로 끓인 것이고, 버섯 역시 직접 키운 것이었다.

센터 건너편에는 아이들이 가꾸는 논밭이 있다. 작은 밭 하나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 농사법 역시 마을 농부가 와서 가르쳐준다. 한 골씩 맡아 콩과 가지, 오이와 토마토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물을 심는데, 역시 아이들의 솜씨라는 걸 한눈에 눈치 챌 수 있었다. 다른 밭에 비해 작물들의 키가 작고 기운이 없고, 한쪽에서는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었다. 저래서야 어디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다. 아이들이 모내기를 한 논 역시 다른 논에 비해 벼가 어리고 연약해 보였다. 하지만 농사일은 기계 힘을 빌지 않고 전부 손으로 하는데, 농사의 어려움과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란다. 그 밖에도 어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마을 공동체와 어울리는 법을 배운다. 그러나 센터가 도시 아이들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다. 센터 공부방에는 마을 아이들의 사물함도 마련되어 있는데, 도시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 단기체험 프로그램이 자주 열린다. 이때 마을 아이들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울리면서 숙식을 함께 한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강당에 모여 나라 밖 손님인 우리들에게 큰북 공연을 보여주었다. 옛날 바닷가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떠나는 어부들이 노래하고 춤추던 것을 재현한 것이라고 한다. 큰 북소리와 노래하는 모습이 어부의 출어가라기보다는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몸짓으로 보여 적잖이 거부감이 일었지만 북을 두드리는 아이들 눈망울과 몸짓은 사뭇 진지하고 힘찼다. 이어진 부채춤과 타악기 합주 역시 취미 수준을 넘어 꽤 오랜 시간 연습을 했을 법한 훌륭한 공연이었다.

오오카센터의 책임자인 아오키 선생님은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이 전통공연을 가르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센터에서 머무는 아이들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지역의 전통문화를 배워보자는 결론을 얻었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북채 잡는 법부터 익혀

나갔다. 때로는 전문강사를 초대하기도 하고, 멀리 연수도 다니며 기량을 닦은 뒤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연습시간은 따로 없지만 아이들은 틈만 나면 북치고 노래하는 데 여념이 없단다. 게다가 지들끼리 경쟁심도 생기면서 어떤 아이는 밭에서 일하는 동안 나뭇가지로 돌멩이를 두드려가며 연습에 빠져들기도 했다. 이런 바람은 다른 산촌유학센터로도 번져 센터마다 나름의 기량을 다듬어간다. 이렇게 익힌 솜씨들은 전국의 산촌유학센터 사람들이 다 모이는 11월 축제(일종의 추수감사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그해 배움을 매듭짓는다고 한다. 11월 축제 때는 아이들의 부모는 물론 산촌유학에 관심을 가진 어른들도 꽤 많이 모이는데 다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어떤 아이들은 이 폼 나는 공연을 보고서 산촌유학을 와야겠다 결심하기도 했단다. 지역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센터 아이들이 이렇게나마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니 마을 사람들도 무척 반기고 있다.

초등학교 여학생인 쿠미코와 사키코에게 이곳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다.

"엄마 생각도 안 나요. 아주 재밌어요."

배시시 웃었다.

바람 잘 날 없는 대가족, 산촌유학 농가

다음날 우리가 찾은 곳은 산촌유학을 온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야사카(八坂) 마을의 농가 스바 씨 댁이었다. 산촌유학 단체가 일본에는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다테루카이 산촌유학의 특징은 이처럼 유학 기간 동안 반드시 농가에서 머물도록 한다는 점이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 달에 열흘이나 보름은 농가에서 머물면서 농민들의 생활 그대로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에서 산촌 문화와 생태감수성이 몸에 배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꾸민 장치라 하겠다.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지 50년이나 되었다는 스바 씨 집은 여전히 깔끔하고 튼튼해 보였다. 2층까지 방이 여러 개 있고, 농기구를 넣어두는 창고까지 딸린 꽤 큰 집이었다. 거실 노릇 하는

큰방과 좁은 복도 따라 작은 방이 있고, 출구도 따로 있어 대가족이 살아도 서로 독립공간을 가질 수 있는 구조였다.

우리는 큰방에 모여앉아 스바 씨 부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미 호호 할머니인 스바 씨 부인은 요즘 한창인 죽순과 고사리로 나물을 무쳐 녹차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그릇 소담스레 내놓았다. 우리네 시골 인심처럼 할머니는 찻잔을 흘깃거리며 연이어 차를 따르고 먹기를 권했다. 올해 여든인 스바 씨와 일흔여덟인 부인은 산촌유학으로 아이들과 생활한 지 35년이나 되었다. 그동안 이 정갈한 집을 거쳐 간 아이들은 무려 180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일 때 처음 유학생이 왔는데, 지금은 다 어른이 되었어요. 요즘에는 한참 손주뻘 되는 아이들이 오는데도 우리를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쑥스러운 웃음을 짓는 부부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대하는 비결은 언제나 내 아들딸 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라고 했다. 지금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 다섯 명이 머물고 있다. 아이들은 4월에 와서 다음해 3월까지 한 달에 열흘씩 이곳에 머무는데, 각자 개인 방을 따로 주지 않고 큰방에서 서너 명이 어울려 살게 한다. 농사일만 해도 만만찮은데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까 궁금했다.

"아이들 스스로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빨래와 청소도 제 손으로 하게 해요. 바쁜 농사철에는 아이들이 우리를 돕죠. 그냥 한 식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해 떨어지고도 일이 마무리가 안 되면 오늘은 밥을 좀 늦게 먹자고 하면 되구요. 기숙사 마냥 정해진 시간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살아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일은 없어요."

스바 씨네는 지금은 많이 줄였지만 이전에는 무 재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제때 시장에 내보내려면 일손이 부족하니 유학 온 아이들도 훌륭한 일꾼 몫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하지만 농사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었다. 도시에서 내려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부부는 억지로 시키지 않고 아이들이 조금씩 적응해서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택한다.

스바 씨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산촌유학을 시작했던 야시카센터가 있다. 스바 씨 집에서 머무는 아이들도 바로 야시카센터 아이들이다. 센터와 홈스테이 농가는 자주 소통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농가에 아이들이 머무는 동안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부부가 같이 외출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잠시 센터에 맡기면 된다. 또, 농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일이 아이들에게 생기면 센터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는다. 센터와 농가는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년 줄곧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지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격을 두고 센터와 농가를 오가는 까닭에 센터 활동가나 농가 어른들 모두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들이 산촌유학을 와 있는 동안 도시에 있는 부모들도

가끔 이곳을 찾는다. 봄 연휴 때, 야시카센터 행사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 참관일에도 온다. 이럴 때 농가 부모와 도시 부모가 만나 서로 아이에 대한 정보교환을 하기도 한다.

아주 드물게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과자를 슬쩍 하기도 하고 다른 농가에 가서 말썽 피우는 녀석들도 있었다. 그럴 때면 스바 씨는 자식에게 하듯 호되게 야단을 친단다. 한번은 너무 속상해서 사내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 다시 찾아왔을 때 꿀밤을 먹었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기도 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받는 게 농가엔 어떤 도움이 될까? 농사를 짓는 스바 씨 네는 가을까지는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데 아이들의 참가비를 받으니 살림살이에 꽤 도움이 된다고 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달마다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보다 더 큰 도움을 주는 게 있다. 바로 아이들이 주는 생기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아이들을 맡아 기르면서 스바 씨 부부가 얻는 기쁨은 돈보다 훨씬 큰 선물이었다. 실제 스바 씨 부부는 여든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정정해 보였다.

따뜻하던 차가 어느덧 식어가고 질문과 답이 무르익는 가운데 아이들의 용돈에 대해 여쭈었다. 도시의 소비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이 시골에서는 어떻게 지낼까? 그런데 놀랍게도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소다테루카이의 원칙이라고 했다. 학용품 사는 돈이나 병원비 같은 비용은 부모들이 보내준 참가비에서 쓰고, 돈이 많이 든 경우에만 나중에 결산하는 방식을 택한다. 농가에서는 때때로 간식을 챙겨주고 산골마을에는 가게도 드물어 아이들이 돈 쓸 일이 거의 없단다. 애초에 이곳으로 오면서 아이들은 돈을 안 쓰는 곳이라고 마음먹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도시의 집에 다녀왔다가 용돈을 받아서 오는 아이라도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좁은 동네에 금방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쓸 수도 없다고.

아이들이 제 할 일을 스스로 한다 해도 엄마의 일거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스바 씨 부인에게 여쭤보았다. 보통 엄마들이 그렇듯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는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빨래와 청소를 아이들이 스스로 하지만 이불 속에서 벗어놓은 옷이 나오기도 하고, 더러운 양말을 신고 다니거나 우산을 잊고 학교 가면 책임이 느껴져 자꾸 챙겨주게 된다. 그러나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4월에 아이들이 오면 우리도, 아이들도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름방학까지는 서로 호흡을 맞추고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천천히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요. 아빠들은 다 좋은 거라고 그저 웃고 넘어가지만 역시 산촌유학에서는 엄마 역할이 중요하고, 엄마 노릇을 할 여성이 어떻게 마음먹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도시로 돌아간 아이들이 자라서 애인이나 배우자를 데리고 인사 오면 스바 씨 부부는 친부모 못지않게 뿌듯함을 느낀다. 일본 풍습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여름 안부를 묻는 카드와 겨울 연하장을 주고받는데, 이때 받은 사람은 꼭 답장을 써야 한다. 그런데 산촌유학 왔던 그 많은

아이들이 해마다 연하장을 보내오니 부부가 함께 답장 쓰기도 만만치 않단다. 많은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준 노부부의 활짝 웃는 얼굴에서 자상함과 푸근함, 그리고 삶의 지혜가 우러났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닮아가고, 부모는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어른이 되어간다고 했던가? 숨 막히는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이 스바 씨 부부 곁에 머물면서 자신의 미래를 따스하고 포근하게 그리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싶다. 그런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스바 씨 부부 역시 35년 동안 바람 잘 날 없는 대가족을 길러낸 것이 아닐까.

산촌유학, 어떻게 떠나는 것일까?

산촌유학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지금부터 34년 전, 나가노현이 고향인 아오키 씨는 학교 선생님이었다. 그가 서른다섯 살 되던 해, 입시전쟁터 학교에는 더 이상 교육이 없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진짜 교육은 뭘까 고민하다 아이들과 자연이 만나면 여러 가지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자연체험활동 중심으로 배우고 익히는 '소다테루카이(育る會)'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초기엔 돈이 없어 실무자들 모두 자원활동으로 일했고, 심지어 도쿄에서 중고차를 사서 수리한 뒤 시골에 되팔아 자료집과 홍보물을 만들기도 했고, 가끔 여는 행사 수익금으로 겨우겨우 운영할 정도였다. 인건비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집안 살림 살이는 교사였던 부인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했다. 그렇게 고생스런 몇 해가 지나 소다테루카이의 여름캠프가 신문에 실리면서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이때는 따로 캠프시설을 두지 않고 지역 농가를 빌려 아이들을 머물게 했다.

산촌유학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농가에서만 머물기보다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기회와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야사카마을에 최초의 산촌유학센터인 야사카센터를 만들었다. 아직은 지역 공무원도, 학교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심 반 호기심 반으로 산촌유학 하는 이들을 대할 때였다. 하지만 아이들의 소리가 사라졌던 산골에 한꺼번에 스무 명이 넘는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부모형제가 마을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사람이 빠져나간 산골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산촌유학은 지역 살리기 아이템으로 주목을 끌었다.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정원이 늘면서 예산 지원도 늘고 교사도 더 충원되었다. 이런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여러 지자체들이 산촌유학을 유치하려 들었다. 센터도 지어주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곳도 생겨났다. 그런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곳이 야사카센터 옆 마을의 오오카센터였다.

우리가 첫날 머물렀던 오오카센터는 오오카마을 재정으로 건물도 세우고 운영비도 보조해주고 있다. 부모들에게 한 달 참가비로 초등학생은 6만9천 엔(약 62만 원)을 받고, 중학생은 7만2천 엔(약 65만 원)을 받아 센터 재정의 절반쯤을 충당하고 있다. 부모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큰 건물을 유지하고 교사들 월급 주고, 각종 프로그램을 열다보면 언제나 적자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산촌유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소다테루카이에

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적지원을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것만큼 공적인 투자가 어디 있냐는 게 그들의 논리다.

오오카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다양한 산촌유학센터가 세워졌는데, 그 바람도 요즘에는 한결 수그러들었다. 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 긴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중앙정부의 돈 씀씀이가 엄격해지자 산촌유학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을 위해 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나?' '도시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소다테루카이에서는 이 점을 새겨듣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끝에 도시에서 온 이른바 '유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지역의 생태교육, 생활교육장'으로서 성격을 새롭게 잡아가고 있다. 시골에 살지만 오히려 놀 친구도 없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시골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또, 어른 아이가 모두 모여 문화공연도 펼치고 놀기도 하는 사랑방 노릇도 하고 있다.

산촌유학을 오는 아이들의 80%는 산촌유학센터에서 여는 설명회나 단기캠프를 경험하고 나서 결정했다고 한다. 산촌유학의 취지나 방향, 내용에 부모가 공감하고, 무엇보다 산촌유학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들이 왔다는 걸 드러낸다.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보다는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시골에서 돌아와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이가 신청하면 산촌유학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러주기도 한다. 아이도 행복하고, 부모도 만족스러우려면 산촌유학이 무엇인지, 그 센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 간혹 집에서 데리고 있기 곤란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오기도 하지만, 이런 아이들 수는 2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중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혹시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 이를 대비해서 보험회사와 이야기해 산촌유학협회보험도 만들었다. 보험료는 한 아이 당 1년에 1만5천~2만 엔(약 13만~18만 원) 정도를 낸다.

산촌유학 주관단체는 소다테루카이 말고도 여럿 있다. 따라서 그 유형도 다양하다. 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농가 중심으로 유학생을 받기도 한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골학교에 다니는 도시 아이들을 위한 하숙집으로 그치는 곳도 있다. 센터 없이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속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단독 농가의 경우 아이들을 보살피는 어른들이 여행은 물론 외출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5~6년 뒤에는 다들 지쳐 산촌유학을 그만두는 일이 흔하다. 그래서 소다테루카이는 센터가 중심이 되고 농가와 소통하며 산촌유학을 운영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아이가 도시로 돌아가게 될 때는 유학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이가 성장한 부분을 부모에게 알려주고, 유학생활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일 년을 채우지 않고 도중에 그만 두는 아이도 간혹 있지만, 6%를 넘지 않는다. 정말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이고, 시골에서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농사일도 해야 하고 고생도 많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충분히 하기 때문이다.

산촌유학이 남긴 것

산촌유학은 도시에서 온 아이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버스도 자주 다니질 않아 산촌은 그저 불편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시 사람들이 와서는 숲도 좋고 공기도 맑고 밥도 맛있다고 감탄하니 지역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을 다시 돌아보고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시골마을에 아이들이 늘어나니 생기가 넘치고, 시골학교에도 전학 온 아이들이 늘면서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만나러 올 때 차에 기름도 넣고 지역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기도 하면서 작은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한몫했다. 또, 유학 왔던 아이가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때때로 다시 마을을 찾고, 더 자라서는 가족을 데리고 오기도 한다. 또, 자기가 지냈던 마을과 사람들을 잊지 않고, 직접 쌀이나 채소들을 주문해서 사가기도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유학 기간은 1~2년이지만 10~20년을 넘어 인연이 계속되니 이것이야말로 '도농교류운동' 이자 '도농교류학습' 이라 하겠다.

일본 역시 풍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펼쳐지는 자연체험학습이나 단기캠프, 수련시설이 많다. 이런 가운데 소다테루카이가 다른 곳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30년 동안 소다테루카이에서 산촌유학을 이끌고 있는 아마모토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산촌유학은 그저 도시 아이들이 시골에서 생활하고, 작은 학교 살리는 차원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톨이로 지내는 시골 아이들에게 도시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형제를 만들어 주고, 자기가 사는 마을을 돌아보며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합니다. 도시 아이들에게는 고향을 만들어 주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시골이든 도시든 아이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고,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산촌유학이고, 소다테루카이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또, 아이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아이들과 이어진 이 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생태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뒤로한 채 시골로 유학 오는 것이 한참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길게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산촌유학을 다녀온 아이들은 농가와 자연에게 자립심을 배워 무엇이든 스스로 해결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모두가 이런 어른으로 자란다면 이 나라가 분명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산촌유학' 을 만나러 함께 일본으로 떠났던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만 갔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생생하게 들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밤늦도록 숙소에서 이야기하고, 다시 이동하는 기차에서 끝날 줄 모르는 토론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생겨났다.

농가 구조의 차이도 무시 못할 문제이다. 일본의 농가는 도시 주택과 별 다르지 않을 만치 정갈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에 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규모도 큰 편이었다. 우리 농가 현실을 생각하면 장기 유학이 쉽지만은 않다. 센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시골에서 머물 수 있는 시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있는 어른이 절실히 필요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가족들도 필요하다. 귀농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지역 학교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일본은 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교사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 보니 오히려 뜻있는 교사들이 지원하는 반면 우리 실정은 승진 점수를 바라고 오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니 학교를 바꾸어가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생태교육의 대안으로, 귀농자의 의미 있는 일감으로, 도시와 시골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 우리에게 맞는 모습이 무엇일지 찾아 나선 길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일본연수 현장취재 2

도시와 시골의 행복한 만남 '산촌유학'

▌현병호, 격월간『민들레』발행인

일본 연수를 함께 다녀와서 한겨레신문 2006년 7월 24일자에 글을 실었습니다.

"친구들과 손잡고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 학교에 갔다. 점심 먹고 나서 냇가에서 가재를 잡고, 원두막에서 수박이랑 참외를 먹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밤에는 모깃불 피워놓고 별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쓰이기를 바라는 도시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제는 부모 세대의 향수가 되어버린 이야기를 21세기 한국 현실에 맞게 '다시 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시 아이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시골살이'를,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골 학교 아이들에게는 함께 공부하고 뛰어놀 새 친구를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산촌유학'이다. 격월간 대안교육지『민들레』발행인을 비롯해 국내에서 산촌유학을 시

도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산촌유학을 제도로 정착시킨 일본에 다녀왔다.

일본 '산촌유학' 현장을 가다 / 시골로 떠난 도시 아이들, 자연서 '체험, 삶의 현장'

대부분의 아이들이 도시에서 자라는 요즈음, 아이가 잠시라도 자연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듯하다. 평소에는 '학원 뺑뺑이'에 찌들어 사는 아이들이라도 적어도 방학 때 며칠씩이라도 시골에서 지내보게 외갓집을 보내거나 이런저런 캠프를 보내기도 한다. 반딧불이 날아다니는 산골에서 아궁이불에 감자를 구워먹어 본 어른이라면 자기 아이에게도 비슷한 체험을 하게 해주고 싶을 것이다. 많은 캠프, 계절학교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준다. 그러나 자연이 단순히 체험의 대상을 넘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자연과 하나가 될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교육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단기체험 위주의 생태교육, 체험학습의 한계에 대한 고민을 하던 이들이 눈을 돌린 것이 다름 아닌 '산촌유학'이다. 귀농해서 실제로 도시 아이들을 받아들여 도농교류학습을 시도하고 있는 이들과 대안교육운동을 하는 격월간 『민들레』가 중심이 되어 산촌유학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침 교보환경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어 일본의 산촌유학 실정을 둘러보러 몇몇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왔다.

산촌유학은 간단히 말해 도시아이들이 시골로 가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이런 일을 개인 차원을 넘어 조직적으로 풀어낸 것은 일본이 한참 앞섰다. 지금부터 34년 전, 나가노현 산골이 고향인 젊은 교사 아오키 씨는 입시전쟁터 같은 학교에 더 이상 교육은 없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진짜 교육은 뭘까를 고민하다 아이들과 자연이 만나면 여러 가지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에 '소다테루카이(育る會)'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따로 캠프시설을 두지 않고 지역 농가를 빌려 아이들을 잠깐씩 머물게 했다. 소다테루카이가 알려지면서 아이들이 늘어나고 개중에는 아예 시골 학교로 옮겨와서 장기 유학을 하는 아이들도 생겨나면서, 농가에서만 머물기보다 공동생활 공간의 필요성이 생겨 야사카마을에 최초의 산촌유학센터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단기캠프 형태가 아닌 장기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아이들은 대개 1~2년씩 머무는데, 소다테루카이의 원칙은 한 달에 10~15일은 반드시 지역 농가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농가에서 일도 거들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익히는 기회를 갖도록 배려한다. 농가의 어른들이 부모와 교사 노릇을 하는 셈이다. 농가와 센터를 번갈아가면서 머물게 함으로써 농가와 아이들, 센터 활동가도 쉽게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곳 가운데는 30년 넘게 아이들을 받아오고 있는 농가도 있었는데, 이제 일흔이 넘은 주인장 스바 씨 부부는 손주뻘인 아이들이 요즘도 자신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며

웃었다. 산촌유학을 한 아이들은 자라서도 자신이 한때 머물렀던 산골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자주 찾는다고 한다. 일부러 그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기도 하고 결혼해서 자신의 아이를 다시 산촌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아이들 소리가 사라졌던 산골에 도시아이들이 들어오면서 마을도 활기를 띠고, 그들의 부모 형제가 마을에 드나들면서, 사람이 빠져나간 산골에 사람을 불러들이는 산촌유학은 지역 살리기 아이템으로 주목을 끌었다. 산골 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 정원이 늘면서 예산 지원이 늘고 교사도 더 충원되었다. 이런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 여러 지자체들이 산촌유학을 유치하려 들었다. 센터도 지어주고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곳도 생겨났다. 그런 바람을 타고 만들어진 곳이 야시카센터 옆 마을의 오오카센터였다.

오오카센터는 오오카마을 재정으로 건물도 세우고 운영비도 보조해주고 있었다. 부모들에게 한 달 참가비로 초등학생은 69,000엔(약 62만 원)을 받고, 중학생은 72,000엔(약 65만 원)을 받아 센터 재정의 절반쯤을 충당하고 있다. 부모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큰 건물을 유지하고 상근활동가들 월급 주고, 각종 프로그램을 열다보면 언제나 적자인데, 그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오오카센터에 이어 전국에서 다양한 산촌유학센터가 세워졌는데, 그 바람은 요즘에는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1990년대 이후 일본 사회에 긴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중앙정부의 돈 씀씀이가 엄격해지자 산촌유학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을 위해 왜 우리가 돈을 써야 하나?' '도시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소다테루카이에서는 이 말을 새겨듣고 이른바 '도시 유학생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지역의 생태교육, 생활교육장'으로서 성격을 새롭게 잡아가고 있었다. 시골에 살지만 오히려 친구가 없어 하루 종일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시골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구실도 한다. 또, 마을의 어른 아이가 모두 모여 문화공연도 펼치고 놀기도 하는 사랑방 노릇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산촌유학이 정착되려면 먼저 몇 가지 과제가 풀려야 할 것이다. 일본과 우리 형편은 다른 점이 많다. 농가 구조의 차이도 무시 못 할 문제인 듯했다. 일본의 농가는 도시 주택과 별 다르지 않을 만치 정갈하고 규모도 더 큰 편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에 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농가 현실을 생각하면 지역센터 없이는 장기 유학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센터 공간을 마련하자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아이들이 시골에서 머물 수 있는 시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고민과 철학이 있는 어른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과 어울려 공동체로 살 수 있는 가족들도 필요하다. 귀농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역학교를 설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벽지 근무를 자원하는 교사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 보니 오히려 뜻있는 교사들이 지원하는 반면, 우리 실정은 승진 점수를 바라고 오는

교사들이 많으니 시골의 작은 학교를 바꾸어가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이런 과제들은 하나씩 풀어 가면 어려운 일만은 아닐 듯싶다. 우선 이런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서부터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준비중이다. 아이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일인 만큼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는 단체와 사람들이 많다. 한국의 '산촌유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 함양 · 상주 · 양양, 산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현재 국내에서 산촌유학을 시도하거나 준비중인 이들은 서너 명쯤 된다. 경남 함양 마천면 창원마을에 살고 있는 김일복 씨는 지난 2002년부터 '햇살네 교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짧게는 3박4일, 길게는 2주에 걸쳐 도시 아이들의 시골 체험 프로그램을 꾸려왔다. 그동안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 한번에 5명 가량 아이들이 김씨네 집에 머물며 자연 ·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이었는데, 오는 9월부터는 본격적인 '산촌유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9월 한달 동안 계속되는 햇살네 교류학습은 도시 아이들이 근처 마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현행 교육법에서는 석 달 이하의 도농교류학습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별도의 전학 절차 없이 시골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 이명학 씨는 근처 괴산을 포함해 110여 개에 이르는 귀농 가구들과 더불어 산촌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마을에 산촌유학센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과 인력 확보에 나선 상태다. 이밖에도 강원도 양양 오색마을에서 일주일~6개월에 이르는 장 · 단기 산촌유학 프로그램을 꾸려온 우성숙씨 등이 국내 산촌유학의 '개척자'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산촌유학은, 최근 대안교육 격월간지 『민들레』가 주축이 돼 관심 있는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서면서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일본 산촌유학 현황과 국내 현실을 알아보고 풀어야할 과제를 짚어보는 '산촌유학 워크숍'이 오는 8월 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다. 교사나 학부모를 포함해 산촌유학에 관심 있는 이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민들레 홈페이지(mindle.org)를 참고하면 된다. **_한겨레신문 이미경 기자**

우리나라 사례1

지리산 교류학습, 그리고 산골유학

▌김일복

지리산 자락에 있는 경남 함양에서 4년째
교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햇살네 집 http://blog.naver.com/hieri

오늘도 우리 집엔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비밀요원들의 전화가 이어진다. 비밀요원들과 통화할 때 제일 큰 비중을 두는 것은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디서 믿음을 얻었는지 알아내는 일이다. 비밀요원들의 특징은 대략 이렇다.

첫째, 도시에서 산다. 시골에서 살 듯 촌스럽게 살려고 무지 노력하지만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둘째, 남들 다 보내는 학원도 가리고 가려서 꼭 필요한 것만 보낸다.

셋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면 쏙 빠져들어서 금세 친구가 된다.

대략 이런 특징을 가진 비밀요원들,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 집에 교류학습을 보내고 여름 들살이 겨울 들살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이다.

소다테루카이 캠프에 참가하다

2001년 일본 소다테루카이에서 연 겨울캠프(3월 26일~30일)에 약간의 체류비를 내고 보조교사로 참가한 적이 있었다. 자연연구반 아이들 15여 명과 안내자 두 명, 그리고 호송 선생님(연세 지긋한 정년퇴임한 선생님)과 함께 지냈다. 호송 선생님은 자연공부로 처음 내 손을 잡아준 선생님이다. 그 무렵 우리나라에서도 야생화 공부가 시작되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산중에 숨어있는 꽃을 찾아다닌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호송 선생님의 자연공부는 좀 달랐다. 숲에서 빠른 걸음을 걸을 때와 천천히 걸을 때가 서로 달랐다.

어린 아이들과 200m 남짓한 거리를 두 시간 정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으로 놀랍고

신선한 공부였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셨고, 나무를 만져보고 그려보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시간을 주셨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고 떨어진 가지와 잎을 만지고 대화할 시간을 가졌다. 물론 난 언어로는 의사소통이 되질 않았지만 측백나무와 복수초, 큰개불알풀, 머위 꽃대 같은 그림을 같이 그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나라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름을 당장 알 수 없었던 꽃은 내 느낌대로 적고 그려 보았다.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야외관찰과 산행을 했고, 반나절 정도는 그날 본 것을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자연연구반은 자연신문을 만드는 게 주제였는데, 서너 장 되는 신문을 거뜬하게 만들어냈다.

캠프 운영도 배울 점이 많았다. 200여 명이나 참가한 식구들이 복작거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일어나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 목욕하는 시간이 모둠별로 딱딱 정해져 있어서 한 번에 50명 이상을 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 중심으로 동선을 짰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알게 모르게 군대식으로 캠프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식사시간은 모두가 차례로 모여 줄을 서고, 모두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어디를 가려면 모두 같이 구호를 붙이며 이동하게 한다. 큰 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도할 때도 남자안내자가 많아서 그런지 군대식 습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을 대한다. 나도 그 캠프에 참여하고서야 깨달았다. 소다테루카이는 내게 무척 평화롭게 다가왔다. 많은 인원을 적은 안내자가 진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일 수도 있겠다. 그럼 반대로 적은 인원을 꾸려서 최소한의 안내자가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

또 다르게 내가 눈여겨 본 것은 아이들이다. 스스로 서는 아이들, 아이들이 스스로 제 할 일을 하고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아이로 키우자가 교육목표인데, 캠프에서 자연교육과 감성체험을 넘어서서 스스로 서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을까 궁금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소다테루카이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은 제 일을 적극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4박5일 동안 엄마가 보고 싶어 의기소침해있거나 우는 아이는 한두 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가 캠프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아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 일어나기와 잠자리 정돈하기, 자기물건 정리하기, 이런 일들 또한 평소에 훈련된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했다. 자기 신변을 알아서 잘 정돈하고 필요한 것은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이들은 배우고 터득하고 성장했다.

저녁에는 모둠별로 모여서 그날그날 활동내용을 정돈하고,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한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주방 담당과 전체 운영을 맡은 분은 다음날 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주방 시스템도 조금 달랐다. 주방 일을 보는 분은 정직원 5명 정도에 나처럼 보조교사 형태로 온 친구들이 열 명 정도 같이 일을 했다. 그런데 척척 손발이 맞는 시스템이 무척 궁금해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주방에서 반나절을 보냈다. 음식준비는 철저한 계산에서 시작되었다. 식단을 꾸리면 그 식단에 맞게 반찬의 양을 적당하게 계산했다. 접시공양 방식인데, 아이들이 먹을 것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받은 것처럼 식탁에 모둠별로 차려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토란조림이 나오면 한 아이당 두 개에 전체 아이들과 어른의 수를 곱해서 필요한 토란을 준비했다. 저녁 식사준비와 아침식사 준비를 하고, 아침에 점심도시락을 준비해서 식당팀이 점심나절에 조금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참 좋은 배려였다. 아쉬운 점은 점심 도시락과 젓가락이 일회용이라는 점이었다.

햇살과 함께하는 자연놀이

일본에서 하는 이 산촌유학 캠프를 보고온 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고 소박하게 시작해 보기로 했다. 산골유학이 무척 매력 있고 큰 품을 들이지 않고 아무리 작게 시작해 볼 수 있다 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먼저 함께할 부모님을 찾는 게 문제였다. 그리고 나 역시 작은 소그룹 캠프를 운영하면서 내안의 평화를 유지하며 아이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자연에 대한 느낌과 감상,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갈등을 바라볼 경험이 필요했다. 그래서 자연놀이를 먼저 시작했는데, 계절별로 여름 들살이와 겨울 들살이를 하면서 내 스스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집안일 농사일	마을에서 배움	자연활동	그 밖
고춧대 다듬기 고구마 캐기 콩 줍기 곶감 깎기 땔나무, 갈피 마련하기 수수 털기 밤 줍기	마을 아이들과 놀기 마을 짐승들 찾아보기 어르신들에게 이야기 듣기 고추장거리 마련 구경하기 시골장 가기 당산나무 아래서 놀기	밭의 작물 맞추기 산책, 신문 만들기 윷가락 깎기 개울 수서곤충 만나기 솔방울로 만들기 홍시 따먹기 지리산 산행 수수깡놀이	부모님께 편지쓰기 선물꾸러미 만들기 마을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놀기

프로그램에서는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은 되도록 줄였다. 그리고 전체흐름을 방해한다는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과 내 자신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없앴다.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여치집 만들기, 물레방아 만들기, 액자 만들기 같은 자연을 재료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렸다.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낸 놀이를 하게 해 주었다. 예를 들어 놀이터 만들기 같은 놀이는 하자고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며 노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길 기

다리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환경교육 하는 선생님과 나누었더니 굉장히 앞서가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한동안 우쭐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연놀이를 꾸준히 해온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였다. 프로그램은 부모님들께 미리 알려주었다.

지리산 자락 햇살네 집인 우리 집에서 하는 자연놀이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서 원하는 부모님들이 연락주시면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해 둔다. 또,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오기 전에 남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햇살과 바람, 구름, 들살림이 허락하는 대로 하루 전, 또는 그 날 일정을 짜서 움직인다. 먹을 것을 아이들과 같이 마련하고 같이 걸으며, 두 손으로 마음껏 자연엄마가 준 보물들을 만져보고 먹어본다. 또, 눈으로, 마음으로 가득 담아갈 수 있도록 한다. 물론 햇살네 들살림과 집살림 일도 거들어야 한다. 농사일을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자연놀이다. 해질 무렵이면 흙 묻은 옷은 잘 털어 내일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손발을 씻고, 놀던 자리를 정돈한다. 간단한 식사준비도 같이 하고 음식을 먹은 뒤에는 설거지도 스스로 해 본다.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으로 긴 하루를 마무리한다.

부모님이 잘 챙겨주어서 그럴까? 어린 아이들은 자기 소지품을 잘 모르곤 했다. 짐을 쌀 때 아이들과 같이 싸달라고 부탁하지만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준 짐을 그대로 들고 오는 일이 많아서 돌아갈 때는 우리 집에 그냥 두고 가는 살림이 제법 된다. 어쨌든 요즘은 교류학습을 생각하고 캠프에 참가하는 아이들이 1/3 정도 된다. 아이들이 바로 교류학습을 오기보다는 햇살네 집 분위기와 자연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가 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짧은 들살이에서 교류학습으로, 교류학습에서 더 나아가 산골유학으로 천천히 나아가는 중이다.

교류학습을 진행하며

2003년 비밀요원들을 잊을 수 없다. 준비도 제일 많이 했고, 교류학습을 알렸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아이들이었다. 해모수, 아인이, 혜진이, 지수, 도중하차한 수아, 이렇게 다섯 명이다. 해모수와 아인이는 형제이니 부모님 네 분과 준비를 했다.

아이들이 어찌나 개구쟁이들인지 몰랐다. 남의 닭장에 가서 달걀을 꺼내오지 않나, 멀쩡한 남의 집 땡감을 작대기로 꺾어놓고 오질 않나, 밭에 가자하면 힘들까봐 안 간다고 하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갈 땐 다들 어떻게 하면 집에 갈까 연구한 흔적을 일기장에 남겨놓기도 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미리 돌려보내고 싶었던 아이는 남았고, 엉뚱하게도 수아가 부모님을 졸라 중간에 올라가게 되었다. 2주 교류학습은 2006년 봄까지 해서 모두 4차례 진행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류학습의 취지를 잘 알고 계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다.

연도	시기	함께한 아이들
2003	10월 하순	김지수(2), 윤혜진(2), 김아인(4), 김해모수(5), 황수아(3)
2004	11월 하순	이기훈(2), 이재희(3), 곽미래(4), 권예슬(5)
2005	10월 상순	김시아(1), 조유선(1), 윤강현(2), 문지원(3), 김정현(4)
2006	4월 상순	김의로(6), 정바울(4), 노혜수(4)

교류학습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서 3박4일 특별행사인 들살이보다는 내 시간이 많이 생겼다. 아침에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면서 좀 쉬고, 아이들이 돌아올 무렵에는 간식을 준비해 놓았다. 어떤 날은 같이 간식을 만들어 먹고, 들살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필요한 집안일을 했다.

아이들과 2주를 함께 지내는 동안 역시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아이들의 감정적인 독립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 3박4일은 오는 날과 가는 날, 머무는 날은 이틀뿐이니 호흡이 짧지만 1주일도 아니고 2주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처음에 자신 만만하게 왔던 아이도 3박4일이 되면 그리움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차마 말은 못하고 몸으로 아팠던 아이도 있었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우는 바람에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던 일도 있었다.

예) 2005년 가을 교류학습

이것은 아이와 부모님이 미리 각오를 하고 오는 수밖에 없다.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가능하면 아침시간에 하게 한다. 저녁보다는 아침이 새로 시작하는 하루라 아이들이 감정에 덜 치우친다. 부모님이 아이를 보내놓고 같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그동안은 아이들이 첫 주에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그 다음 주쯤 도착하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을 제일 그리워할 때 편지를 받으면 더 좋겠다.

또 다른 행정문제는 급식이다. 도시에 아이들은 지역 교육청 단위로 급식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시골 아이들은 더 많은 비율을 지원받고 있는데, 교류학습 아이들은 마천초등학교에서는 일정기간 위탁받은 아이들이라서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한 끼당 식대 2,500원을 기준으로 급식비를 내고 있다.

작은 변화

교류학습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아이들의 변화, 가족의 변화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아이가 스스로 해 나가야 할 삶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아이가 의젓해져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이 놀려서 힘들었다는 아이도 있다. 이런 경험이 쌓여서 더 큰 변화에 적응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적절한 들살이와 밭에서 거둔 먹을거리로 적절하게 균형을 찾은 듯 돌아간 아이들도 있고, 집보다 입에 맞는 음식이 많아 살이 조금 찐 아이도 있었다. 부모님들도 편식하던 아이, 텔레비전을 유난히 많이 보던 아이들이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을 보고 가정생활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는 분도 있다.

봄이 오면 나물을 하러갔던 기억으로 나물맛을 떠올리고, 여름이면 개울물 속에서 같이 헤엄치던 물고기를 떠올리고, 가을이면 때맞춰 가을걷이를 해주고 산열매를 먹던 기억이 아이들 몸에 마음에 남아있으면 좋겠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제 철에 할 일들을 안다는 것, 이것이 철드는 게 아닐까?

태양이는 2003년 겨울 해모수네 가서 놀다온 이야기를 지금도 한다. 해모수는 자기가 창원 마을에 2주 있었으니 태양이도 2주 같이 지내자 하는 걸 엄마가 1주일만 하자고 했단다. 마을 공부방 아이들이 지금은 다들 커서 중학생이지만 우리 집에 오는 아이들을 이해해주어서 같이 산행도 하고, 물놀이도 가고 그렇게 지낸다. 마을 아이들 공부방은 4년 정도 되었는데 마을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면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신 덕분에 그럭저럭 해오고 있다. 이 아이들에게 사회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는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교류학습을 하는 내 작은 소망이고, 목표다.

마천초등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교류학습으로 머물다 가기도 해서 교류학습이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알려졌구나 생각된다. 앞으로 교류학습 시골유학 오는 아이들을 계기로 시골 아이들도 도시 친구 집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을이 딱히 그리워할 고향이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참고글

‘산촌유학’ 을 제안합니다

▌김일복

불교환경교육원에서 활동하가다 지금은 함양에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격월간『민들레』35호에 실렸던 글을 옮겨 싣습니다.

소다테루와 소중한 인연

그러니까 벌써 한참 지난 2000년 겨울의 일이었다. 아이들과 함께할 자연놀이를 준비하던 참이었는데 일본으로 돌아간 재일교포 오다기리 씨가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 꾸러미를 보내온 것이다. 열어보니 일본어로 된 어느 교육단체의 소개 책자가 들어 있었다. ‘소다테루(育, 키우다)’라는 이름의 단체였다. ‘소다테루’는 간단하게 말하면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산촌유학’을 보내 시골에서 생태적인 삶을 보고 배우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단순히 시골에서 학교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생활 자체가 중요한 학습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끌어주는 걸 핵심으로 삼고 있다. 책자에는 소다테루가 걸어온 30년 길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는데 햇수를 거듭하면서 산촌유학의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지금은 새로운 교육 방식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소다테루를 소개한 자료에 2001년도 캠프 안내문이 있었다. 캠프 일정과 간단한 활동 내용 정도가 적혀 있어서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나도 대충은 해석할 수 있었다. 일정을 확인한 나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다. 캠프가 열리는 2001년 3월은 마침 하던 공부와 일을 쉬기로 한 때여서 시간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온 인맥을 다 동원해 일본행을 준비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옥희 언니가 소다테루와 연락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소다테루에 참가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낯선 이방인의 참가를 기쁘게 허락해 주었다.

캠프는 소다테루와 연결되어 있는 센터 가운데 하나인 야사카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야사카센터는 산중에 자리잡고 있었다. 기차에서 내려 10여 분 가까이 차를 타고 작은 마을을 지나 한적한 길에 이르자 차가 멈춰 선다. 캠프에 참가하려고 온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다. 야사카센터

까지는 아이들 걸음으로 1시간 거리라니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아이들은 모두들 튼튼한 장화를 신고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미리 부모님들께 당부한 결과라고 한다. 나중에 "두 손은 자유롭게" 라는 말을 듣고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다. 두 손이 자유로우니 아이들은 장난을 치기도 하고 들꽃을 따기도 했다. 무엇보다 자유로운 두 손은 산길을 걸을 때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훌륭한 장비 노릇을 톡톡히 한다.

소다테루에서 말하는 시골생활 일 년을 엿보면 이렇다. 홈스테이를 한 히로미 씨의 큰아들 다이치(당시 중학생)에게 물었더니 "시골에서 지낸 일 년 내내 지겹도록 걸었어요." 라는 대답이 먼저 나온다. 아침에 일어나 시내버스가 다니는 곳까지 걸으면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다. 소다테루는 바로 이 걷기에서 출발한다. 최소한 하루에 두 시간을 걷고 많이 걷는 날은 네 시간도 걷는다 한다. 지나가는 차가 태워준다 해도 가능하면 걸어가도록 아이들을 지도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날마다 변하는 주위의 모습을 본다. 어제 피었던 꽃이 오늘 새 꽃을 피우고 이제 막 잎이 나오는 것 같았던 나무가 금세 짙푸르게 변하는 모습을 마음에 담는 것이다. 생물 수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등굣길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요즘 도시 아이들은 걸을 기회가 없다보니 걸음걸이에 힘이 없는데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몸도 튼튼해진다.

일 년이나 머물러야 하니 어디서 지내느냐도 무척 중요한 문제다. 1968년 처음 산촌유학 프로젝트를 시작할 땐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시는 시골집에 아이들을 머물게 했다고 한다. 달리 시설을 마련하지 않아도 손쉽게 시작할 수도 있고, 외롭게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다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어 지금은 서른 명에서 쉰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야시카센터 같은 곳에 머물면서 가까운 학교에 다닌다고 한다.

다이치 동생 유지(당시 초등학교 저학년)는 곧 야시카센터로 가서 지내기로 되어 있었다. 일 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을 걸 생각하면 부모나 아이나 많이 망설일 법도 한데 별 걱정이 없는 듯했다. 한 달에 한 번 부모 방문의 날이 있고 방학은 집에서 보내기 때문이었다. 부모 방문의 날은 달마다 그 달의 자연의 흐름에 맞춰 봄이면 모내기 같은 농사일을 하고, 여름이면 물놀이, 가을이면 수확, 겨울이면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눈이 많이 내리는 나가노 같은 곳에서는 스키를 탄다고 한다.

한국에도 산촌유학을

캠프를 다녀온 뒤로는 '산촌유학' 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당장 센터 같은 건물을 지어야 하는 큰 노력 없이도 이곳 함양 창원마을의 우리 집을 숙소로 제공하고,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이로 나선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겠다 싶었다.

쉽게 마음을 내게 된 것은 내가 살아온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부터 일

년 정도 불교환경교육원에서 자원활동을 했는데, 주로 생태적인 삶을 찾아 떠나는 선재기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을 했다. 시골에서 생태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시골살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따지면 전혀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쁨과 넉넉함을 알게 해준 시간이었다. 선재기행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떠날 때마다 아이들이 같이 따라오곤 했다. 따라온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자연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연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가평에 있던 소나무 자연학교의 도움으로 비정규 프로그램을 일 년 동안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곳 창원마을로 오게 되었다.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덕분이었다. 이곳에 와서는 지리산 자연놀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자연이 보여주는 보물들을 만나고 있다. 지리산 자연놀이 캠프는 아이들과 자연, 그리고 나를 탐험하는 통로 구실을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산촌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고향이 없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을 만들어주고 싶어졌다. '아이들에게 고향을 새겨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줄곧 품어왔던 내 꿈이기도 했다.

감을 씻고 있는 아이와 김일복 씨

일정이 짧은 작은 캠프를 열어 아이들과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던 참에 기회가 왔다. 가까이 있는 마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환학습제도가 있는데, 교환학습에 참여할 아이들만 있다면 마천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해주겠다고 하셨다. 산촌유학 기간은 2주일로 잡았다. 더 길게 하고 싶기도 했지만 첫술에 배부르랴 싶어서 학교에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아이들도 엄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2주일로 결정했다.

우리가 자리 잡은 이곳 경남 함양 마천면 창원마을은 제주도처럼 집집마다 똥돼지를 치며 농사를 자을 정도니 얼마나 외진 마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버스가 다섯 차례 들어오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노란 버스(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 동네 분들은 웬만한 것은 다 집에서 길러 드시기 때문에 별 불편함 없이 살고 계시고 정착한 지 3년째 되는 우리 집의 경우는 수확과 채집으로 먹는 것 정도는 해결하며 살고 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이 없으니 농사일을 거들거나 책을 보며 지낼 수밖에 없다.

산골짝 시골살이 이야기

2003년, 지난해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기록한 글이다.

누구: 황수아(3학년), 김지수(2학년), 윤혜진(2학년), 김해모수(5학년), 김아인(4학년)

기간: 2003년 10월 19일~11월 1일
장소: 햇살 선생님 집과 마천 초등학교

21일 우리는 밭일을 나갔습니다. 서리가 내리면 고춧잎과 고추가 다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밭에 올라가서 파란 고추 장아찌 담을 것 부지런히 따고 온 동네에서 제일 좋은(나중에 알고 보니 비닐로 밑을 덮지 않아서 그렇다네요. 옛날에 비닐 없을 땐 농사 어떻게 지었는지) 고춧잎을 땄습니다. 해가 네 시 반이면 넘어가는 바람에 일찍 들일을 마칠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반 정도밖에 못했답니다. 배추 담는 파란 비닐로 하나는 고추, 하나는 고춧잎을 땄는데 마침 봉기 아저씨가 볏단을 한 가득 싣고 내려가다가 실어주셔서 집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삼아 고구마를 몇 개 캐왔는데요. 아이들한테 속옷 빨래를 해야 고구마를 먹을 수 있다고 꼬셔서 다들 속옷 빨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해모수는요, 오자마자 덕일이네 간다고 갔답니다. 그 집엔 우리 집에 없는 티비와 컴이 있어서 말이지요. 다음부턴 덕일이더러 집에 와서 놀라고 주의를 주었지요. 해모수더러 저녁에 속옷 빨래를 하라 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 하네요.
어젠 별 사고 없이 잘 넘어 갔냐구요? 아니지요. 덕일이와 힘 좋은 사내 녀석들, 물론 여자아이들도 베개 싸움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전구가 깨질 정도였나 봐요. 온 방에 깨진 전구 조각들이 있으니 어쨌겠어요, 자기들이 먼저 자수했죠. 일단 저희 남편 '나무꾼' 이 아이들에게 치우라고 하고, 저는 이 녀석들 흐트러진 마음을 어찌 잡나 고민에 고민을 했죠. 사고는 마음이 흐트러질 때 일어나잖아요?

22일 저도 아침 시간에 너무 서둘러봐야 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느긋하게 일어나 고구마 삶고 아이들 깨워 세수하라 이르고(어제는 급하게 가다보니 아무도 세수와 양치질을 않더라구요) 어찌어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았지요.
오늘은 모두들 일찍 오는 날이라 고구마 캐러 가기로 하고 아이들 오기를 기다렸는데 모두 손에 라면땅 비스무리한 걸 들고 있길래 웬 거냐고 물어보니 수아가 한 방 쐈다구 하더군요. 용돈 남은 건 잠시 제게 맡겨놓으라 하고 고구마 캐러 밭으로 향했습니다. 안 간다고 하는 아이는 없었냐구요? 물론 하나 있었죠. 어제 밭에 안 간 해모수가 속옷 빨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덕일이네 가서 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서울 가는 짐 싸든지 밭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극약 처방을 내리자 겨우 따라나서는 해모수, 진짜 강적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어제 밭에서 수확의 손맛을 본 이상 안 갈 수가 없죠.
해가 지고 있어서 많이 추웠지만 고구마 캐는 아이들, 그리고 저와 함께 고구마순 다듬는 아이들 모두 재잘재잘 재미나게 일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비도 맞고, 햇살이 숨어드는 것도 보고, 매섭게 몰아치는 바람도 맞으며 어찌어찌 한 시간 만에 고구마를 캐고 달리다시피 내려오니 언제 추웠냐 싶게 땀이 납니다.
29일 아이들이 드디어 교환학습 말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이불 개지 않기(학교 가

기 바빠서), 손으로 속옷 못 빨겠다며 세탁기 돌리기, 다 같이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하기, 갈 수만 있다면 집에 가고 싶다고 외치기.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내놓고 집에 가져갈 선물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여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오늘 하기로 한 일은 나무도감 들고 산으로 가 산책을 하면서 고욤나무 가지를 베어 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윷가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날이 추워져 모두들 단단히 중무장을 하고는 구기자, 찔레 열매, 노박덩굴 열매, 고욤 같은 새들이 좋아하고 사람 몸에도 좋은 열매들을 따서 맛보구요. 상수리나무, 밤나무, 오동나무, 호두나무, 두릅나무, 리기다소나무, 일본잎갈나무, 뽕나무, 칡덩굴, 느티나무, 고리버들, 싸리나무, 조팝나무…. 도감을 찾아가며 좋은 공부를 했지요. 물론 고욤나무 가지도 톱으로 베어 왔구요. 고욤은 서리를 덜 맞아서 아직은 무척 떫은데 제법 까맣게 된 녀석들은 먹을 만합니다. 개울을 건너며 개울물도 마시고 칡넝쿨로는 둥그런 장식도 만들어보고 콩밭을 만나면 콩도 주워가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홍시 천지입니다. 감나무 밑을 샅샅이 뒤져 찾은 홍시를 맛나게 발라먹는데요, 벌레가 꼬일 정도면 정말 맛난 홍시입니다. 처음엔 떨어진 홍시 지저분하다고 쳐다보지도 않더니 지금은 없어서 안 달입니다.

지수가 자기는 정말 호박죽을 좋아한다 해서 늙은 호박을 하나 쪼개서 삶아 놓고 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하루 종일 눈물 글썽이는 지수에게 보내는 햇살의 사랑입니다. 지수가 맘껏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산촌유학은 어떻게 하나?

이곳에서 가을 한나절을 보내는 산촌유학에 동참하려면 먼저 교환학습 참가신청서를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여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는 학교마다 교환학습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사례가 없다보니 공문양식부터 만들어야만 했다. 그렇게 교환학습 신청서를 만들어 보내오는 탓에 신청서가 오는 데만 족히 일주일이 걸렸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친척집에 머무른다고 쓰고 학교에 제출한다. 현행 교육법으로는 친척집에서 머무르는 경우에만 교환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마천초등학교로 교환학습 신청서가 오면 담당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과 상의한 다음에 교환학습 수락서를 아이가 다니는 도시학교로 다시 보낸다. 아이가 머무르는 2주일간의 급식비를 교환학습 하는 동안 다닐 학교에 지불하면 아이가 다니고 있는 도시학교에서는 그만큼의 급식비를 되돌려준다고 한다. 지난해 이렇게 한 엄마는 딱 한 분 계셨다.(다들 미안해서 급식비를 돌려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마천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교감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들렀다. 올해도 교환학습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엔 안전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아이들 학습효과에 감동하셨는지 허락해주셨다. 올 가을에도 2주 정도 해서 경험도 쌓고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차 기간을 늘여 한 달, 한 학기, 더 나아가서는 일 년 과정도 해

보고 싶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걸 지켜보듯이, 30년 뒤 우리 마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며 난 오늘도 이룰 수 있는 꿈을 지켜본다.

얼마 전 새침데기 형은이 일기장에서 수줍은 마음을 읽었다.

"햇살 선생님, 저도 지리산 소녀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미 '함양군 마천면 창원마을' 이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우리나라 사례2

상주 웃늘티에서 시작하는 '산골유학'

▌이명학

여덟 해 전 경북 상주시 화북면 웃늘티 고향마을로 귀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상주와 문경, 괴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에 관심 있는 귀농자들과 함께 산골유학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nongsachul@hanmail.net

지금 농촌마을은 노인 분들만 외롭게 남아 있다. 우리 가족처럼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해서 마을을 위해 무엇을 시작하려고 해도 같이 할 사람들이 없어 막막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농촌을 살리자고 다들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농촌을 살릴 사람은 농촌에서 살고 있지 않다. 나날이 농촌은 늙어가고 비어만 간다. 이런 때에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마을에 장기간 머물면서 시골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산골유학은 농촌마을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작은 시골학교를 살릴 수 있다. 비어가는 농촌에 사람들이 드나든다는 것만으로도 반갑기 그지없다. 일단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농촌을 먼저 살릴 것인지, 시골학교를 살릴 것인지 의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머물 곳과 일자리도 걱정이지만 결국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포기하는 걸 여러 차례 지켜보았다. 지금 농촌은 사람들의 온기가 그립다.

산골유학으로 도시 아이들이 내려오면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골학교에서는 정원수가 늘어나고, 농가나 센터에서 머물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들이 마을로 찾아와 바쁜 일손을 돕거나 농산물을 사 주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상주 화북 지역에서는 귀농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산골유학을 시작하려고 한다. 상주를 넘어 문경과 괴산 같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들과 함께 왜 아이들은 시골에서 자라야 하는지, 생태적인 삶이 왜 좋은지,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

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한다. 이 산골유학이 정착되면 도시의 아이들은 생태적인 삶과 품성이 길러져서 좋고, 제 또래 아이가 없어서 심심했던 산골아이들에겐 친구가 생겨서 좋고, 지역도 살리고 농가의 살림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목표

1. 행사 치르기 식의 짧은 자연생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실제생활 전반에 걸쳐 넉넉한 시간을 가지며 이해하게 하고 피부로 느끼게 한다.
2. 농촌을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과 학교와 농가가 결합하여 미래의 농업, 농촌을 준비한다.
3. 지역학교의 인원감소로 폐교에 대한 불안함을 고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농촌지역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보다 희망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간다.

기대 효과

1.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아이들이 함께할 또래가 없어 어려운 실정에 함께 할 친구들을 도시에서 받아들여 장기적인 시간 속에 도시와 농촌 아이들이 다함께 배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2. 자녀교육 때문에 귀농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교육을 일구어 내는 교육주체로써, 귀농' 의 한 형태로써 귀농자 유치를 끌어낼 수 있다.
3. 고령화와 이농의 확대로 젊은이의 유입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 살리기에 기여한다.
4. 산촌유학을 통한 지역연구와 생태적 가치의 조사가 축적되고,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5. 산골유학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과 적극적인 대응은 도시민에게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재

창출을 되며, 지역간의 비교를 통하여 각 지역 지자체의 농업, 농촌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산골유학을 수행하는 농가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기본계획

1. 공교육 시골 학교에 대한 인식전환에 따른 변화를 끌어내기.

_작은 학교를 살려내고, 지역의 활성화, 농촌공간을 교육문화 공간으로 확대한다.

_공교육 시골학교를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시도를 하게하여 주변의 생활을 자원으로 이끌어 내도록 유도, 홍보한다.

_시골학교가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우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지역과 밀접하게 교류해 나가도록 한다.

2. 지역학교가 시골마을에서 열린 교육공간으로 제 구실을 하게 한다.

3. 교육을 고민하는 귀농자들이 마음 놓고 귀농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이를 통한 생계에도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어 귀농의 새로운 지평(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의미의 귀농)을 열게 한다.

4. 교육을 통한 공간으로서 시골로 탈바꿈 하도록 한다. 이로써 공적인 가치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실제 '돌아오는 농촌' 을 만들어 낸다.

준비단계

1. 산골유학을 담당할 귀농자들을 찾고, 신규 귀농자를 알선하여 화북 지역으로 안내한다. 주변 귀농자를 중심으로 전체모임을 갖고 산골유학의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의미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준비위 결성을 돕는다.

2. 소규모 산골유학을 담당할 지역 귀농자와 귀농 예정자들을 모으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모임을 결성한다.(1차 10농가 미만) 아울러 산촌유학의 개념에 걸맞는 활동을 수행하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과 삶에 방식에 대한 교육과 준비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사람을 확보, 구성하는데 노력한다.

3. 이 지역으로 산골유학 보낼 학부모들을 미리 모아서 꾸준한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는다.

_산골유학 설명회 개최

_산골유학 맛보기 계절별 캠프(참여 예정 아이들을 3박4일간 화북초, 중등학교에 등교)

_농가에 적응하기(개인별 1박2일)

_도시 학부모님들과 지역 준비위 만남의 날 개최.

4. 화북본교, 용화분교, 입석분교 지역의 사택을 임시거주지로 활용할 수 있게 설득하고 시설을 보완하도록 교육청에 부탁한다. 비어 있는 사택을 이용하면 4가구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을 알아보고 산촌유학을 담당할 귀농자를 유치한다.
_화북 지역 농촌체험마을 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우선 활용하여 당장 필요한 시설의 열악함을 보완해 나간다.
5.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산골유학이 귀농의 방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본 안내와 소개를 꾸준히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
6. 상주교육청과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산골유학에 따른 지원과 협조 방안을 구하고 홍보해 나가는 활동을 한다.
7. 상주시의회와 상주시청을 방문하여 귀농자 유치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산촌유학 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상주시 화북면이 산촌유학을 담당하는 특구로서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
8. 이곳은 귀농자가 많아서 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나, 시골집의 특성상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리와 보수를 하여 불편이 없도록 가옥 구조의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9. 우리 집은 빈집을 임대하여 8년째 살고 있는데, 농가 구조상 여러 명의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집을 그대로 사용하고, 새로 짓고 있는 집은 산골유학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공사는 빠르면 올해 안이고, 늦으면 2007년 5월중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홍보

- 다양한 방법으로 산촌유학을 생각하는 이들을 모으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문의하는 이들에게 보내주고 상주로 견학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상주 화북 지역 '산촌유학지원자 모임' 을 만든다.
- 상주 화북 지역 산촌유학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장기 계획

1. 산촌유학을 담당할 귀농자 확보(이명학 외 3가구)
2. 이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작업.
3. 학교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이해를 구하여 교사들에게 '산촌유학의 의미와 필요성' 에 대한 세미나를 연다. 9월 내에 실시한다.
4. 화북초등학교 강당에서 '산촌유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일본 산촌유학 실태의 영상자료 상영, 일간지나 월간지 교육잡지에 홍보하여 관심 있는 이들이 산촌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5. 우선 몇 가정부터 이를 수행하도록 하며 홍보해 나간다.
6. 이곳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생태지도를 만들어 산촌유학 지도를 만들어 내고, 이를 홍보자료로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7. 이 지역 산촌유학을 통하여 공교육학교를 바람직한 지역 학교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중을 두고 실시한다.

긍정적인 조건

1. 화북초등학교에서 저 이명학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산촌유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반응도 좋아서 쉽게 시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2. 학교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과 유정란 같은 건강한 급식을 먹이고 있다.
3. 학교 내에서 해마다 '여름 생태 캠프'를 열고 있는데, 이때 도시 학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4. 무엇보다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있어 산골유학을 하는데 좋은 조건이다.
5. 지역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의지가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동참하는데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6.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귀농자들이 가까이에 많이 있다.
7. 친환경농업과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많아서 새로운 교육의 길을 찾는데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이것을 잘 배치하면 놀라운 생태교육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산골유학은 하루아침에, 몇 달 안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시골마을에 아이들이 몇 주나 몇 달 동안 머물면서 지역 사람들과 만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야 지역 어른들은 왜 아이들이 이곳에 올까를 궁금해 할 것이고, 그제야 산골유학이 뭔지를 생각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도시로 돌아가서 훌쩍 자라서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사는지 본 뒤에야 도시 부모들은 산골유학이 아이의 정서에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되새기게 될 것이다. 한편 시골 아이들도 더 높은 학교를 진학하거나 도시에서 보금자리를 틀고서야 어릴 적에 만났던 도시 친구의 행동과 문화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골학교와 지자체 역시 시골마을이 북적거리면서 뭔가 꿈틀거리는 것을 확신하고서야 지원을 약속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산골유학을 시작하려는 지금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미래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는 산골유학은 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좀 더디 가더라도 찬찬히, 땅을 다지고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하다. 그리고 좋은 기둥과 대들보를 세우고 지붕을 얹어야 한다. 이 더디고 힘든 일에 뜻있는 좋은 분들이 함께 손잡아 주기를 기다린다.

참고글

귀농과 산골유학

▌이명학

상주와 문경, 괴산 지역 귀농자들과 함께 산골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귀농운동본부와 손잡고 산골유학 일을 벌이기 위해 「귀농통문」 통권 39호에 일본 다녀온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nongsachul@hanmail.net

얼마 전 일본을 다녀왔다. 촌에서 무슨 돈이 있어 갔다왔겠는가 궁금하겠지만, '민들레'가 일을 꾸미고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다녀온 것이다. 총 7명이 팀으로 구성되어 일주일간 다녀왔는데, 그 팀의 일원으로 귀농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떤 놈은 팔자도 좋지, 외국도 다 기어나가 보고. 참 부럽다 부러워!" 이런 말을 하실 분들이 버글버글하게 많을 것이다. 그러나 바쁜 농사철 논에 물꼬도 살펴야 하는데 일본출장을 결심한 것은 나름대로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상주 화북의 이명학 씨 집

산골유학이란 말은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말이다. 일본에서는 '산촌유학'이라 부르는데, 이미 30년 전에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용어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일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나는 '산골유학'이라고 하고 싶다.

산골유학은 도시나 타 지역 아이들이 개별농가나 센터에 장기간 머물면서 그 지역의 초중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나 휴일에는 그 지역의 문화와 생태적인 감수성을 느끼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흔한 것인데 호들갑을 떤다는 이가 많을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2박3일 체험학습과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나 내용은 많이 다르다.

작은 학교 살리기에서 지역 살리기로 결합

일본에 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우리나라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의 농촌 상황과 경제 여건, 기술센터나 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나 내용들이 일본의 10년 전 상황과 너무나 닮은꼴이란 것이었다. 닮았다는 것에 열을 받기도 했지만 이 흐름을 잘 파악해 보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일본 농촌이 힘들어지고 이농이 심해져 마을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아이들도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얼마 되지 않아 학교는 폐교되거나 흡수통합되는 마지막 단계였다. 이런 때에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가 갔던 오오카 지방은 귀농자가 살 수 있는 집 50채를 지어 분양하거나 지원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인구 유치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마을에서 오래 전부터 해오던 작은 학교 살리기도 설득력을 잃고 만 것이다. 아무리 학교가 지역에서 소중하다고 하지만 학교에 다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는 속수무책, 이것도 한계에 온 것이다. 이러던 차에 산촌유학이란 개념이 쉽게 결합하고 확산되었다. 그 지역 마을과 지자체, 학부모와 학교가 만나서 농촌의 공간을 교육의 공간으로 바꾸어 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제 폐교는커녕 학생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덩달아 학교교육 예산도 점점 늘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일이 생겨날 줄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는가?

이런 결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금부터 34년 전, 아오키라는 젊은 교사가 암담한 교육 현실에 고민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소다테루카이' 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산촌유학을 시도하였다. 이후로 한 20년간 산촌유학은 빛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미친 놈!" 소리를 듣거나 "누가 농촌으로 유학을 오겠느냐?" 며 빈정거리거나 터무니없는 발상이라고 혀를 차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농촌이 무너지기 시작한 10여 년 전부터 산촌유학은 일본 전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몇 명 되지 않는 시골학교에 외부아이들이 들어오면서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생겨나고 도시 학부모님들과 교류가 일면서 '도농교류' 라는 말을 구태여 쓰지 않아도 교육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공교육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첫 번째 변화는 대도시로 출근하던 교사들이 그 지역에 자기 가족들과 함께 와서 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비율이 예전에 비해 60~70%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두 번째 변화는 지역과 학부모와 관계가 빈번해지면서 저절로 신뢰의 싹이 트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시골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만큼 아이들이 늘어나 다양한 시도와 체험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언제 폐교 당할까?" 하는 위축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오히려 교육청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교사와 아이들이 즐겁다는 것 말고도 산촌유학을 통해서 마을에도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본에 가기 전에 품었던 의구심 중 하나가 "농촌이 언제까지 도시인 뒤치다꺼리나 하며 지내야 되나"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걱정도 말끔히 씻을 수 있었다. 농촌이 붕괴되면서 농가가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몇 십리 가야 한두 명씩 있을까 말까 하다보니 친구들이 없어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산촌유학 온 아이들이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친구들로 자리매김이 되고, 유학 온 아이들은 생태적인 삶을 사는 농가에 머물며 생태적인 품성이 길러져서 좋은 것이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혜택을 베푸는 방식이 아니라 동등한 필요와 충족이 만난 것이다.

산골유학의 핵심

생태교육이란 이벤트나 짧은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을 직접 보면서 함께 지내고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기도 하고, 몸이 이를 실천하게 하면서 "왜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를 생활 속에서 던져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농촌에 사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산골이 좋다고 해서 집단수용 시설에서 1박2일로 생태교육을 한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거의 발광에 가까운 짓이라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터였다. 그러한 문제들로 일본에선 이미 오래 전에 센터에 머무는 전체 기간 중 1/3 이상을 반드시 개별 농가에서 생활하게 한다. 개별 농가에 주소를 이전하여 1년씩 머무는 아이들에겐 별 문제 없지만 센터에 머무는 중, 장기간 아이들은 농가체험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의무적으로 주변의 개별농가 생활체험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는 일본 산촌유학에서 아주 중요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었다.

개별 농가에서 생활

야시카 지방에서 산촌유학을 25년간 해온 스바(80) 씨 부부를 만나보았는데, 배울 점이 참 많았다. 농가에서 산촌유학의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모두가 그 농가로 1년간 주소를 이전해서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선 생활면에서는 아이들에게 방 청소를 해준다거나 이불을 개어주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가능한 주체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곳에서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윽박지르거나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실이 궁금하여 아이들 방을 가보니 치워준 흔적이 없었고, 이불도 개지 않고 학교에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할 때가 되면 다들 알아서 잘 할 텐데 뭐 하러 잔소리를 하느냐?"

물론 정리를 깔끔하게 해 줄 수도 있지만 산촌유학의 의미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말이다. 이곳에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향수병인데, 2개월 정도 엄마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엄마도 반드시 편지를 써서 아이들과 소통하게 하는데, 그 동안 별짓 다해 보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한다.

산촌유학 온 아이들 7명을 받고 있는데 초등이 4명, 중등이 3명이라고 한다. 매월 이곳에 머무는 비용으로 55만 원에 60만 원 가까이 받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월 350만 원 이상이 월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수입이 거의 전부라고 한다. 이것으로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해 오고 있다고 하며, 공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셨다. 마을에서도 환대와 인정을 받고 계셨다. 아이들에게도 도움 되지만 산촌유학을 수행하는 농가에도 절실한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에 눈이 번쩍 떠졌다. "이것도 역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야 지속성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농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산촌유학 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농가 평수가 넓으면서 아이들이 다니는 출입구가 어느 정도 개별화 되어 있고, 화장실은 수세식 비데를 설치해 두었다. 남자, 여자 방이 구분되어질 뿐 저학년과 고학년이 한 방에서 생활한다.

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산촌유학 초기부터 이 센터 개념이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농가에서 산촌유학을 수행하다 보니 친척의 잔치나 행사도 가야하고, 가끔 여행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참으로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득불 자리를 비울 때 농가를 지원하는 센터의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과거 센터가 없을 때에는 3~5년 정도 산촌유학을 하다가 중도에 힘이 들고, 개인적인 생활에 아이들 때문에 부담이 되어 손을 드는 이가 많았다. 그러나 센터가 생긴 뒤로 개별농가가 자유로워지고 내용도 더 풍부해졌다. 센터에서는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1년 단위로 하며 방학 때나 휴일을 이용하여 농가의 산촌유학 아이들과 센터 아이들, 그리고 지역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간 역할을 이 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놀란 것은 그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들을 발굴하고, 이것을 아주 큰 지도로 만들어냈고, 자료화시켜 언제 어느 때라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다는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던가? 어디 그뿐인가. 지역에서 자연을 이용하여 놀 수 있는 놀이감 소재를 이 잡듯이 뒤져서 체계화한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었다. 이러한 모든 소재를 가지고 관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호의 주체로서 보호를 하며 생활한다는 것이다.

이곳 센터에서 생활하는 외부 아이들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점점 긍정적인 관심을 보

이기 시작하다가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 주세요." 라는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지역의 아이들 때문이라도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곳이 되었다.

산골유학은 귀농의 한 목표가 될 수 있어

어쨌든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나라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짧지만 8년이란 시골살이의 내 경험과 다가올 농촌미래를 살피건대 누군가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이것을 부여잡고 이 지역에 맞는 한국형 산촌유학의 작은 모델을 만들어 볼까 한다. 아니 상당한 부분의 변화이기도 하고 또 다른 시도여서 걱정되기도 하지만,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무척 설렌다. 마치 빈둥빈둥 놀다가 이제야 해야 할 큰일을 찾은 것처럼 말이다.

물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도 있다. 산골유학과 자립적인 생활을 가르친답시고 "냉장고에 반찬 있고 밥통에 밥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차려 먹어라" 하고 방치해도 안 되고, 자연교육을 한답시고 밭에 가서 콩밭만 죽어라 매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귀농생활 전반에 걸쳐 산골유학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빈집을 임대해서 살아온 지도 8년이 지났다. 그래서 조그만 집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왕 지을 거라면 산골유학하기에 걸맞는 설계를 생각하고 집터를 닦기로 했다. 집사람도 귀농 8년이 지나서 집을 짓고 산골유학도 해보겠다는 기대에 들떠 있다. "쓰레기차를 피하려다 똥차에 치인다" 는 말을 속으로 생각하며 걱정도 되지만 집사람은 그저 좋단다.

산골유학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귀농학교를 수료한 귀농자나 예비귀농자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것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도시의 삶을 잘 이해하는 귀농자의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 귀농을 망설이느냐" 고 물어보면 이것저것 사방팔방으로 말을 빙빙 돌리다가는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과 자식교육 때문" 에 못 내려간다고 하는 분이 아주 많다. 그런 분에게 산골유학이 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생활과 결합되어진다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다. 산골유학에 관계된 자료를 꽤 많이 확보해 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바란다. 뜻을 함께 하면서 산골유학의 주체로서 귀농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하여 농촌이라는 공간을 바람직한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큰돈을 못 벌지만 산골유학을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는 방편도 되고 말이다.

이제 주체적이고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이들이 그 삶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자라나야 한다. 교사나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 귀농인들이여! 이제 방방곡곡에서 다함께 일을 저질러 보자!

생태교육 활용하기

산골유학과 생태교육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박경화

일본 연수를 함께 다녀왔고 격월간 『민들레』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

아이들은 씨앗과 같은 존재다. 지금은 작고 둥근 어린 씨앗이지만 어떤 흙을 만나 어떤 물과 햇빛을 머금었느냐에 따라 튼튼한 싹이 될 수도 있고, 가늘고 약한 줄기로 자라 이내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 수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품고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 보는 것은 튼튼한 싹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성적이 좋은 학교, 족집게 학원과 과외가 가르쳐 주는 얕은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인생을 선택하고 직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이들이 자연을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람은 모두 자연이 있어 생겨났고, 자연 속에서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얻고 있고, 집 또한 자연의 재료에서 나왔다. 그 가운데 사람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은 자연은 가끔 놀러가는 곳이고, 산은 고기 구워 먹으며 노래 부르는 곳, 물고기는 문방구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연과 사람은 단절된 관계, 또는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이들이 일정기간동안 산골마을에서 머물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를 만드는 산골유학은 이런 도시 아이들에게 공동체 생활과 더불어 생태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준다. 여행이나 친척집 방문, 여름캠프 같은 행사를 통해 자연을 만날 수 있었지만 산골유학은 그저 며칠 체험이 아니라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천천히 그리고 감동 깊게 느끼게 해 준다. 또,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이 몸으로 배우고 겪은 것은 어떤 자세한 설명으로도 가르쳐줄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변화 역시 가장 빠른 시기다.

우리 환경교육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햇볕 따가운 여름마다, 계절마다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캠프들이 열리고 있다. 유명한 산과 골짜기, 강과 바다, 갯벌, 야영장과 캠프장에서 '환경교육과 생태교육, 생명교육'의 이름으로 학

교와 환경단체를 포함한 많은 행사들이 마당을 열고 있다. 자신의 체력과 한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국토순례, 생태계의 생물종다양성을 깨닫게 해 주는 생태캠프, 계곡과 숲에서 뛰놀면서 자연의 감수성을 배우는 어린이자연캠프, 먹을거리의 소중함과 농부들의 어려움을 배우고 체험해 보는 시골캠프 같은 다양한 캠프들이 마당을 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환경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 나와 세상의 관계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땀을 흘렸고,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그 뒷면에 이런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1. 일회성 교육이 많다. 내년이나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
2. 한번 체험해 보는 겉핥기 프로그램이 많다. 본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기엔 체험기간이 너무 짧다.
3. 프로그램을 마치면 쓰레기가 되는 준비물, 아까운 줄 모르게 넘쳐나는 기념품이 많다.
4. 수십 명이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옮겨 다니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다.
5. 교사 몇 명이 수십 명 아이들을 줄 세우고 통제하느라 아우성이다.
6.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거나 무허가 건물에서 숙박하면서 안전문제가 걱정된다.
7. 교육효과보다는 아이에게서 잠시 벗어나고픈 부모들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8. 다양한 단체들이 주최하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은 비슷하다. 차별성이 없다.
9. 기업의 로고가 넘쳐난다. 기업들이 환경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산골유학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산골유학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가장 큰 차이점은 머무는 시간이다. 도시에서 부모가 정해준 일정대로 학교와 학원, 문화행사, 과외공부로 틀에 박힌 생활을 하던 도시 아이는 산골에서 한 달이나 일 년 가까이 머물면서 다른 삶과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도시와는 다른 산골의 생활을 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왜 사람이 노동을 해야 하는지, 자연과 사람은 어떤 것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고, 시기가 아주 중요한 농사일을 해 보면서 계절의 흐름과 농부들의 바지런함도 자연스레 배우게 된다. 또, 혼자서는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고, 우리가 날마다 받는 밥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스며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산골유학은 며칠동안 큰 행사 치르듯 한바탕 끝나버리는 환경캠프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그리고 캠프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법도 보여주고 있다.

1.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지역을 이해하게 한다.

2. 자립하는 아이를 길러준다. 부모 곁을 떠나 청소와 빨래, 정리를 스스로 하며 요리와 농사일도 돕는다. 학교 숙제 역시 스스로 해결한다. 자신의 일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3.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2박3일, 2주, 한 달, 일 년 같이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준비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기간이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주말 프로그램을 먼저 경험한 뒤 조금씩 장기 프로그램으로 늘여갈 수도 있다.

4. 농가 어른들을 실습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다. 먹을거리 만들기나 농사일을 거들면서 일도 배우고 협동작업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해하게 해 준다.

5. 지역마다 다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늪이나 갯벌이 있는 곳은 습지교육, 깊은 산이 있는 곳은 숲과 야생동물 교육, 너른 들판에서는 야생화 교육, 농가에서는 농사교육, 집짓기, 동물 돌보기 같은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

6. 지역학교에 배우는 아이들 수가 늘어나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는 부모들이 드나들면서 지역경제 역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

7. 도시 아이와 지역 아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다. 또래 친구들이 많지 않아 외로웠던 지역 아이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도시 아이를 통해 너른 세상을 간접경험 할 수도 있다.

8. 도시 아이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 생긴다. 지역 아이들과 좋은 친구나 형제관계가 맺어지기도 한다.

9. 아토피와 천식 같은 도시의 병을 치유하고, 공부와 경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의 병도 치유할 수 있다.

10. 아이들이 자라 진학을 고민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도시에서 내려온 아이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할 농가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우리보다 앞서 산골유학을 시작한 일본 산촌유학의 기본은 등하교길 아이들의 손에 아무 것도 들게 하지 않는 것이다. 가방은 등에 메고, 비 오는 날은 우비를 입혀 우산도 손에 들게 하지 않는다. 학교를 오가는 길에 아이들은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풀을 만지고 흙을 만지고, 물에 적시면서 호기심을 키우고 스스로 놀이를 찾는다. 만지고 흔들고 옮기면서 손의 촉감을 느끼고, 자연의 생명체들이 보여주는 삶의 지혜를 배운다.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지역 마을에 머물면서 친구들과 더불어 아이들은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고 느낀다. 그리고 초록이 둘러싼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낀 사람이 저절로 자연을 아낄 줄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소중한 경험은 아이가 자라 직업을 선택하고 인생을 결정하는데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

어서 아이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 그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농가의 생활을 배우게 하는 방식이어도 좋다.

1. 자립하는 아이

- 아이들이 일어난 이부자리를 스스로 정리한다.
- 방과 마루, 마당 같은 공동공간 청소도 아이들이 스스로 당번을 정해서 정리한다.
- 손빨래도 스스로 해 보고, 세탁기 돌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
- 숙제는 어른이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챙겨서 준비하고 공부한다.
- 동생이나 나이 어린 아이를 도와주게 한다.
- 어른은 아이가 물어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정도만 해 준다. 필요한 일은 스스로 챙기게 한다.
- 마을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 도시에서는 점점 사라지는 풍경이지만 이웃을 만들고 공동체에서 어울려 사는 첫 걸음은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2. 노동하는 아이

- 닭이나 오리, 강아지, 고양이 같은 동물의 먹이를 아이에게 책임을 맡긴다. 닭이 낳은 달걀을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챙기고, 토끼의 먹이를 들에서 직접 뜯어온다. 사람이 날마다 세 끼 밥을 먹어야 하듯 동물을 맡아 돌보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 텃밭에서 오이나 상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직접 키워 본다. 거름을 주고 밭을 갈고, 봄에 씨앗을 직접 심어 싹을 기다려 보게 하는 것도 좋다. 채소와 과일도 직접 수확해 본다. 농업의 어려움과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수확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
- 채소 다듬어 씻기, 콩 까기, 과일 씻기와 껍질 벗기기 같은 간단한 요리도 해 본다.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밥 하는 법도 가르친다. 그리고 점점 설거지와 뒷정리도 가르친다. 밥상을 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손길이 필요한지, 준비와 뒷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 두부 만들기, 묵 쑤기, 떡 만들기, 된장 고추장 담그기 같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요리에도 함께 참여한다.
- 고추 심기, 모내기, 수확한 농산물 포장하기 같이 일손이 필요한 공동작업에 아이들이 제 몫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다.
- 농기구를 챙기고 정리한다. 호미와 삽, 괭이 같은 농기구를 잘 정리해 두어야 다음날 농사일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숫돌로 직접 칼이나 낫을 갈아보게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연장을 잘 다루어야 다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고 계속 손질해야 오래 쓸

수 있다는 절약정신도 심어줄 수 있다.

- 군불 지피기를 배우게 한다. 방을 덥히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가 필요한지, 방을 덥히면서 물을 끓이고 소죽을 끓이는 옛 어른들의 에너지 활용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땔감에 따라 불을 잘 지피는 법도 가르치고, 불조심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준다.
- 옷 만들기, 농기계 수리, 보일러 놓기, 집짓기, 마을잔치 준비 같이 아이들이 해 보기엔 벅찬 일이라 하더라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간단한 일을 도울 수 있게 한다. 쉬운 일부터 찬찬히 시작하다보면 점점 큰일을 할 수 있고, 협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울 기회를 준다.
- 농사일과 노동을 가르치는 것은 마을어른 누구라도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생각도 갖게 하고,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도 될 수 있다.

3. 생태감수성 있는 아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며 아이들이 저절로 느끼는 것도 많지만 지역에 있는 환경교육 단체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다. 아이들이 지역의 농가에서 머물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생태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면 자연생태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도시 부모들은 지역특성을 살린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더욱 반길 것이고, 지역에서 외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단체는 일정기간 동안 머무는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면서 더 깊이 있는 심화 프로그램을 열 수도 있겠다. 아이들은 얼굴을 익힌 강사 선생님과 편안한 마음으로 놀이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깊은 산이 있는 마을이나 강을 끼고 있는 마을, 갯벌과 바다가 있는 마을 같이 지역의 특징을 잘 살려 지역을 이해하는 마을단위 프로그램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다. 도시 부모가 달마다 내는 참가비를 활용해서 환경단체와 공동 진행해도 좋고, 생태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만 강사로 초청해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마을에서 나무의 지혜를 잘 알거나 물고기를 잘 아는 어른이 강사로 직접 참여해도 좋다.

일주일에 하루나 주말 같이 꾸준히 열리는 프로그램도 좋고, 공휴일을 포함한 2박 3일이나 방학 때 일주일 같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열어도 좋다. 이 때 지역 아이들도 참여시키고, 산골유학에 관심 있는 도시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도시의 단체나 관련 잡지에 홍보한다. 생협 같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나 학부모 단체,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환경단체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집중 홍보한다.

이런 도시의 단체와 지역의 한 마을이 공동으로 손잡고 산골유학을 진행해도 좋겠다. 정해진 산골마을에 자주 드나들면 아이들은 마음의 고향이 생기게 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지역의 사람들 역시 공감대가 형성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을 수

있겠다.

도시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 소비자단체, 농가와 농촌마을, 그리고 환경교육 단체, 이 삼자가 함께 손을 잡는다면 산골유학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쉽게 소통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소비자단체는 도시의 부모와 아이들에게 산골유학을 홍보하고, 참여한 뒤 경험을 알리고, 농가에서는 아이들을 맡아 생활하고, 환경교육 단체는 생태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여는 일을 맡는다. 이렇게 구성된다면 더욱 안정감 있고 지속가능한 산골유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생태프로그램을 열 수 있을까?

장소

- 숲과 계곡: 숲의 천이와 역할 배우기, 숲 체험놀이, 나무 종류 배우기, 나무의 쓰임새…
- 습지와 생물: 올챙이와 개구리 관찰하기, 습지식물 살펴보기, 논에서 사는 생물 배우기, 개울에는 누가 살까…
- 들판: 풀과 꽃 관찰하기, 계절에 피는 야생화, 잡초의 지혜, 자연노래 부르기…
- 동굴탐사: 석순과 종유석 같은 동굴의 특징 배우기, 동굴에 사는 생명 배우기…
- 흙: 흙의 종류와 성분,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땅과 농사, 흙과 생명체의 관계…
- 별자리 관찰하기, 밤에 활동하는 곤충 관찰하기

생명체

- 곤충: 곤충의 종류 알기, 그림 그리기, 나무곤충 만들기, 곤충놀이 배우기…
- 야생동물: 이름과 종류 알기, 발자국과 배설물 배우기, 깃털 살펴보기, 울음소리 구별하기, 동물노래 부르기…
- 물과 물고기: 개울에 사는 물고기, 물풀, 물고기의 먹이와 종류, 물의 오염과 정화시키는 힘, 물가의 돌, 흐르는 물 따라 달려보기…

놀이

- 계절놀이: 봄나물 캐기, 멱감기, 썰매타기, 밥 줍기, 모깃불 피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공동체 놀이…
- 요리: 야외에서 밥 짓기, 봄나물로 요리하기, 버섯, 산나물, 도토리 같이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 배우기…
- 전통놀이: 윷가락 직접 만들기, 팽이 만들기, 연 만들기, 썰매 만들기…
- 집 만들기: 야생동물들이 둥지를 만들듯 자연의 재료만 가지고 아이들만의 집짓기.
- 음식찌꺼기 활용하기: 동물의 먹이로 주기, 퇴비 만들기, 거름으로 만들기…

응용

– 날씨: 눈 오는 날 발자국 관찰하기, 비 오는 날 빗방울 관찰하기, 빗방울 그림 그리기, 바람 부는 날 흔들리는 나무가 되어보기…

– 자연 일기쓰기: 꼭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뭇잎을 보고 그리기, 감동을 준 자연물 붙여두기, 동물 울음소리 나열하기, 동시 지어보기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관찰일기를 함께 쓰는 방법도 있다.

– 대안에너지: 태양열 조리기로 요리하기, 손으로 전기 만들기(손전등과 라디오),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의 원리 배우기, 태양에너지 장난감 만들기…

4. 취미생활을 가진 아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거나 배우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배워도 좋겠다. 여러 농가에 흩어져 있는 도시 아이들과 지역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꾸준히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 같은 취미를 갖게 되면 친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게,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취미 역시 지역의 특징이 살아있는 것이면 더욱 좋겠다. 마을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더욱 좋겠고, 가끔 전문기술을 가진 분을 초청해서 배워도 좋겠다.

– 악기 다루기: 북이나 장구 같은 전통악기 배우기
– 탈춤, 우리 소리 배우기(국악)
– 세밀화 그리기, 자연미술 배우기
– 주제 있는 사진 찍기
– 수영
– 짚풀공예, 한지공예, 목공예
– 도감 만들기: 곤충이나 풀, 습지생물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생명체를 공부하면서 자신만의 도감을 만든다.

맺는 말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듯 산골유학의 모습도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같은 농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고 해도 참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기대치가 다를 것이고, 날씨나 계절에 따라 또는 농가의 경험에 따라서도 산골유학의 모습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양한 산골유학이 생겨나고 무르익어 갈 것이

다. 위에서 나열한 몇 가지 사례들은 우리나라 농가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금까지 했던 환경교육을 모아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골유학과 생태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프로그램을 여는 사람과 참여하는 아이들에 따라 역시 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믿어주는 만큼 스스로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익혀가면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은 산골유학도 지역에 맞게,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꼭 한번쯤을 경험해야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널리 인식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참고할 수 있을까?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www.kbedu.or.kr – 환경단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 여름 캠프와 행사 프로그램이 있다.
산골놀이학교 www.nol2.or.kr – 아이들의 놀이와 설명이 있다.
생태유아공동체 www.ecokid.or.kr –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다.
숲연구소 www.ecoedu.net – 숲 공부 자료와 프로그램이 있다.
에너지전환 http://energyvision.org – 대안에너지 방법이 있다
에코샵 홀씨 www.wholesee.com – 자연놀이에 필요한 도구를 판매하고 있다.
우리노리 100가지 http://nori100.com – 전통놀이 방법이 있다.
환경교육센터 www.edutopia.or.kr –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www.eersc.net – 다양한 환경자료가 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http://konect.ktu.or.kr – 환경수업 자료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 지역조직마다 캠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환경정의 www.eco.or.kr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 아이들 건강에 관한 자료가 있다.

우리나라 산골유학의 쟁점

산골유학, 또 하나의 대안 만들기

▌현병호

일본 연수를 함께 다녀왔고, 격월간『민들레』와 대안교육 연구모임인 '대안과실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 만들기와 산촌유학

대안사회를 꿈꾸는 이들 가운데 생태마을 만들기에 나서는 이들이 많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곳들도 있다. 생태적인 삶은 바야흐로 이 땅에서도 하나의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간디학교나 변산공동체학교 같이 학교 만들기와 생태마을 만들기를 함께 풀어가려는 대안학교들도 적지 않다.

생태마을 만들기도 풀어가기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산청 간디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태마을의 경우 도시인들이 집단 이주해서 전원주택 단지같이 형성되는 양상을 띠는 반면, 변산에서는 도시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생태마을과 공동체학교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홍성 홍동지역은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이 기존 마을을 생태마을로 바꿔나가고 있고, 상주 화북, 괴산 솔뫼마을 같이 귀농자들이 기존 마을사람들과 함께 지역운동으로 풀어나가는 곳도 있다.

마을이 실제로 지속가능한 생태적인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농사법이나 생활 방식이 생태적으로 바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으로 살림살이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하고, 마을에 생기가 돌아야 한다. 마을에 생기가 돌려면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활기를 잃지 않아야 한다. 지금 농촌에는 아이들도 거의 없지만, 그나마 드물게 있는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학원을 뺑뺑이 돌고 있고, 밖에서 뛰어놀기보다 컴퓨터, 텔레비전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은 실정이다.

마을을 살리자면 무엇보다 아이들이 살아나야 한다. 아이들 교육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농촌마을 살리기, 생태마을 만들기는 공염불이다. 마을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교육문제를 생각할 것이다. 마을에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지역 학교를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학교를 살리는 방안으로 산촌유학은 주목할 만한 대안이다. 게

다가 산촌유학은 지역 학교를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생태마을은 산촌유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이지만, 마을이 좋다고 해서 산촌유학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산골유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아이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일 것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는 숙식 여건, 아이들이 다니게 될 지역 작은 학교의 교육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부러 산골까지 아이를 보낼 부모가 없을 것이다. 특히 장기유학의 경우 이러한 조건은 필수다.

귀농과 산촌유학

지금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볼 때 산촌유학생을 일반 농가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농가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어른이 있어야 한다. 되도록 지역에서 그런 어른을 찾아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겠지만, 산촌유학을 조직적으로 풀어가려면 아무래도 귀농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생태적 삶과 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는 귀농자들이 산촌유학의 취지를 이해하고 운동 차원에서 함께 풀어간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촌유학은 귀농자들에게 의미있는 일거리이자, 경제적인 방편도 될 수 있다. 귀농을 생각하는 이들 중에는 농사만으로는 경제생활이 힘들 것 같아 망설이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귀농에 성공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경우 농사일만 하면서 살기에는 뭔가 허전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귀농한다고 해서 꼭 농사만 지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문화예술인들 중에도 시골에 사는 이들이 적지 않고, 나이 들어 귀농이라기보다 귀향을 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이들이 산촌유학생을 받아서 생활교육 또는 도제교육을 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적인 귀농이라 해도 반쪽 성공도 못된다. 그러므로 생태마을 만들기와 작은 학교 살리기, 귀농운동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산촌유학은 이 모두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귀농운동본부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운동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귀농교육을 할 때도 교육문제와 더불어 산촌유학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도 있다. 귀농자들이 집을 지을 경우 산촌유학생을 감안해서 구조를 설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귀농 8년차인 상주의 이명학 씨는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초기 귀농자의 경우 시골 생활에 적응이 안 되어 스스로도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겠다.

귀농자들 역시 마을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 텃세는 어디나 있기 마련이고, 도시에서 들어온 사람은 자칫 눈밖에 나기 십상이다. 그럴 때 아이들을 통해 마을사람과 가까워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마을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마을사람들에게 산촌유학

의 필요성도 알린다면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산촌유학생이 들어와 마을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배우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쉽게 열릴 것이다. 이는 귀농자가 마을에 뿌리를 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지역 살리기와 산촌유학

산골에는 점점 빈집들이 늘어간다. 폐가는 흉가처럼 방치되면서 마을 전체를 을씨년스럽게 만든다. 아이들 소리가 끊어진 마을에는 경운기 모터 소리만 울린다. 정부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도시 근교 산골에 정보화시범마을이라는 팻말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컴퓨터실을 갖춘 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정부의 예산으로 신식 마을회관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 시설물들이 들어서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본에서 산촌유학이 지역 농가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농가가 도시 주택 못지 않게 정갈하고 2층 구조이거나 규모가 큰 편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에 별 불편함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다. 초가삼칸 식 우리 전통 농가는 아이들 두세 명이 며칠은 머물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유학은 힘들다. 새로 지은 집들도 대체로 핵가족용 아파트 구조와 비슷해서 아이들이 장기간 머물기는 서로가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래도 평수가 좀 넓다면 아이들 두세 명이 한 달에 열흘 정도는 머물 수 있을 것이다. 어른과 아이들이 마음이 통하면 한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다.

아무튼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볼 때 산촌유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아이들이 묵고 생활하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을 얻어 '산촌유학센터' 같은 곳을 새로 짓는 것은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보다는 지역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볼 일이다. 수억 예산을 들여 잘 지어놓고서 놀리고 있거나 창고처럼 쓰고 있는 공간들이 적지 않다.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도 일 년에 불과 두어 달만 쓰일 뿐이다. 정보화시범마을 무슨 센터, 농촌체험마을 학습장, 무슨 직판장이니 덩그러니 건물만 있고 사람은 없는 이런 공간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행정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공간을 마을 살리는 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자체를 설득하는 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산촌유학센터는 단순히 도시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보다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경기도 양평의 오지인 명달리가 생태산촌 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명달분교 터에 환경교육센터(명달리 숲속학교로 개칭)가 새로 들어서면서 그 운영을 '생명의 숲' 산하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이 맡았는데, 그 모임에서 산촌유학에 관심을 갖고 센터 시설을 산촌유학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좋은 사례가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해서 공간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런 마땅한 공간이 없는 지역이라면 지자체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먼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면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군 단위 마을에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이와 귀농자를 위한 지원금을 주는 곳도 있는데, 산촌유학 역시 이런 지자체의 지원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다.

작은 학교 살리기와 산촌유학

산촌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촌마을이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은 교육 여건이다. 생태마을은 마을 전체가 훌륭한 교육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같은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존 학교를 살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자면 산촌유학을 적극 활용해볼 일이다.

문제는 작은 학교가 반드시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 점이다. '작은' 학교는 좋은 학교의 필요조건이지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금 산골의 작은 학교는 면소재지에 있는 본교도 한 학년 정원이 10명이 안 되는 학교들이 많다. 도시의 학급 정원이 보통 35명인데 비하면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학교에 쏟는 예산만 놓고 봐도 도시 아이들 한 명에 드는 예산이 평균 250만 원 안팎인데 견줘 시골의 작은 학교는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산골 학교의 경우 학생 대 교직원 비율이 2:1~5:1 정도이다.) 문제는 그만큼 교육의 질이 좋으냐 하는 것이다. 대개 학년당 아이들 수가 8명 이하일 경우 복식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이들이 많다. 학급 학생 수가 아주 적어서 거의 개인교습처럼 수업이 이루어지거나 교사가 남다른 열의가 있는 경우 말고는 열 댓 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태의연한 학급 운영 방식으로 복식수업을 하다보면 학습이 뒤떨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승진 점수나 바라고 벽지 근무를 신청한 교사들의 경우 교육보다는 근무시간 때우기에 그치기 십상이다. 일본은 벽지 근무를 할 경우 횟수, 년수에 관계없이 호봉이 1호봉 올라갈 뿐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뜻있는 교사들이 자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우리 경우는 승진 점수가 있다보니 아이들보다 자리에 더 관심 있는 교사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형편이어서 정작 뜻있는 교사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연장 근무가 어려워 3~4년 근무하면 전근을 가야 한다. 뜨내기 교사들인 셈이다. 그렇다 보니 산골 학교 교사들치고 산골에서 사는 교사는 거의 없고 거개가 읍내에서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 교사들이 마을과 완전히 따로 놀다보니 학교도 당연히 마을과는 따로국밥이다.

작은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려면, 교사들의 벽지 근무 점수를 없애거나 혜택을 줄여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머물고 싶은 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몇 번이라도 근무 연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도

멀리 내다보고 자신의 터전과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골의 작은 학교를 바꾸어가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무조건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농촌 살리기' 또는 '작은 학교가 아름답다' 는 명분을 내건다 해도, 지금 같은 형태로 시골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른바 복식 수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작은 학교가 정말 살아날 수 있으려면, 학년별 과목별로 수업을 하는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학년 통합, 과목 통합은 오히려 새로운 교육의 흐름이다. 큰 학교는 이렇게 하기 힘들지만, 작은 학교는 가능하다. 일본의 키노쿠니학교 같이 무학년제 프로젝트식 수업으로 풀어갈 수도 있다. 60명 정원이면 4~5개 정도의 프로젝트팀을 꾸릴 수 있다. 그러면 교장과 행정직을 포함해서 6~7명이면 충분히 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기존 방식으로 복식반 편성을 한다 해도 같은 수의 교사가 필요할 것이고, 학년별로 반편성을 할 때는 2~3명이 더 필요하다. 예산을 낭비하는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는 민들레 46호에 실린 '나쁜 학교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참고 바람.)

작은 학교가 살아나려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사, 교육방식 모두가 바뀌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은 '작은 학교 거듭나기 운동' 이 되어야 한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더 바람직한 교육환경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할 일이다. 학생 수가 너무 적어도 학교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교육 여건과 예산을 고려할 때 60~70명 정도가 적정 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교가 너무 멀어서 통학이 곤란하거나 다른 교육을 원할 경우,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승진제도나 벽지근무제도를 바꾸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뜻 맞는 이들끼리 지역의 작은 학교를 바꾸어가는 작업부터 시작해볼 일이다. 아산의 송남초등학교 거산분교(현 거산초등학교)는 몇 해 전에 이미 그런 작업을 해냈다. 천안 지역의 학부모들이 뜻맞는 교사들과 힘을 모으기로 하고서, 100여 명의 아이들을 거산분교 근처 마을로 전입시켜 분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를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켰다.(이 경우는 산촌유학이 아니라 산촌등교인 셈이다. 날마다 통학버스가 천안 시내에서 아산 송학리까지 아이들을 실어 나른다.) 해남 서정분교, 양평의 정배분교, 여주의 운암분교 등 비슷한 시도를 해온 학교들이 있는데, 공립학교이다 보니 교사들이 전근을 가면서 학교가 흔들리는 수가 많아, 새로 오는 교사들을 선정하는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거산분교 같은 통학식이 아닌 산촌유학 방식도 부모들과 교사들이 힘을 모으면 비슷하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상주 화북 지역에서 귀농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은 학교가 탈바꿈을 하는 데 산촌유학 같은 대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아이

들을 통학시키기가 쉽지 않은 지역의 경우 산촌유학 방식을 도입해서 학생 수를 확보하고 학부모, 교사들이 힘을 모아 학교를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한다면 작은 학교는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금만 따라준다면 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도시와 농촌의 아이들을 다 같이 살릴 수 있다.

산촌유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사람과 적절한 생활공간, 좋은 학교. 이 조건들이 부모들이 안심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장기유학은 어렵다. 그러나 이 조건은 산촌유학생을 위한 조건이기 이전에 지역 아이들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산촌유학은 도시아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산촌유학을 통해 도시와 시골이 함께 살고, 아이들과 부모, 교사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보자.

일본 산촌유학 현장보고 워크숍

'생태적 감수성, 살면서 느끼고 기른다'

■ 언제: 2006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 어디서: 하자센터

■ 주최: 대안과실천, 만들레출판사

■ 후원: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행사순서

1. **인사말** – 김경옥
2. **보고회 목적 소개**
3. **참가자 소개**
4. **일본 산촌유학 동영상 자료 보기**
   – 제작과 담당 이명학(35분)
5. **우리나라 사례발표**
   – 이명학(상주 사례 20분), 김일복(함양 사례 20분)
6. **전문가의 조언**
   – 발제자 김의경(경상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생태산촌운영위원장)
   성여경(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7. **우리나라 산골유학 정착을 위한 쟁점**
   – 현병호(20분)
8. **산골유학 정착을 위한 자유토론**
   – 토론 및 우성숙 사례와 지리산 교류학습 학부모 사례 발표
9. **안내말씀**

현장보고 워크숍 홍보 문구

일본 산촌유학 현장 보고와 우리식 방향 찾기

'왜 시골로 유학 갔을까?'

'산골유학' 이란 도시 아이들이 부모 곁을 떠나 시골마을에서 일정기간 머물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 2주 짧은 시간일수도 있고 일 년을 넘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산골유학의 기본은 아이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우비를 입혀 우산도 들지 않게 하고 등하굣길에서 만나는 풀과 나무, 흙을 직접 만지면서 자연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와 떨어져 지내면서 청소와 빨래, 정리를 스스로 하면서 자립심을 키우고, 캠프에서 해 보는 한번 체험이 아니라 의식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일을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학교와 학원을 쳇바퀴 돌듯 다녔던 도시 아이들에게는 인생과 미래를 다시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 줄 것입니다. 숲과 계곡, 냇가로 둘러싸인 자연환경 속에서 시골 사람들의 공동체 지혜를 배우고, 온갖 생명체들의 소중함도 배워보는 시간도 갖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들만 남은 시골마을에 아이들의 생기를 불어 넣고,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법, 지자체와 지역 단체가 함께 손잡는 법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 '산촌유학' 이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일본 산촌유학 현장인 학교와 시골 농가, 산촌유학센터를 돌아본 경험과 자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을 생각하는 몇몇 분들이 이미 산골유학의 싹을 틔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산골유학' 의 방향을 찾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농촌을 걱정하는 분이나 귀농을 생각하는 분, 아이에게 시골생활을 경험하게 해 주고픈 부모님, 환경교육과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새로운 교육의 길 찾기를 떠납니다.

현장보고 워크숍 기록

우리 땅에서 어떻게 시작할까?

▌기록: 임수민(민들레 인턴활동)

일본연수 보고 워크숍에는 교육과 산촌유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50여 명 넘게 모여 무려 4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첫 순서로 일본 산촌유학 현장에서 촬영해 온 동영상(35분)을 함께 보았고, 이어 우리나라 사례발표로 상주 이명학 씨와 김일복 씨 지역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발표는 앞서 자료집에 여러 차례 나와 있어 이번 기록에서는 생략합니다.

■ 발표

김경옥(사회): 몇 년 전부터 산촌유학을 도입하자고 권유하셨던 경상대 김의경 교수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산촌유학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의경(경상대 교수, 생태산촌만들기모임 운영위원장): 뜻 깊은 자리에 모두 모였으니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활동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태산촌 만들기 모임은 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마을 살리기 운동인데,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태자원을 잘 활용해서 완성된 형태로 끌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무렵부터 마을단위의 지역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큰 마을은 아니지만 평균 14억, 초기에는 이십 몇 억을 쏟아

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외부에서 온다고 하면 큰 사업이 오는 걸로 인식이 되었고 호응도 좋아 방방곡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지원 해주는 것 중에 산림청 산림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마을 지원사업이 널리 확대되었지만 다른 정부 부처도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많았습니다.

초기 산촌개발사업에서는 산촌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65%가 산림이고 산이 갖는 공간적 특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중 인력이 없는 것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이 산골입니다. 따져보면 산촌의 마을 특성이 생태계 자원 다양성이나 문화적, 양식적 장르로 봤을 때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잘 관리하면 미래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토의 관리 부분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에서도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모임도 지역단위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유지시키는 쪽에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차원에서 생태마을을 가꾸는 곳으로는 경기도 양평의 명달리가 있습니다. 그 곳은 십년 가까이 꾸준히 생태산촌 체험마을 사업을 합니다. 2002년부터는 생태숲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생태계 관리를 교육하기도 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게 생태감수성을 지닌 교사양성, 리더양성입니다. 금년부터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서 지역산촌리더육성을 하고 있는데, 각 마을을 다니면서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부터는 한국토지공사의 후원으로 산촌유학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산촌유학 프로그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현장사업이라는 점.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촌유학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차원의 고민이 있습니다. 교재개발 같은 모임도 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상주의 이명학 씨, 함양의 김일복 씨, 그리고 명달리 이렇게 주로 세 곳 중심으로 현장시범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교사교육프로그램을 시범으로 해가면서 틀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사업도 본격화 할 것입니다.

생태산촌모임에 다양한 분들에 참여하는데, 원래 모임의 총괄은 지역 살리기 지역개발 분들

이었습니다. 산촌이 다른 지역에 견주었을 때도 손색없이 발전,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개발사업으로써 산촌유학은 일본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이 있지만 오랜 시간 조직적, 체계적으로 해온 곳은 일본입니다. 그럴 때 지역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 항상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산촌유학 제도였습니다. 초기부터 산촌유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 지역 살리기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산촌유학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산촌유학이 왜 가능했고 관심을 가졌는가 하면 각종 정부사업으로 시설물들이 있었습니다. 산촌개발사업 때문에 마을회관,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좋은 다목적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고 있는 문제는 자원은 많이 있지만 돈이 되지 않아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활용가치가 떨어지니 활성화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 도농교류차원에서 사업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바탕엔 자매교류와 도농교류가 있습니다. 자매, 도농 교류 맺는 가운데 사업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 투자를 한다던지 아이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산촌유학을 통한 교류에서 서로의 장점을 봐야합니다. 일방적이 아닌 상호적으로 봐야합니다. 산촌유학에서는 도시교육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과 장소 특성을 봐서 도시보다는 산촌에서 하는 게 훨씬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촌이 생태교육, 자연교육 쪽이 좀 되는 거 같은데 이제는 도시에서 교육받는 것보다 나은 부분은 또 무엇인가가 숙제입니다. 단기든 장기든 교류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야 하고 산촌유학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또 숙제입니다.

김경옥: 다음 순서로 진안군 동향면 학선리에서 생태마을 만들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성여경 선생님으로부터 산촌유학에 관한 계획을 함께 들어 보겠습니다.

성여경: 저는 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장으로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전북 진안에서 새울터에서 마을 만드는 사람, 진안에서 마을 만드는 사람의 자격으로 왔습니다. 산촌유학을 처음 접한 건 2001년 무렵입니다. 일본 큐슈 지방 갔다가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산촌유학을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봤습니다. 돌아와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받아들이겠다는 도시 어머니들이 3/1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태마을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새울터의 땅이 7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 중 1만 평 정도로 마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촌유학센터 구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7만평에다 귀농자끼리 한 열 가구 정도 모여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업으로 지원하면 군에서 국비가 나올 거다 해서 마을 만들기 계획서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도로와 전기시설까지 15억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기본계획서까지 완성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올 9월까지 귀농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1월까지 입주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름을 '새울터는 환경파출소다' 라고 지었습니다. 덕유산 자락의 7만 평. 집을 지을 터 위로는 산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산 전체를 생태교육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집에서부터 산까지 전체를 교육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마을에 사는 분들이 함께 만들고 유지하고 나누며 살 계획입니다.

이곳은 전주와 남원이 가까워 문화제작소도 세워볼까 합니다. 산촌체험이자 문화교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주와 진안도 가깝습니다. 아이들 교육자원이 풍부한 것이죠. 산골유학교사를 하며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을 경제도 돌아가게 하려 합니다. 문화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미디어와 연구소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것이 전체 개념도입니다. 젊고 돈 없는 분들을 위해 집합주택도 비용을 최소화해서 마련할 겁니다. 마을센터도 산촌유학 아이들만 쓰는 게 아니라 마을 입주민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도서관도, 미디어실 스튜디오실도 다 있습니다. 집들은 30평 정도지만 화장실을 2개 만들고, 방도 독립구조로 설계해서 산촌유학 온 아이들이 따로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합주택이 있고 테라스형 주택으로는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작업실로 쓸 수 있게끔 설계할 것입니다. 마용실, 유학센터, 교육문화센터, 강당과 교육장도 있고, 식당 겸 교육 카페, 도서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농촌생태체험마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5분도 안 걸려서 위치도 좋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더 가면 능길마을이 있고, 면에는 동양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102명 정도, 중학이 75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 좋은 조건에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도움 주실 여러 곳에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꿈꾸는 마을이 현실로 나타나려면 아직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마을단위에서 산촌유학을 시작하고, 산촌유학센터 일도 벌이려면 마음 맞고 뜻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천천히, 탄탄한 준비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현병호: 산촌유학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도시 아이들과 부모, 즉 산촌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시골 귀농자와 지역주민들 관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산촌유학 문제는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과 부모 관점에서 산촌유학 바라보면 시골에서 1, 2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나 되는 장기유학을 떠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설 겁니다. 무엇보다 도시 아이

들과 같이 지낼 어른, 농가주인과 센터 활동가 같은 어른들의 대한 신뢰가 생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역학교의 교육환경입니다. 시골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거나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힘들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 산촌 작은 학교의 교육환경은 최소 규모의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사들이 승진점수 때문에 산촌학교에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의 교사의 질,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고는 산촌유학이 자리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산 거산초등학교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천안 시내 부모님들이 거산 초등학교로 위장전입을 시키면서 아이들을 전학 보내서 폐교를 막고 선생님들과 직접 학교를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직접 산촌에 가서 살면서 교육 바꾸는 모델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들의 통폐합을 막는, 폐교를 막자는 수준을 넘어서 작은 학교가 어떻게 바뀌어야 제대로 좋은 학교가 될까 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되는 게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작은 학교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가 대안학교에 버금가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산촌유학센터가 기숙역할을 한다면 공립학교가 기숙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운동 차원에서 산촌유학을 시작해야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민들레출판사에서 산촌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교육운동차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을 바꾸는 전위부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농운동과 산촌유학이 만나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의 생활문제, 안전문제와 환경도 고려되면 더 없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일본과는 농가 구조에 큰 차이가 있어 전문가를 모아 새롭게 농가 구조를 설계하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산촌유학을 오려는 초등 아이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아이들을 위한 쪽으로만 초점을 맞춰서는 성공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도시 부모아이들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산촌 농가 지역주민 관점에서 봐야합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지역 살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우리나라식 산촌유학은 제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도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아이들을 산촌유학 보낼 부모라면 교육에 대한 고민과 주장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일 것이고, 굳이 아이를 환경이 좋은 산촌까지 보내지 않아도 가정교육만으로도 잘 키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골 아이들은 도시 아이들보다 열악합니다. 그 흔한 생태캠프 한번 못 갑니다. 산촌유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지점에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숙형 대안학교의 형태입니다.

초등아이들이 어려서 부모 곁을 떠나서 유학을 하거나 대안학교에 갈 때,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아이 성장에 어떤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아이들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필요한 시기

에 대한 주의 깊은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연이 물론 좋은 스승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환경은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까, 산촌유학을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토론

박경화: 지금까지는 일본에서 보고 듣고 온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시작할지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앞서 들으면서 생겨난 질문이 많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역학교 살리기와 마을 살리기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산촌유학에 꼭 필요한 지역에서 농가가 될 분들, 지역단체를 운영하는 분, 학교선생님들이 골고루 오셨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분이 못 오셨지만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성여경 선생님 설명 들으며 조금 감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산촌유학에 관한 경험 있는 우성숙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들어 보겠습니다.

우성숙: 반갑습니다. 양양 오색마을에 내려온 게 7년 전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아이들은 어린 시절만큼은 시골에서 살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 생각했고, 어른이 되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산 바탕이 있으면 뭐든 잘 하겠단 생각이 들어 짐을 싸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 정리를 못 마쳐서 서울에 남고 세 식구만 떠나게 되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못 합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3학년, 5학년일 때 내려갔는데 지역을 고민했습니다. 밀양과 홍천, 오색, 세 군데 두고 고민했는데, 오색을 선택한 이유는 산골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가르쳐 줄 담임선생님, 아이를 맡아줄 아주 훌륭한 분이 그 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교생이 20명 밖에 안 되는 학교 옆 관사에 짐을 풀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일 년간 큰아이를 맡고 전근가게 되었는데, 욕심이 생겨서 어렵게 설득해서 일 년을 더 계시게 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은 교장이나 동료선생님에게 좋은 평을 듣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모든 일을

교장선생님 마음과 정반대로 하니까요. 마을 주민들, 심지어 그분 부인도 그 선생님이 보배라는 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서서 마을 학부모들에게 그 선생님에 대해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비싸다는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산골로 유학시켰다고 해서 중앙일보에 크게 나고 여기저기 잡지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홍보를 잘 해서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었을 텐데 하겠지만 그때는 제 아이들만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귀한 선생님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글쓰기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중학 중퇴, 초등 중퇴라서 공부에 한이 있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글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집집마다 남편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 공부가 좋고 어느 잡지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남편 시동생 가족들이 자기 아내를 달리 보기 시작했다 합니다. 그렇게 저에 대한 이미지가 마을 사람들에게 좋아지면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 심지어 아저씨도 생겼습니다. 지금은 뭘 하려하면 적극적으로 모아주려 합니다. 살기도 좋고 아이 키우기도 편안합니다. 그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학부모들도 점차 호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전교생이 모두 시인입니다. 한 줄짜리 글도 시라고 하시며 소박하고 낮은 삶을 실제로 보여주는 좋은 분입니다. 마을 아이들은 참 복이 많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많은 복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를 산촌유학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방도 15개나 되고, 학교 밖 선생님들과도 친분이 있어 산촌유학을 하기에는 좋은 곳입니다.

박경화: 다음은 지리산 김일복 씨네 집에 교류학습으로 아이를 보낸 뒤 좋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혜수어머니 김은미 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은미: 처음 아이를 보내게 된 것은 민들레에서 잡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여는 순간 제가 지금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지리산으로 교류학습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격월간 민들레를 읽으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딸이 아파트에서만 살았고, 외동이라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경험을 해 보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시골학교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었습니다. 집이 일산이라 지리산에 데리고 갔다가 올 때는 자고 왔는데, 햇살 선생님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막연한 동경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소박한 생활이었습니다. 밥상도 들에 가서 뜯어다 차려주는데 정말 맛있고, 지금까지 일회용품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와동이라 부모 곁을 떠나려 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저는 보내보고 나서야 '아, 이놈이 이 정도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아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았고 엄마랑 떨어지는 거에 대해 좀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리산에 다녀온 뒤 아이가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먹지 않던 콩이나 순두부도 먹게 되었습니다. 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경화: 산촌유학에는 중요한 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 부모와 지역 선생님, 지역 농가의 부모입니다. 이번에는 지역 선생님은 산촌유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께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호환: 저는 안성 시골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일부러 전근 갔습니다. 올해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저도 공교육에 있지만 도시 공교육에 보내고 싶지 않아 대안학교를 보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작은 학교로 가보자 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성분교를 찾았는데 안성이 지방인데도 분교가 두 개 뿐이라 지금 사는 곳에 있는 금광 초등학교 조명분교 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해났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바로 윗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 학생은 24명입니다. 산골이라 교육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긴 했는데 시골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세 분 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올해 새로 부임한 선생님인데 2개월 넘도록 수업을 한 번도 안하셨다는 겁니다.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장께 전해져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학부모는 도시로 전학 가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분 말씀이 시골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잘 키우려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시에 많은 아이들 속에 파묻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시골에는 몇 명 안 되는데 찍히는 것보다는 도시 사십 몇 명 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학부모회의 소집해서 교장선생님에게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세 분 선생님과 본교 교장, 교감선생님 다 모시고 학부모 꽤 여러분 모였습니다. 지적을 한 게 아니라 학교 학생 잘되는 방안이 뭔가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다행히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아이들 수련회에 학부모들도 가고, 그런 과정거치면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면 계속 선생님 바뀌실 거고 또 그런 문제도 생길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은 아이들이 시골에 살아도 가르쳐야 지혜를 압니다. 그냥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 데리고 일부러 책보고 자연이나 시골생활을 공부해서 가르칩니다. 자연이 스승이라 하셨는데, 스승인 자연이 가르쳐 주는 걸 배우지 못하는 시

골 사는 아이들에게도 이 산촌유학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경화: 지금까지는 말씀해 주실 분들을 지목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질문과 답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동현: 저는 우리신학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천주교 관련된 연구소입니다. 요즘 하는 일 가운데서 가톨릭 농민회가 있습니다. 유기농, 생명운동, 대안운동체 운동을 표방하는데, 본보기가 되는 마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마을 안에서 교육영역들을 어떻게 확보할건지 생각을 얻기 위해 왔고, 좋은 자리였고 많은 걸 얻었습니다. 현병호 선생님께서 산촌유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도시입장, 그리고 농촌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공교육, 즉 시골 분교와 호흡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에서 가실 분, 산촌에서 맞을 분들이 함께 계시는데 공교육의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저 좋은 분들 만나면 다행으로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건지, 교육적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으면 신뢰가 쌓여도 보내기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어떤 준비부터 하면 좋을지. 공교육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형일: 공교육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교사인 저도 무척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안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가 제도권 학교 내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 만들기' 란 이름으로 되고 있는 학교들이 실제증거라고 봅니다. 각 학교에서 고립되어 있고 때로는 왕따지만 새로운 교육을 꿈꾸는 교사들이 있고, 지역도 살리고 학교도 살리는 이런 같은 공유점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연대가 있는데, 5개 학교가 준비중이고 같은 고민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학교를 바꾸는 고민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현병호: 작은 학교를 바꾸는 작업은 결국 부모와 교사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주 화북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단 학교 교장이나 교사, 교육청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들 소리에 신경 쓰기 때문에 부모들이 작업해 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요. 전교조교사들이 한 두 분만 결합해도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혁신학교 같은 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모델을 지역에서 제도로 잘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형태의 작은 학교들은 굳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 한

50~60명이 적절한 규모가 아닐까요? 그런 학교에서 과목별, 또 담임 학급별 아이들을 프로젝트식으로 수업하면 아이들 10명당 교사 1명이 되어도 됩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풀어 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경화: 이 자리는 산촌유학 모임이지만 공교육 문제를 짚어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문제는 많이 들었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에서 왜 산촌유학 하고 싶은지, 어떤 도움 받고 싶은지, 어떤 분들 만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황의경: 산촌유학 현장을 방문한 분도 계시고, 지역분들도 많이 오셨고,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다음번에는 각 분야들끼리 모여 긴밀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산촌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은 방향과 노선을 가지고 정체성이나 운동성 차원에서 긴밀하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례를 보니 산촌유학을 왔다가 지역주민이 된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다들 교육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단순히 교육문제의 차원인지, 시골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차원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주민의 설득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주민으로서 인정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10년 동안 준비작업을 하자고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시골의 문제들을 곁들여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실제 산촌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명학: 일본에 가기 전에 제가 의심 품었던 부분이 질문하신 분과 비슷했습니다. 산골유학이라는 부분이 교육으로 딱 떼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삶 전체가 녹아있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산촌유학이 96년부터 지자체와 결합, 활성화되었는데 우리나라 농가와 1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FTA나 국제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일본이 겪은 것처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농업농촌 현실, 붕괴된 농촌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골에 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보고 왔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많아야 하는데 도시에서 보낼 사람들도 구축되어야 하고 시골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화: 이 운동을 누구와 같이 하면 좋을까,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전화하고 고민하며 든 생각은 지역마다 여건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교육문제에 관심 뜨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운동으로 펼쳐지건, 작은 움직임으로 펼쳐지건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촌유학이 우리나라식으로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하겠지요.

김호환: 생태체험은 일회성 체험으론 안 되고 실제로 살고 몸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산촌유

학의 장점 중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산촌유학이 대부분 1년인데 김일복 님은 2주 정도 한다고 하셨죠? 방학 때 며칠 놀다오는 캠프가 연장되는 건 아닌가요? 2주 정도로도 충분히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되는지, 처음 시작이라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일복: 아이들이 3박4일 캠프에 오면 똥을 안 싸고 죽어라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주를 지내려면 어떻게든 화장실과 화해해야 합니다. 나는 급한데 여기 파리가 있어서 자기 공격할 것 같고 그렇지만 급한, 이런 상황과 타협해야 합니다. 저도 일본 산촌유학을 30년이란 틀 안에서 보는데, 이제 그 길을 6년 걸었고 24년이 남았습니다. 1달, 2달 한 학기로 기간을 늘려갈 마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2주를 하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채워줘야 하는 건 엄마의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촌유학 기간은 아마 일본과 한국의 자녀교육방법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2주중에 1주일 보내기도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는 감정적 독립은 2주를 하면 변합니다. 3박4일 캠프를 온 아이들은 햇살선생님은 밥알 남아 있는 것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2주 교류학습을 오는 아이들은 돌아가기 전날까지 "선생님 왜 저 화장실 써야 해요? 지저분해 보이는데 불편한데를 왜 써야 돼요?" 계속 묻습니다. 날마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막연하게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2주 정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와서 머무는 친구는 부모가 해마다 아이를 지리산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교류학습을 하는 사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 달라지고 이해하는 깊이와 넓이는 저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엄마와 아이가 다시 만나 혼란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경험의 깊이가 달라지는 아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경화: 오늘 자리는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새 4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산촌유학이 과연 뭘까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도만 되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날 기회는 여러 차례 있을 겁니다. 민들레출판사에서 이런 일 진행하는데 필요한 연락처도 드리고 안내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삼삼오오 뒤풀이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보 프로젝트 지원서

환경교육지원사업신청서

사업 요약서	
사업명	생태적 감수성, 살면서 느끼고 기른다 – 일본 산촌유학 사례 연구
예산액	지원 신청금액 9,368,000원(총 예산 14,388,000원)

1. 목적:

– 맛보기, 체험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극복하고 살면서 느끼고 배우는 생태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 도시 대안학교와 농촌의 귀농자를 연결하는 도농교류학습망과 생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귀농자들의 생태적 교육역량을 북돋우고 생태 환경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2. 내용:

– 살면서 배우는 생태환경교육으로 일본 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산촌유학' 사례를 연구하고 직접 현지에 가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 방법과 배경을 정확하게 익힌다.

– 3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산촌유학의 한계가 무엇이며 우리 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식은 무엇인지 지속적인 실천과 워크숍, 연구를 통해 알아간다.

– 산촌유학의 맹아인 '햇살네 교류학습'의 실천사례를 널리 알리고 함께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농교류학습이라는 생태환경교육의 씨앗을 나무로 키워간다.

– 도시 아이들과 부모들이 생활 속에서 생태환경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귀농자들이 생태환경교육 활동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다.

3. 기대 효과

– 단기 캠프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 자연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다.

– 통폐합으로 폐교 상황에 있는 산촌, 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다.

– 아이들이 떠난 시골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 시골에서 외롭게 지내는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 도시와 농촌에 사는 이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는 실제적인 도농교류를 구현할 수 있다.

사 업 계 획 서

‘생태적 감수성, 살면서 느끼고 기른다’
– 일본 산촌유학 사례 연구

Ⅰ. 목표

- 기존의 단기 체험중심 환경·생태교육을 극복한 건강한 대안을 제시한다.
- 살며 느끼고 배워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치는 생태 · 환경교육의 모델을 만든다.
- 귀농자와 도시에서 생태적 삶을 꿈꾸는 이들을 연결하여 도농교류와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
- 귀농자의 생태 교육역량을 북돋우고 그들이 생태 환경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다.
- 생태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환경교육 활동가 및 대안교육 현장에 보급한다.

1. 생태 · 환경교육 현황

1)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의 환경교육 기반

–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환경교육을 오염방지 교육이 아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도시 곳곳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태적 감수성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식생을 구성하고 있다.

–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숲연구소를 비롯해서 국립공원, 길동 생태공원 등 생태 지도자 과정들이 잇따라 개설되면서 많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관련 도서들의 출간**: 김태정 선생님을 비롯해서 풀, 나무, 곤충, 물고기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서를 내놓았다. 학자들의 영역에 있던 자연 생태 영역이 이런 책들로 인해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2) 학교 밖 환경교육의 다양한 시도들

–하루 안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연관찰과 만들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공원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을 비롯해서 서울에 있는 20여 개 생태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아이들만 하기도 하고 부모랑 같이 하기도 하는데, 비용은 무료부터 교통비와 식대 포함해서 2~3만 원 정도 드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룻밤 이상 숙박을 하면서 자연에서 머무는 프로그램

여름과 겨울철 특히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프로그램의 경우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것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기는 하다. 여름에는 물놀이와 자연관찰이 중심 내용이고, 겨울철에는 전통놀이 중심으로 진행한다. 대개 3박4일 정도 진행하는데 숙박비와 교사들의 인건비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까지 비용이 든다. 당일 프로그램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도 천차 만별이다.

–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

간혹 미술 영역 안에 자연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물을 이용한 미술에서는 자연물을 주로 놓고 이 자연물을 표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준비하는 교사는 주변의 자연에서 늘 재료를 찾고 영감을 얻기 때문에 수업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아이들은 주변에 흔하게 보이던 자연물을 이용해서 미술 표현을 하게 되니 처음엔 시시하게 여기다가 결과물을 만들고 나면 자연물이 새롭게 보이고 자연물을 이용한 작업이 주는 즐거움도 맛본다고 한다.

– 환경연극

연극 하면 어두운 공간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와 관객이 나뉘게 마련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연극은 밝은 공간에서 모두가 배우가 되기도 하고 관객이 되기도 하면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 현행 생태 · 환경교육의 문제점

환경교육은 최근 5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팽창했지만 생태교육의 근본에 대한 깊은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자연을 맞보고, 자연체험을 한다고 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생태적으로 사는 능력을 키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지속적인 경험과 느낌, 절로 이루어지는 공감 속에서 자연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적 품성이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돕는 것이 환경교육, 생태교육의 기본 목적이라 할 때 지금의 환경교육 생태교육은 방향이 잘못 잡혔다고도 볼 수 있겠다.

1) 철학이 결여된 생태환경교육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환경교육과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생태환경교육 모두 유기적 연관 또는 철학적 기반 없이 그야말로 '대충' 얽혀 있다. 넓게 보면 전체조회 시간에 이루어지는 에너

지 절약 캠페인도 환경교육이지만 교육적 개념이나 철학을 바탕에 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기, 공동체적 삶 이루어 가기 등 생태적 삶에 대한 추구와 공동체적 관계 맺기를 도와주는 생태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 환경교육의 양적 성장과 위기-단기 체험, 캠프 중심의 맛보기 환경교육이 판을 친다.

대도시에서는 자연체험도 박물관, 미술관에서 하는 추세다. 자연과 만나는 미술전시회에서는 올챙이를 만져볼 수도 있다고 한다. 흙놀이를 마음껏 한다는데 그 장소가 실내다. 엄마와 아이가 같이 들어갈 경우 제법 돈을 내야 한다. 겨울철에 잠자는 곤충들이 체험전에서는 생생하게 잘도 살아 움직인다. 물방개와 물땡땡이를 만져보며 아이들이 곤충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자연체험이라고 하는 실정이다.

3) 영리 목적의 환경교육 주관단체가 늘어나면서 환경교육조차 수익성 위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단체들이 늘면서 돈이 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2005년 겨울만 해도 역사캠프나 영어캠프가 주목을 끌게 되면서 환경교육 관련 캠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한 차례 유행처럼 열렸다가 수익성이 없으면 사라지는 환경교육은 '환경이나 생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분명한 철학과 교육방침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생태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하는 과제가 여기서도 나온다.

4) 자연 속에 있는 시골이라고 생태환경교육이 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시골 아이들도 요즘은 도시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컴퓨터와 텔레비전이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이들은 도시로 모두 가버려서 친구들이 없다. 어울려 놀 언니 오빠 동무들이 없으니 아이들에게 이어져 내려오던 놀이들도(팽이치기, 숨바꼭질, 봉숭아물들이기, 나무하기 등) 점점 사라졌다. 아침, 저녁으로 뜨고 지는 해, 하늘과 산을 볼 수 있으니 비교적 자연환경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이 절로 생태적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교육, 자연교육의 기본이 관계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때, 자연과의 관계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이라 해도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결코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는 법이다. 생태 환경교육의 가장 기본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갖추는 데 있다고 볼 때, 시골 아이들의 생태교육 환경은 도시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고도 볼 수 있다. 도시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 그리고 함께 하는 어른 모두를 위한 생태환경교육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Ⅱ. 내용 선정 및 조직

살며 느끼고 배우는 생태 · 환경교육– 일본의 산촌유학과 햇살네 교류학습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의 모델을 찾는다.
■ 해외 현장의 실천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배워 우리들에게 맞는 새로운 생태환경교육 틀을 만든다.
■ '햇살과 함께 하는 자연놀이와 교류학습' 의 실천과 일본의 산촌유학 사례를 조화롭게 구조화하여 우리에게 맞는 실천형태를 찾는다.
■ 생태적 삶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귀농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그들이 생태체험센터의 주체가 되고 생태교육활동가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시스템을 만들어낸다.
■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얻은 지혜와 사전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태환경교육 워크숍을 개최한다.
■ 대안교육연대나 대안과 실천, 대안학교 교사모임 들과 함께 교육내용을 확산시킨다.
■ 격월간 〈민들레〉와 이미 관련 기사를 쓴 적이 있는 〈한겨레신문〉을 적극 활용, 홍보하고 산촌유학 또는 교류학습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사람들을 엮어낸다.

1. 일본의 산촌유학

1) 산촌유학의 개요

산촌유학은 1976년 재단법인 소다테루카이(아이들을 키우는 모임)에서 시작한 생태 · 환경교육 실천 활동으로 농촌, 산촌, 어촌의 자연과 문화와 인정을 기초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생태적 사람들을 키우자' 를 염두에 두고 있다.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연, 환경, 생태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레 몸과 마음에 스며들게 함은 물론 아이들이 세상을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하다. 도시의 아이들이 부모 곁을 일시적(한달, 일년 등 다양)으로 떠나 시골학교를 다니고, 지역의 농가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다만 시골에서 머무는 곳이 흔히 아는 하숙이나 홈스테이와 다른 점은 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적 방식을 지닌 이가 그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시골부모로서 또 하나의 가족과 시골에서의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물론 자연을 최대한 느끼고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다양한 거리들을 제공한다. 또 지역 아이들은 도시에서 온 아이들과 아이들의 부모와 교류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을 느끼고 함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자기 지역(고향)을 새롭게 보고, 고향을 재발견한다는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소다테루카이의 산촌유학은 생태교육 역할도 있지만 지역 살리기, 작은 학교 살리기로도 언론과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도시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오면서 소외되었던 작은 시골 마을들이 활기를 띄고 통폐합 위기에 있던 작은 학교들이 계속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산촌유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생태교육이 사람들에게 선을 보인지 벌써 30년 가깝게 흘렀다. '살며 배운다' 라는 구호에 가장 걸 맞는 새로운 교육, 환경교육 모델로 사회적 인정을 받고 있다.

2) 산촌유학의 시작

1976년 우리나라의 강원도와 닮은 나가노현 기타아스미군 야지카 마을에서 첫 실천이 이루어졌다. 소다테루카이는 1968년 설립될 때부터 다양한 환경생태교육을 해왔다. 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그리고 봄방학에 관광지가 아닌 야시카 마을에 있는 일반 농가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야외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놀이를 하는 등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환경교육 활동을 추진해왔다. '체험' 을 중요시하는 이 환경교육방식은 큰 화제를 모으면서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참가했다. 그러다 활동에 참가한 아이들이나 부모들 가운데 "좀 더 오랫동안 시골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1년 동안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지내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될 수만 있다면 시골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하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긴 기간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만약에 된다 해도 신청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같은 우려들이 많아 선뜻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계속 그런 요구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 준비가 이뤄지고 1976년 9명의 초중학생이 야지카마을로 전학하면서 산촌유학의 첫 걸음을 뗐다.

산촌유학을 처음으로 연 재단법인 소다테루카이(본부 도쿄도 무사시노시/ 青木孝安 이사장)는 자연체험교육 또는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통한 청소년 활동을 하는 문부과학성 소속의 공익법인이다. 1968년에 자연체험과 생활체험에 뿌리내린 청소년 교육활동의 실천을 목적으로, 교사 부모 사회교육 관계자들이 모여 만들었다. 특정한 정치단체나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1976년 나가노현에서 일본 최초로 산촌유학 시스템을 만든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1968년 설립 이래 독자적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환경생태교육을 실천하고 있고, 1년 간 장

기 산촌유학은 물론 주말이나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을 활용한 2박~17박 정도의 다양한 자연체험 프로그램(단기 산촌유학 등)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각종 환경생태교육활동 관련한 조사와 연구, 활동가 교육, 전국 산촌유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

3) 산촌유학의 형태 – (재)소다테루카이 '산촌유학 25년 백서'에서

산촌유학은 '山海유학' '농촌유학' '고향유학' '전원유학' '해변유학' 등, 유학자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운영조직, 거주형태, 받는 기간도 다양하다.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위원회 등), 민간단체, 기업, 학교나 지역주민이 조직한 NPO들이 대부분이다. 산촌유학생들은 크게 네 가지 방식으로 시골에서 지낸다. 해마다 연초에 모집해서 연 단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형 태	특 징
산촌부모	전 기간 또는 대부분을 '산촌부모'라고 불리는 시골 가정(농가나 어촌의 집들)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곳에서 지역학교에 통학하는 방식이다. 농어촌의 풍부한 자연뿐만 아니라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시골부모나 지역주민과의 만남도 깊고, 제 2의 고향이라는 의식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대중적인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실시해왔는데, 시골 부모들의 고령화와 함께 홈스테이를 못하게 되기도 하고, 가족유학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기숙사	전 기간 또는 대부분을 기숙사(산촌유학센터)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고 거기서 지역학교에 통학하는 방식을 말한다. 숙식이 가능한 시설, 복수의 전문 활동가가 상주하면서 연간 자연체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설 등 다양하다. 기숙사의 상근자가 청소나 빨래를 해주기도 한다. 텔레비전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다. 또 대안교육적인 운영방침

	을 갖춘 시설도 있다. 이 방식은 저마다 시설의 운영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유학할 곳을 선택할 때에는 부모와 아이들이 어떤 곳을 원하는지 잘 생각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기숙 산촌부모 병행	한 달에 약 1/3~1/2를 복수의 전문활동가가 상주하는 기숙사(산촌유학센터)에서 단체생활을 한다. 남은 기간은 시골부모 집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지역의 학교에 통학하는 방식이다. 기숙사와 시골부모 집 생활을 계속 바꿔가면서 지낸다. 연간 자연체험 교육과정이 짜여 있고, 시골부모 집에서 생활하기도 해서 지역주민과 교류하거나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다. 산촌유학을 처음 시작한 (재)소다테루카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산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다. 소다테루카이의 경우 산촌유학센터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건 갖추어 놓지 않는다. 청소나 일상적인 빨래도 자기 힘으로 하도록 짜여져 있다.
가족유학	가족 일부 또는 가족 모두가 시골로 옮겨, 가족과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교에 통학하는 방식이다. 빈집을 수리한 주택이나 공영주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홋카이도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데, 최근에는 긴키 지역에서도 이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방식과는 달리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되기 쉽다. 또 도시에서 살던 생활 그대로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재)소다테루카이의 조사에 따르면 병행방식이나 기숙사 방식에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대답에 동의하는 산촌유학생이 약 80퍼센트에 이르는 반면 가족방식에서는 약 40퍼센트에 머물렀다.

4) 2005년 산촌유학 실태조사 – 2005년 5월 1일 현재(전국산촌유학협회 주관)

1. 전체 경향

운영단체 – 129 단체(전년대비 +5)

지역 – 35개 지역(전년대비 ±0)

자치단체 – 117 시군읍(전년대비 +0)

초등학교 – 137 개교(유학생이 없는 학교가 35개교, 전년대비 +2)

중학교 – 59 개교(유학생이 없는 학교가 12개교, 전년대비 +3)

소학교 – 554명(전년대비 ±0)

도중 참가중지자 – 42명(참가한 해 중간에 유학을 그만 둔 유학생, 전년대비 –2)

2005년도는, 실시 단체가 5개 더 늘었고, 아이들을 받는 지역의 학교도 3개 학교 증가했다. 참가자 수도 전년도에 비해 14명 늘었다. 전국 평균 유학생 수(1개 학교 평균)도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생들을 모집했지만 참가자가 오지 않은 학교도 초중고 합해서 5개 학교가 더 늘었다. 10명 이상 아이들이 참가한 마을은 전체 실시 지역의 29.9%, 0~2명에 머문 마을도 전체의 33.3%나 된다. 참가자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산촌유학 참가자들은 산촌유학 할 곳과 형식을 매우 신중하게 살피고 판단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경향성은 앞으로 더욱 분명해지리라 본다. 산촌유학을 실시하는 단체나 교육현장에서는 환경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내용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2. 상세정보

*지역별 수용학교수 / 수용인원 / 출신자 / 지역별 모집학교와 참가자

지역별 수용학교수		수용인원		출신자		지역별 모집학교와 참가자			
카고시마	38교	홋카이도	179인	도쿄도	97인	지역	모집	참가자	1교 평균
홋카이도	37교	카고시마	173인	오사카	82인	홋카이도	45교	179인	3.97인
나가노	17교	나가노	137인	아이치	63인	도호쿠	9교	18인	2.00인
야마나시	8교	야마나시	42인	후쿠오카	51인	관토	12교	60인	5.00인
코지	5교	코지	31인	효고	47인	주우부	26교	163인	6.26인
와카야마	5교	미야자키	27인	사이타마	45인	긴키	14교	61인	4.35인
후쿠오카	4교	애히메	26인	카고시마	38인	주고쿠	7교	22인	3.14인
미야자키	4교	야마구치	22인	카나가와	37인	시코쿠	13교	74인	5.69인
도쿠시마	3교	후쿠오카	21인	치바	24인	큐슈오키나와	71교	227인	3.19인

*학년별 참가자 수 및 남녀별 사람 수(명)

학년	수	비율	남자	여자
1	29	3.6	10	19
2	51	6.3	29	22

3	73	9.1	50	23
4	121	15.1	74	47
5	147	18.3	83	64
6	133	16.5	80	53
초등학생 전체	554	68.9	326	228
1	76	9.4	47	29
2	89	11.1	48	41
3	85	10.6	53	32
중학생 전체	250	31.1	148	102
초·중 전체	804	100.0	474	330

* 지역별 형태별 참가인 수

지역	홈스테이	기숙사	병행	가족	합계
홋카이도	56	24	0	99	179
도호쿠	6	5	6	1	18
간토	1	30	0	29	60
주우부	0	84	72	7	163
긴키	13	18	0	30	61
주고쿠	0	22	0	0	22
시코쿠	2	44	1	27	74
큐슈	173	24	0	30	227
합계	251	251	79	223	804

2. 햇살네 교류학습, 자연에서 놀자 (2001~2006)

1) 햇살네 교류학습의 개요 (2003~2005 3차례 진행)

교류학습의 장점은 오래 머문다는 것이다. 시골 할머니집 같은 곳으로 가서 지내는 교류학습의 경우 전학 절차 없이도 두 달 정도 머물 수 있다. 교류학습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공문 한 장을 작성하면 된다. 학교 간에 서류가 오고 가면 아이들은 시골학교든 도시학교든 옮겨갈 수 있다. 지금은 도시 아이들이 시골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큰 학교에서 살아온 아이들이 전교생 100명 남짓한 시골학교에 와서 처음엔 전교생과 모든 선생님들이 보이는 관심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2주쯤 지내고나면 그 관심이 사랑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돌아간다. 아이들이 지내기에 넉넉한 교실과 교실 뒷벽을 나란히 장식한 반 아이들 개개인의 그림들은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들이 보기에도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아토피로 고생하던 아이가 지내는 동안 증상이 완화되어 본인이 느끼기에 가렵지 않으니 짜증도 나지 않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돌아가서는 다시 약을 먹고 바르고 하지만 전보다 조금 덜하다는 말로 위안을 삼는다. 교류학습을 다녀간 아이들의 경험이 자란 후에 어떻게 남을까가 궁금해서 아이들과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지낸다.

햇살네 교류학습은 불교환경교육연대에서의 환경교육 활동가로 헌신했고, 생태적 삶을 위해 지리산 기슭 마천마을에 살고 있는 김일복 씨의 삶 그 자체가 낳은 열매다. 도시에서 불교 생태철학에 기반한 환경교육에 열심이던 그는 시골로 옮겨와서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찾느라 열심이었다. 또 아이를 낳고 그가 엄마가 되고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새로운 환경, 생태교육에 눈을 뜨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생생한 자연에 아이들을 내어놓아 보자' 가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자연에 그냥 내놓는다고 '방치' 하는 건 물론 아니다. 더욱 철저한 구조화와 배려가 뒤따랐다. 가령 햇살네 집에서 머무는 도시 아이들은 한 시간 내지는 30분을 걸어 통학버스를 타고 학교로 간다. 가는 길은 온통 놀이거리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손에 아무 것도 들지 말 것!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된다. 비옷과 장화는 그래

서 필수품이다. 그이의 철학과 실천이 잘 어우러진 교류학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2주씩 진행하고 있다. 더 장기적으로 기간을 늘려나갈 생각이지만 이렇게 될 경우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할까 고민이다. 물론 스스로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을 발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3박 4일 정도로는 부족해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햇살네에서 아이들은 살림의 한 주체로 참여한다. 아이들은 씨앗을 뿌리고 심고 돌보고 거두며,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도 걷어오고, 이불도 개켜 보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생기를 얻는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훌륭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이자, 자연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단숨에는 힘들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햇살네 김일복 씨의 기록으로 교류학습을 소개한다.

2) '햇살네서 이렇게 지내요'

의·식·주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 **衣**:

염색: 황토염색이 가장 무난하지만, 쑥, 애기똥풀, 도토리물(가을), 송기, 치자, 소목 등도 무난한 염료라고 할 수 있다. 속옷, 면티, 손수건, 소창, 종이 등을 염색한다. 주로 여름캠프에서 하지만, 사실 여름철은 염색하기에 좋지 않다. 습도가 높고 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이다. 염색은 가을이나 봄철이 더 적당하다. 소나무 자연학교에서는 베갯잇을 염색해서 베개를 만들기도 하는데, 만든 베개를 쓰다가 집에 가져간다.

뜨개질: 겨울철 긴 밤에 손놀이감으로 좋다. 고학년 아이들에게 가능하고, 저학년 아이들은 실뜨기나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다.

작은 바느질거리: 아직 햇살네에서는 해보지 않았지만 언젠가 꼭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쁜 천을 구해 아이들과 주머니를 만들어 사골에서 만난 보물들을 담아가면 좋겠다.

씨앗 버튼달기: 늦여름부터 겨울까지는 옷에 달라붙는 씨앗(도둑놈 갈고리, 털이슬, 쇠무릎, 짚신나물, 도깨비바늘 등)들로 씨앗 버튼달기를 할 수 있다.

■ 食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정성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데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옥수수 따기, 딸기 따기,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같이 수확만 하는 건 아쉽다. 그래서 들살이 시기가 정해지면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농사활동을 꼭 넣는다. 사실 농사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덥석 일을 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쉬운 일을 거들어 자기가 먹는 먹을거리가 어떻게 밥상에 오르는지 알았으면 한다.

봄부터 나는 들나물 산나물도 꼭꼭 넣는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나물을 잘 캔다. 눈썰미도 좋아서 한두 번만 알려줘도 잘 뜯는다. 자기가 뜯은 나물이다 보니 밥상에 올라오면 쉽게 안 먹겠다고 하지 않는다. 뜯어서 먹기에는 늦은 여름철에도 억세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어보는데, 혀끝으로 경험한 기억은 본 것, 들은 것, 기록한 것보다 오래 남는 편이다.

제일 맛있는 건 배고플 때 먹는 밥이다. 삼시 세끼만 꼭꼭 챙겨먹고 충분히 바깥놀이를 하면 밥이 꿀맛이다.

■ 住

어떠한 집에 머물지도 참 중요하다. 산골체험이라면서 콘도 같은 곳에서 생활한다면 그게 산골이겠는가? 시골이라 해도 요즘은 다 개량주택에서 살지만 진짜 시골스러움은 시골집에 묻어 있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집에 방 하나쯤은 구들로 만들어 아이들과 나무하는 수고로움과 구들의 원리를 나누어본다. 방에 불을 때면서, 또 무쇠솥에 데운 물로 세수를 하면서 따뜻한 물, 따뜻한 방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에너지가 드는지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어떤 집에 머무느냐 뿐만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머무느냐도 함께 생각해볼 부분이다. 아이들을 한 가정살림에 맞게 꾸리면 아이들이 서로 도와서 집안일을 돌볼 수 있다. 대여섯 명이 모였을 때 나이가 다른 아이들을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밥먹기 전에 놀던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제 역할을 일러주어서 아이들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 집은 주거 기능 뿐 아니라 머무는 이들의 관계 형성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

자연에서 걷기

2006년 햇살네 프로그램에는 일정을 일체 공지하지 않았다. 무엇을 하든 날씨나 주변 상황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있고 더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생기면 알린 놀이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알리지 않는다. 햇수를 거듭하면서 엄마들도 햇살의 들살이 분위기를 알아서 그런지 별로 궁금

히 여기지 않는다. 처음 보내는 부모님들은 궁금해 하는데 그런 경우 자연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라고 말씀드리면 수긍하신다.

우리가 자연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걸으면서 발견할 수 있다. 때로는 보물찾기일 수도 있고 자연이 펼쳐내는 그림일 수도 있다. 맛, 냄새, 소리, 촉감,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자연에 다가서면 목표를 갖고 길을 나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이다. 논두렁을 걸을 수도 있고, 아는 길일 수도 있고, 낯선 길일 수도 있다. 미리 답사를 하지 않고 가는 편인데 아이들이 물어오는 것에 대답하는 정도로만 안내한다. 아이들은 꼭 물어본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뭘 하러 가요?" "왜 가요?" 다른 건 다 대답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이 출발할 때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에는 답하기가 어렵다. 같이 걷는 안내자의 역할은 일단 충분히 자연을 느낄 것과 최소한의 안전과 아이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친절하게 아이들의 시선에서 대답해 주는 정도면 충분하다.

아이들이 준비할 것은 없다. 손에 무엇을 들고 가는 것은 자연을 만나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물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개울물을 마시고, 새로 알게 된 자연의 비밀은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일기장에 담는 것으로 충분하다. 날씨가 허락하는 한 걷는다. 비가 자주 올 땐 비가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서 걷는다. 날이 좋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3. 아이들에게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가?

3박4일 여름 겨울 들살이와 2박3일 봄, 가을 들살이를 살펴보았을 때 아이들은 안내자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간다. 대개 산책과 농사일, 관찰일기 정도를 경험하고 돌아갔는데도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문득 문득 이곳에서 지낸 이야기를 꺼낸다고 한다. 사실 3박 4일 동안 큰 느낌을 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만 사는 요즘 아이들에게 마당 있는 시골집은 대단히 매력 있는 공간인 것만은 확실하다. 쉬운 예를 들면 '아래층에서 올라오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는 방이 뜨겁다며 보일러 꺼주세요 하는 아이도 있었다. 먹을거리는 마당이나 밭, 길가에서 뜯어다가 먹었다. 한마디로 아이들 개개인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들이 봇물 터지듯이 흘러나오는데 부모님들은 속으로 많이 놀라신다고 한다.

뒤에 언급하게 될 교류학습에서도 나오게 될 이야기이지만 도시 아이들 상당수가 비염을 앓고 있는데, 시골에서 3박4일 지내는 정도로도 상당히 좋아진다. 물론 도시에 가면 다시 비염이 심해지기도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도 눈여겨볼 만하다. 교류학습이나 산촌유학처럼 몇 달씩, 또는 일 년씩 있게 되면 도시에서 생기는 자잘한 병들은 저절로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Ⅲ. 실행 및 적용계획

가서 보고 느끼고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 산촌유학을 직접 보고 배운다

1. 준비- 자료조사와 연락

일본의 소다테루카이와 전국산촌유학협회, 그리고 직접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 산촌유학의 실제를 파악한다. 치밀한 사전 조사와 소통, 탐방팀 구성원 간의 팀웍 만들기 등 준비 과정을 거친다. '아는 만큼 보고 배우는' 법이다.

2월 7일 소다테루 도쿄 본부, 나가노 야자카마을 산촌유학센터, NPO 그린우드(환경교육단체), 전국산촌유학협회와 연락을 취했다. 한국에서 연수팀이 가는 목적과 의미를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답을 얻었다. 야자카마을 산촌유학센터에서의 숙박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놓겠다는 말도 들었다.

2. 방문 단체

전국산촌유학협의회

http://www.sanryukyo.net/toppage.htm / info@sanryukyo.net

오사카시 TEL 06-624-3631

(재)소다테루카이

http://www.sodateru.or.jp / mado@sodateru.or.jp

도쿄 본부(도쿄도 무사시노시) TEL 0422-56-0151

소다테루카이 소속 산촌유학센터

나가노현 야자카마을 TEL 0261-26-2306

NPO 법인 그린우드 자연체험교육센터:

http://www.greenwood.or.jp / npo@greenwood.or.jp

나가노현 TEL 0260-25-2851

키노쿠니어린이마을(초중등 통합, 생태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안학교)

와카야마현 하시모토시 와코마을 TEL 0736-33-3370(일정 변경으로 방문 못함.)

3. 연수 일정 및 계획

1) 사전 학습

조사한 자료와 김일복 씨의 탐방 경험, 그리고 최근에 연락 사항을 함께 나누고 일본에 다녀온 뒤 전망을 세우기 위해 2월 넷째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출발할 때까지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갖는다.

① 2월 25일(토요일) 상주 이명학 씨네
'산촌유학을 안다' (발제 김경옥) – 산촌유학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본다.

② 3월 25일(토요일) 마천 김일복 씨네 '산촌유학과 햇살네 교류학습의 차이는?' (발제 김일복) – 우리나라에 산촌유학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려낼지 구체적 방안을 찾는다.

③ 4월 22일(토요일) 서울 민들레출판사 '각자의 역할을 다시 점검하자' (발제 김경옥) – 일본 연수 때 각자 맡은 역할을 점검하고 개인별 준비 상황과 보완해야할 것을 챙긴다.

2) 일정(총 6박7일)

4월 30일(일요일) 서울 출발 / 오사카 도착 (오사카 1박)

5월 1일(월요일) 키노쿠니 어린이마을 탐방, 호리 교장과 인터뷰(키노쿠니 1박)
일본의 대표 생태교육현장인 키노쿠니 어린이마을에서는 생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학교에서 실천가능한 것, 산촌유학에 관한 견해 등을 안다.

5월 2일(화요일) 오사카 (재)소다테루카이 칸사이본부 방문(오사카 1박)
소다테루카이의 현황과 실태. 네트워크 실제, 현재 일본에서의 산촌유학에 대한 의견들을 자세히 파악한다.

5월 3-4일(수-목) 나가노 야사카마을 산촌유학센터 방문, 산촌유학의 실제를 만난다.(2박)
지역에서 산촌유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모습을 살핀다. 산촌유학센터의 운영 실제, 재정상황, 지속가능성, 지역과 연계, 홈스테이 가정 등, 실제 현장을 꼼꼼히 살핀다. 아이들의 유학 모습을 아이들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다.

5월 5일(금요일) 나가노현 NPO그린우드 자연교육체험센터 방문.(오사카 1박) 일본의 환경교육 실태와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한다. 산촌유학이 전체 환경교육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우드 활동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전체 환경교육 네트워크 현황도 조사한다.

5월 6일(토요일) 오사카 출발 / 서울 도착.

4. 앞으로의 계획

산촌유학은 도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골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생태교육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시골에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산다고 해서 생태적 감수성이 저절로 생겨나지는 않는다. 시골 아이들의 경우, 오히려 자연환경 속에 젖어 있다 보니 무관심하게 지나치기 십상이다. 맑고 향기로운 공기, 아름다운 하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시 아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도시 친구들과 함께 경험하는 자연은 혼자서 무심코 지나치는 자연과는 다른 존재로 다가올 수 있다.

더욱이 시골에는 아이들 수가 적어 또래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 오늘날 시골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도시 아이들보다 여러 모로 열악하다. 우선 시골 아이들의 상당수가 도시 빈민 결손가정 아이들로서, 조부모에게 맡겨진 채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자란다. 더욱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갈수록 나이를 드시면서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기 십상이다.

산촌유학은 이런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친구가 드문 환경에서 도시 아이들과 시골 아이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줌으로써 폭넓은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가능하면 시골 아이들이 도시 아이의 집에서 교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결연을 맺는 것도 추진해볼 만하다. 도시 아이들이 시골의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리는 대신 시골 아이들은 도시의 문화 혜택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친부모의 사랑은 아니어도 주위 어른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서 좀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교육의 기본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고자 한다.

① 귀농자 워크숍 : 귀농운동본부와 연대하여 귀농자들 대상으로 산촌유학제도를 알리는 워크숍 개최.
② 대안학교 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워크숍 : 대안교육연대 교육위와 대안과실천이 함께 대안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본 환경교육의 구체적 노하우를 나눈다.
③ 도농교류학습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매뉴얼 만들기
④ 마천 교류학습센터와 서울센터 설립